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조사(九州·沖繩편)

박찬식 · 고광명 · 심재욱 · 고병수

발 간 사

일제강점기 36년간 나라를 잃은 우리 민족은 뼈아픈 상처를 입은 채 경제적·정신적 수탈을 당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수많은 한국인과 제주인을 강제연행하여 태평양전쟁에 투입시켰습니다. 자신들이 원하지 않은 전쟁의 노예로 끌려간 우리 민족과 제주인들은 이역만리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되고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억울한 죽음과 강제 노역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수행한 「일제 강제연행 재일제주인 이주경로 추적」 연구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일본으로 강제 연행된 지역 주민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이들의 원혼을 기리고 역사적 사실 고증을 통해 미래 세대의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 사업은 징병·징용으로 끌려가 고달픈 삶을 살아온 재일제주인의 이주경로와 삶, 애환을 탐색하고, 강제 연행된 제주도민의 생사 확인과 함께 이를 역사적으로 남기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올해에는 작년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일본 규슈(九州)·오키나와(沖縄) 지방을 중심으로 강제 동원된 재일제주인의 명단 확인, 강제동원 관련 추모시설, 강제동원 현황 및 피해자 실태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를 일부 확인하고, 추모비·추도비·위령비 등 재일제주인 관련 비석 현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일본 내 권역별 추가 현지조사와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의 추가 확인, 자료의 기록화 작업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피해보상을 위해 작성된 국가기록원 소장 제주도민 피해 조사서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 검증 작업도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의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 조사사업을 위해 힘써 주신 연구책임자 박찬식 센터장님, 공동연구원 고광명·심재욱·고병수 선생님과 자문위원 이규배 교수님, 연구 뒷바라지를 해주신 윤명희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12월

제주연구원
원장 김동전

연구요약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일제말기(1939~1945년)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는 1939년 제2차 세계 대전, 1941년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하여 강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선인을 징병·징용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동원하였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일본은 이른바 ‘조선인 강제동원’이라는 노동력 동원 정책을 강행하였다. 초기에는 조선인의 민족적 저항을 두려워하여 ‘모집’ 형식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관(官)알선’, ‘징용’ 등의 형식으로 조선인을 동원하였다. 그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전시 노무동원이었다.
- 대한민국 정부(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대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추계한 ‘조선인 강제동원’ 인원 수(중복)는 7,804,376명으로 집계되었다. 군인(지원·징병)은 209,279명, 군무원 60,668명(국민징용자 대상 제외), 노무자는 7,534,429명으로 나타났다.
-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는 총 22만 6,638건이다. 제주도에서는 2,890건(군인 423건, 군무원 527건, 노무자 1,910건, 위안부 1건, 기타 24건, 미 표시 5건)이 접수되었다. 정부의 피해신고 심의·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1만 9,489건이 인정되었는데, 그 중에 제주도는 2,852건(군인 361건, 군무원 569건, 노무자 1,847건, 각하·기각·판정불능 75건)이 인정되었다.
- 규슈(九州)·오키나와(沖縄)지방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주변국을 침략하기 위해 무기와 군수물자를 생산하였던 곳이다. 때문에 조선인과 중국인 그리고 연합군 포로들이 이곳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 현재 파악한 규슈지방 강제동원 작업장은 845개소이며, 이 중 군수공장은 140개소에 달한다. 야마구치(山口)현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 끌려간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37,393명이다. 이 중 현지에서 2,512명이 사망했고, 675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본 규슈(九州)·오키나와(沖縄)지방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후쿠오카(福岡)현 13,423명, 사가(佐賀)현 1,626명, 나가사키(長崎)현 6,972명, 구마모토(熊本)현 470명, 오이타(大分)현 327명, 미야자키(宮崎)현 222명, 가고시마(鹿児島)현 1,000명, 오키나와(沖縄)현 2,499명, 규슈(九州) 7,566명 등 34,105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지역에는 대표적인 강제동원 기업인 미츠비시(三菱)중공업과 미츠비시

(三菱)광업, 일본제철(日本製鉄), 스미토모(住友), 히타치(日立) 등이 있었다. 대표적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운영한 나가사키(長崎)조선소에서는 강제 징용당한 조선인 4,700명 중 1,600명이 원폭 투하로 사망하였다.

- 竹内康人編(2015)에 따르면, 사망자 명부에는 제주도 출신 군인·군속이 622명으로, 이 중에 육군이 243명, 해군이 37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북태평양, 남양군도, 대만, 필리핀, 자바, 괌으로 이동 중 전함(戰艦) 등에서 사망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 강제노역자 중 제주도 출신 사망자는 18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홋카이도(北海道) 29명, 지시마(千島) 19명, 도쿄(東京) 8명, 와카야마(和歌山) 10명, 후쿠오카(福岡) 10명, 나가사키(長崎) 12명, 가고시마(鹿児島) 4명, 오키나와(沖縄) 12명, 기타지역 등에서 사망하였다.
- 따라서 본 조사는 일본 규슈(九州)·오키나와(沖縄)지방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재일제주인의 이주경로, 강제동원 관련 추모시설, 강제동원 현황 및 피해자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목적

- 첫째, 제주인의 삶과 애환을 살펴보기 위해 그 당시 제주도를 떠나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제주인 1세들의 자취를 추적 발굴하고 그들의 삶을 역사적으로 고증하는 데 있다.
- 둘째, 재일제주인 1세들은 거의 사망하였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서 이들 자식들인 재일제주인 2·3세를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연행과 관련된 이들의 삶을 돌아보는 데 있다.
- 셋째, 제주 선조들의 힘든 여정을 역사적으로 고증함과 동시에 일본 내 산재된 재일제주인 1세들의 삶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를 걷게 해 역사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다.

3. 연구범위

- 지역적 범위 : 본 조사는 일본 8개 지방 중 규슈·오키나와 지역에 국한하여 실시하였다 [(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오이타(大分), 구마모토(熊本), 미야자키(宮崎), 가고시마(鹿児島), 오키나와(沖縄) 등 8개 현(県)] .
- 대상자 범위 : 본 조사는 일본의 각 지역에 있는 강제연행 관련 비(碑) 조사, 재일제주인 이주경로, 기관방문(역사 사료관, 자료관, 박물관 등), 면담

조사(연구자, 시민단체, 종교인 등)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 시간적 범위 : 본 조사는 2018년 6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7개월)이다.

4. 연구기간

- 연구기간 : 2018년 6월 1일~2018년 12월 31일(7개월)
- 현지조사
 - ▶ 국내 현지조사는 2018년 7월 23일(월)부터 7월 24일(화)까지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 일본 현지조사(1차)는 2018년 6월 28일(목)부터 7월 8일(일)까지로 오키나와(沖縄)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 일본 현지조사(2차)는 2018년 7월 25일(수)부터 8월 3일(금)까지로 후쿠오카(福岡)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 일본 현지조사(3차)는 2018년 8월 9일(목)부터 8월 20일(월)까지로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오이타(大分), 구마모토(熊本), 미야자키(宮崎), 가고시마(鹿児島)지역 등 6개 현(県)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 일본 현지조사(4차)는 2018년 11월 7일(수)부터 11월 12일(월)까지로 미조사지역 후쿠오카(福岡)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5. 연구방법 및 절차

- 문헌조사 : 본 조사는 제주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등 피해신고 접수 및 심의·결과 현황,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 국무총리 소속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竹内康人編(2015), 『殉職産業人名簿』 등 강제연행 관련 저서, 논문,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6. 연구내용

- 첫째, 일본 8개현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그 당시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조들의 원혼을 달래는 의미에서 규슈·오키나와 지방에 있는 추모비, 추도비, 위령비 등(36개)이 있는 곳을 찾아 재일조선인 관련 비(碑) 현황을 파악하였다.
- 둘째, 일본 규슈·오키나와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시민단체, 민단

관계자, 종교인 등을 통해 강제동원 관련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연행에 대한 조사·연구 현황을 파악하였다.

- 셋째, 오키나와(沖縄)현 평화기념 공원에 있는 평화의 초석(刻銘者名簿)에서 제주도 출신 피해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넷째, 오사카에서 오키나와로 강제 연행된 제주도 출신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서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섯째, 『殉職産業人名簿』에는 제주도 출신(1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그 명부에는 연행년월, 사업소(기업), 성명, 나이, 유족(성명 등), 본적지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여섯째, 국가기록원과 竹内康人編(2015) 자료를 통해 강제 동원된 제주도 출신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일부 피해자 명부가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일곱째, 아직도 사망자 명단을 확인하지 못한 유족들을 비롯하여 발견되지 않은 유골이 일본 규슈·오키나와 지방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강제동원 관련 비(추도비, 추모비, 위령비 등)가 세워져 있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도 다수의 제주도 출신들이 강제 동원되었고, 이들의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2장 제5절에서 해군 군속의 경우와 같이 분석과 연구를 통해 이들이 겪은 강제동원의 실태를 일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7. 연구의 기대 효과

- 첫째, 명부자료의 분석을 통해 강제 동원된 제주도 출신들의 일반적으론 알려진 피해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권역별(8개 지방)로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 둘째, 국가기록원, 연구자, 경상원(慶尙院) 방문 등을 통해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명부를 입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본 조사에서는 일부이지만 강제 동원된 재일제주인 명부를 확인하고 작성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 셋째, 규슈·오키나와 등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지방본부가 보관하고 있는 재일한인(재일제주인)에 대한 소중한 자료(국민등록갱신·신규신청서)를 원

본 복사, 사진 스캔 등의 방법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강제동원과 관련된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 넷째, 노무현 정부 당시 피해보상을 위해 작성된 제주도민들의 피해조사서 등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것을 사본만이라도 제주에 반환되도록 시도하여 소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강제동원은 과거, 우리 민족이 그리고 우리 제주도 출신이 겪었던 ‘수난의 역사’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또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양국 간의 발전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 정부 차원의 강제동원 관련 조사 및 연구는 2015년 12월 소위 ‘한일 위안부 협정’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 중단된 사업을 지방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8. 정책적 제언

- 지방정부 차원의 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연구 수행자는 우선적으로 ‘기초 데이터’의 확보와 ‘기억의 전승’을 통한 관련 사실의 전파로 제시하고 싶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 첫째, ‘기초 데이터’의 확보이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강제동원 관련 자료 중 ‘제주인’ 관련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이 이미 제공한 자료가 아닌 보다 업그레이드된-화질이 좋은-자료의 입수가 물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둘째, ‘기억의 전승’이다. 현재 강제동원이 ‘법적으로 종료’된 지 약 80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강제동원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망한 상태이다. 이들의 경험담을 직접 청취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겪은 강제동원의 피해는 이들을 통해 이미 그들의 자손들에 일정하게 한정적으로 전파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후세대들에게 알려야 할 ‘역사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 셋째,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확보와 경험담을 토대로, ‘할아버지 제주인’들이 겪은 강제동원의 역사를 어린 학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역사 탐방 교육 프로그램 사업’도 함께 전개하는 것도 많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역울하게 죽어간 재일제주인 등에 대한 역사적 소명을 통해 후손으로서 이들의 기록을 사료로 남겨서 후세에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의 현장을 배우고 학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3. 기존연구의 검토	8
II. ‘명부자료’를 통해 본 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11
1. ‘강제동원 관련 명부자료’ 분석의 필요성	11
2. 국가기록원 소장 ‘명부자료’의 현황.....	12
3. 제주인 관련 ‘명부자료’	15
4. 제주인 해군 군속의 동원 실태	27
III. 규슈·오키나와 지방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실태.....	44
1. 후쿠오카(福岡)현	44
2. 사가(佐賀)현	46
3. 나가사키(長崎)현	47
4. 오이타(大分)현	48
5. 구마모토(熊本)현	49
6. 미야자키(宮崎)현	50
7. 가고시마(鹿児島)현	51
8. 오키나와(沖縄)현	52
9. 불분명한 규슈(九州)지방.....	53
IV. 조사결과.....	54
1. 조사개요	54

2.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비(碑) 특성	55
2. 재일제주인 이동경로	59
3. 기관방문 및 면담조사	60
 V. 결론 및 시사점	62
1. 결론	62
2. 시사점 및 한계	62
3. 제언	64
 * 참고문헌	65
* Abstract	67
■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비(碑) 조사카드	70
■ 현지조사 사진 자료	106
■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명부(규슈·오키나와)	115
■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장 일람표(규슈·오키나와)	125

표 목차

[표 I-1] 국내 현지조사 일정 및 내용	4
[표 I-2] 일본 현지조사(1차) 일정 및 내용	5
[표 I-3] 일본 현지조사(2차) 일정 및 내용	6
[표 I-4] 일본 현지조사(3차) 일정 및 내용	7
[표 I-5] 일본 현지조사(4차) 일정 및 내용	8
[표 II-1] 국가기록원 외정시피징용자명부(倭政時被徵用者名簿) 현황	13
[표 II-2] 각 명부별 ‘강제동원 제주인’ 현황	14
[표 II-3] ‘사가미명표’의 항목 및 내용	26
[표 II-4] 「舊海軍軍屬身上調査表」의 기재 항목과 내용	29
[표 II-5] 출신 지역별 동원 현황	30
[표 II-6] 시기별 동원 수	31
[표 II-7] 일본 지역 이외의 제주인 해군 군속 투입 지역 현황	32
[표 II-8] 일본 지역의 제주인 해군 군속 투입 현황	32
[표 II-9] 鎮守府 및 警備府의 編制	34
[표 II-10] 일본 지역의 제주인 해군 군속 투입 세부 현황	36
[표 II-11] 개별 부대·부서명	38
[표 II-12] 조선인 군속이 투입된 ‘특설’ 해군공작부	41
[표 III-1] 규슈·오키나와 지방 지역별 재일제주인 피해자 수	44
[표 III-2] 후쿠오카(福岡)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	45
[표 III-3] 사가(佐賀)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	46
[표 III-4] 나가사키(長崎)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	47
[표 III-5] 오이타(大分)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	48
[표 III-6] 구마모토(熊本)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	49
[표 III-7] 미야자키(宮崎)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	50
[표 III-8] 가고시마(鹿児島)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	51

[표 III-9] 오키나와(沖繩)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	52
[표 III-10] 불분명한 규슈지방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53
[표 IV-1] 일본 현지조사 지역(8県 26市·町·村)	54
[표 IV-2] 유형별 분포	55
[표 IV-3] 건립 시기별 분포	56
[표 IV-4] 건립 장소별 분포	56
[표 IV-5] 건립 주체별 분포	57
[표 IV-6] 근무지별 분포	57
[표 IV-7] 사망 원인별 분포	58
[표 IV-8] 지역별 분포	58
[표 IV-9] 기관방문 현황	60
[표 IV-10] 면담조사 현황	61

그림 목차

[그림 I-1] 일본 지도(1都 1道 2府 43県)	3
[그림 II-1] 「舊海軍軍屬身上調査表」의 형태(左-귀환자·右-사망자)	28
[그림 II-2] ‘南洋群島’지도	33
[그림 III-1] 후쿠오카(福岡)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지도	45
[그림 III-2] 사가(佐賀)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지도	46
[그림 III-3] 나가사키(長崎)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지도	47
[그림 III-4] 오이타(大分)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지도	48
[그림 III-5] 구마모토(熊本)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지도	49
[그림 III-6] 미야자키(宮崎)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지도	50
[그림 III-7] 가고시마(鹿児島)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지도	51
[그림 III-8] 오키나와(沖縄)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지도	52
[그림 IV-1] 재일제주인 이동경로 유형	5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일제말기(1939~1945년)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는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1941년 태평양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공포하여 강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선인을 징병·징용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동원하였다.

특히 1930년대 후반, 일본은 이른바 ‘조선인 강제동원’이라는 노동력 동원 정책을 강행하였다. 초기에는 조선인의 민족적 저항을 두려워하여 ‘모집’ 형식으로 시작했으나, 점차 ‘관(官)알선’, ‘징용’ 등의 형식으로 조선인을 동원하였다. 그것은 국가 권력에 의한 전시 노무동원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대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추계한 ‘조선인 강제동원’ 인원(중복 포함)은 7,804,376명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서 군인(지원·징병 포함)은 209,279명, 군무원 60,668명(국민징용자 대상 제외), 노무자는 7,534,42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태평양전쟁 초기인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과 조선, 남양군도, 만주, 사할린 등지에 동원되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는 총 22만 6,638건이다. 제주도에서는 2,890건(군인 423건, 군무원 527건, 노무자 1,910건, 위안부 1건, 기타 24건, 미 표시 5건)이 접수되었다. 정부의 피해신고 심의·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1만 9,489건이 인정되었는데, 그 중에 제주도는 2,852건(군인 361건, 군무원 569건, 노무자 1,847건, 각하·기각·판정불능 75건)이 인정되었다(www.jiwon.go.kr).

규슈(九州)·오키나와(沖縄)지방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 주변국을 침략하기 위해 무기와 군수물자를 생산하였던 곳이다. 때문에 조선인과 중국인 그리고 연합군 포로들이 이곳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현재 파악한 규슈지방 강제동원 작업장은 845개소이며, 이 중 군수공장은 140개소에 달한다. 야마구치(山口)현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 끌려간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는 모두 37,393명이다. 이 중 현지에서 2,512명이 사망했고, 675명이 행방불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규슈(九州)·오키나와(沖縄)지방 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후쿠오카(福岡)현 13,423명, 사가(佐賀)현 1,626명, 나가사키(長崎)현 6,972명, 구마모토(熊本)현 470명, 오이타(大分)현 327명, 미야자키(宮崎)현 222명, 가고시마(鹿児島)현 1,000명, 오키나와(沖縄)현 2,499명, 규슈(九州) 7,566명 등 34,105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에는 대표적인 강제동원 기업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과 미쓰비시(三菱)광업,

일본제철(日本製鐵), 스미토모(住友), 히타치(日立) 등이 있었다. 대표적 전범기업 미츠비시가 운영한 나가사키(長崎)조선소에서는 강제 징용당한 조선인 4,700명 중 1,600명이 원폭 투하로 사망하였다.

竹内康人編(2015)에 따르면, 사망자 명부에는 제주도 출신 군인·군속이 622명으로, 이 중에 육군이 243명, 해군이 37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북태평양, 남양군도, 대만, 필리핀, 자바, 괌으로 이동 중 전함(戰艦) 등에서 사망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강제노역자 중 제주도 출신 사망자는 18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홋카이도(北海道) 29명, 지시마(千島) 19명, 도쿄(東京) 8명, 와카야마(和歌山) 10명, 후쿠오카(福岡) 10명, 나가사키(長崎) 12명, 가고시마(鹿児島) 4명, 오키나와(沖縄) 12명, 기타지역 [서남제도, 일본 남방, 하치조지마(八丈島), 일본 혼슈 동방, 일본 서남, 규슈 일본 서방, 혼슈 동방, 혼슈 남동, 혼슈 남방, 일본해, 이오지마(硫黄島), 오가사와라(小笠原)] 등에서 사망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는 일본 규슈(九州)·오키나와(沖縄)지방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된 재일제주인의 이동경로, 강제동원 관련 추모시설, 강제동원 현황 및 피해자 실태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조사는 제주인의 삶과 애환을 살펴보기 위해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도를 떠나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제주인 1세들의 자취를 추적 발굴하고 그들의 삶을 역사적으로 고증하고자 한다. 현재 재일제주인 1세들은 거의 사망하였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자녀들인 재일제주인 2·3세를 통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관련된 이들의 삶을 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제주지역 청소년들에게 조상들의 발자취를 보고 느끼게 함으로써 역사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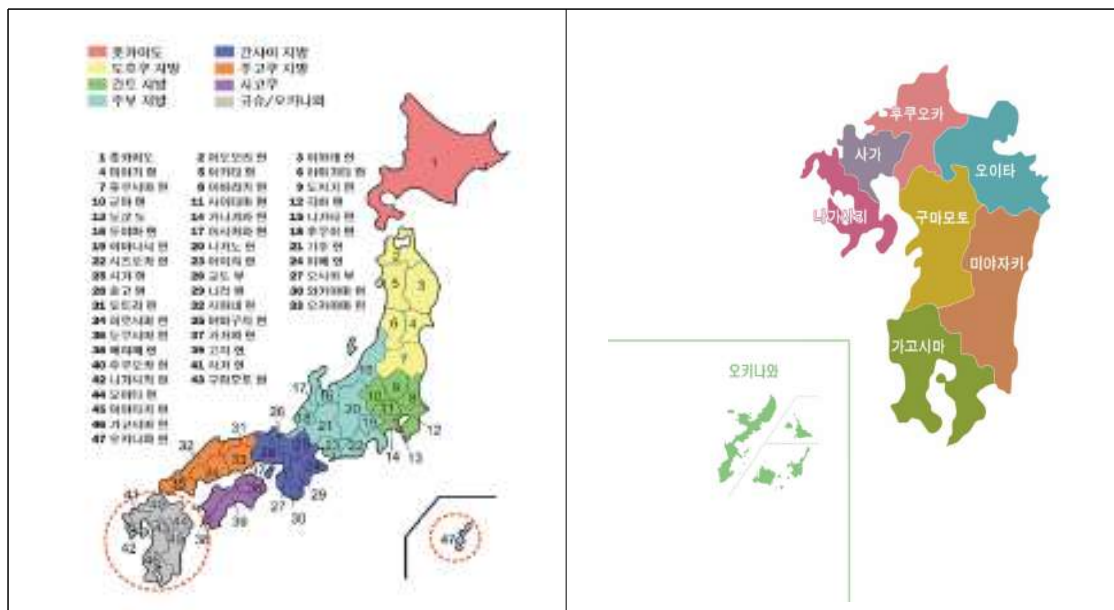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지역적 범위

본 조사는 일본 8개 지방 중 규슈(九州)·오키나와(沖縄)지방에 국한하여 실시하였다 [(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오이타(大分), 구마모토(熊本), 미야자키(宮崎), 가고시마(鹿児島), 오키나와(沖縄) 등 8개 현(県)] .

[그림 I-1] 일본 지도(1都 1道 2府 43県)



좌 : 일본 지도(47개 都道府県)

우 : 규슈(九州)·오키나와(沖縄) 지도

자료 : blog.naver.com/socialholic.

(2) 대상자 범위

본 조사는 일본 각 지역에 있는 강제연행 관련 비(碑) 조사, 제일제주인 이동경로, 기관방문(역사 사료관, 자료관, 박물관 등), 면담조사(연구자, 시민단체, 종교인 등)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3) 시간적 범위

본 조사는 2018년 6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7개월)이다.

2) 연구 방법

(1) 문헌조사

본 조사는 제주도청, 제주시, 서귀포시 등 피해신고 접수 및 심의결과 현황,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일제강점기 피해자 명부), 국무총리 소속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竹内康人編(2015), 『戰時朝鮮人強制労働調査資料集(増補改訂版)-連行先一覽全国地図・死亡者名簿』, 『殉職産業人名簿』, 일본 강제동

원 관련 저서, 논문, 통계자료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2) 현지조사

- 국내 현지조사는 2018년 7월 23일(월)부터 7월 24일(화)까지로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일본 현지조사(1차)는 2018년 6월 28일(목)부터 7월 8일(일)까지로 오키나와(沖縄)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일본 현지조사(2차)는 2018년 7월 25일(수)부터 8월 3일(금)까지로 후쿠오카(福岡)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일본 현지조사(3차)는 2018년 8월 9일(목)부터 8월 20일(월)까지로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오이타(大分), 구마모토(熊本), 미야자키(宮崎), 가고시마(鹿児島) 지역 등 6개 현(県)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 일본 현지조사(4차)는 2018년 11월 7일(수)부터 11월 12일(월)까지로 미조사지역 후쿠오카(福岡)현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3) 조사일정 및 내용

[표 I -1] 국내 현지조사 일정 및 내용

일자	조사지역	조사내용	비고
7월 24일	부산(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방문 강제동원 자료 수집	학예연구관 주영민(朱榮民)

[표 I -2] 일본 현지조사(1차) 일정 및 내용

날짜	지역	방문 기관	활동 내용	비고
6월 29일	오키나와(沖縄)현 이토만(糸満)시	■韓国人慰霊塔 ■平和の礎 ■沖縄県平和祈念資料館	·오키나와전(沖縄戦)군안·군속 ·오키나와전(沖縄戦) 조선인 각명(刻銘)비 ·済州と沖縄を結ぶ会 ·NPO법인 沖縄恨之碑の会	·하야시 시게미(林 成美) ·아라카키 야스코(新垣安子) ·아사토 에이코(安里英子)
6월 30일	오키나와(沖縄)현 이토만(糸満)시 시마지리군(島尻郡) 야에세초(八重瀬町)	■旧海軍司令部壕 ■沖縄 八重瀬(南風原)陸軍病院壕	·재일조선인(재일제주인) 강제동원 관련 자료 조사	·하야시 시게미(林 成美)
7월 01일	오키나와(沖縄)현 나하(那覇)시	■나하(那覇)시 역사박물관	·나하(那覇)시 역사	
7월 02일	오키나와(沖縄)현 기노완(宜野湾)시 요미탄촌(読谷村)	■민단 오키나와(沖縄)현 지방본부 ■青丘の塔 ■恨の碑	·오키나와전(沖縄戦) 군속	·하야시 시게미(林 成美)
7월 03일	오키나와(沖縄)현 도카시키키마(渡嘉敷島)	■アリラン慰霊のモニュメント ■旧日本軍特攻艇秘匿壕 ■集団自決跡地, 赤松隊本部壕 ■渡嘉敷村歴史民俗資料館	·오키나와전(沖縄戦) 위안부 ·오키나와(沖縄)지역 군안군속 연구자	·오키모토 후키코(沖本富貴子)
7월 04일	오키나와(沖縄)현 미야코지마(宮古島)	■アリランの碑 ■宮古島市総合博物館	·오키나와전(沖縄戦) 위안부 ·미야코지마(宮古島) 강제동원(군인군속, 위안부) 목격자 면담	·니시자토 하츠에(西里初枝) ·나가미네 스미에(長嶺すみ江) ·여나하 히로토시(与那覇博敏)
7월 05일	오키나와(沖縄)현 미야코지마(宮古島)	■宮古島戦争遺跡地	·미야코지마(宮古島) 전쟁 유적지	·니시자토 하츠에(西里初枝)
7월 06일	오키나와(沖縄)현 이시가키지마(石垣島)	■留魂之碑 ■八重山平和祈念館 ■石垣島戦争遺跡地	·오키나와전(沖縄戦)군부·위안부 ·戦争マラリアを語りつくす会	·시오히라 마사미치(潮平正道) ·아마자토 세츠코(山里節子)
7월 07일	오키나와(沖縄)현 나하(那覇)시	■오키나와전(沖縄戦) 유적지	·오키나와전(沖縄戦) 유적지	

[표 I-3] 일본 현지조사(2차) 일정 및 내용

날짜	지역	방문기관	활동내용	접촉인물
7월 26일	후쿠오카(福岡)현 오무타(大牟田)시	■解脫塔 ■合葬之碑 ■徵用犠牲者慰靈碑	·馬渡第一公園(三井三池炭鉱·収容所跡) ·甘木公園(三井三池炭鉱)	
7월 27일	후쿠오카(福岡)현 이즈카(飯塚)시	■無窮花堂	·飯塚市炭鉱関係遺骨堂 (飯塚霊園 国際交流広場)	·나칸다카리 마사히코(仲村渠政彦) ·요시다 사치코(吉田幸子)
7월 28일	후쿠오카(福岡)현 미야와카(宮若)시 케이센초(桂川町)	■炭鉱犠牲者復権の塔 ■徳香追慕碑	·千石公園(貝島大之浦炭鉱) ·아소(麻生)요시구미(吉隈)탄광	
7월 29일	후쿠오카(福岡)현 고다케초(小竹町)	■松岩菩提	·고가메오(古河目尾)炭鉱	
7월 30일	후쿠오카(福岡)현 아카이케초(赤池町) 이토다초(糸田町)	■鎮魂碑 ■福智町図書館歴史資料館 ■후쿠엔지(福圓寺) ■真岡炭鉱第三坑殉職者慰霊之碑	·아카이케(赤池)탄광 ·마오카(真岡)炭鉱事故者(朝鮮人刻名)	·田川市石炭歴史博物館 館長 모리야마 센이치(森山沾一)
7월 31일	후쿠오카(福岡)현 기타큐슈(北九州)시	■慰靈碑	·朝鮮人帰国船遭難者	
8월 01일	후쿠오카(福岡)현 소에다초(添田町)	■日向墓地	·고가(古河)오미네(大峰)탄광	·역사의 증언자 배동록(裴東錄)
8월 02일	후쿠오카(福岡)현 다가와(田川)시	■寂光(殉難碑) ■弔魂碑	·朝鮮人炭鉱殉職者之碑 ·요코지마(横嶋)炭坑殉職者之碑	·法光寺 住職 이노우에 미치아키(井上道昭)

[표 I-4] 일본 현지조사(3차) 일정 및 내용

날짜	지역	방문기관	활동내용	접촉인물
8월 10일	가고시마(鹿児島)현	▪민단 가고시마(鹿児島)현 지방본부	·강제연행 관련 자료(민단 국민등록 신청서)	·민단가고시마(鹿児島)현 지방본부 사무국장 任貞淳 섭외부장 富山正勝
8월 11일	가고시마(鹿児島)현 가노야(鹿屋)시	▪外國人納骨堂 ▪無縁物故者納骨堂 ▪鹿屋航空基地史料館	·鹿屋飛行場建設(緑山墓園) ·가고시마(鹿児島)현 가노야(鹿屋)시	
8월 12일	가고시마(鹿児島)현 지란(知覧)시	▪한국민단 가고시마(鹿児島)현 지방본부 ▪アリランの歌声とほく母の国に念ひ残して散りし花花 ▪지란(知覧)特攻平和会館	·제73주년 광복절 기념식 참석 ·조선반도 출신의 특공용사 11명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노래비(歌碑)를 세웠음 ·가고시마(鹿児島)현 知覧平和公園	·가고시마(鹿児島)현 지방본부 단장 및 神話傳說研究會 대표 鄭義鳳 ·鹿児島県立加世田高等學校 교감선생 重吉和久
8월 13일	미야자키(宮崎)현 미야자키(宮崎)시	▪鎮魂(宮崎特攻基地慰靈碑) ▪宮崎海軍航空隊之跡	·미야자키(宮崎)현 미야자키(宮崎)시(宮崎空港)	
8월 14일	구마모토(熊本)현 아라오(荒尾)시	▪不二之塔 ▪万田炭鉱館	·三井三池炭鉱(荒尾市 正法寺) ·三池炭鉱 万田坑 유적지	·万田炭鉱館職員 慶田 修
8월 15일	나가사키(長崎)현 나가사키(長崎)시	▪供養塔(구) ▪慰靈碑 ▪石炭資料館	·三菱高島炭鉱(長崎市 高島) ·유골은 곤소지(金松寺) 납골당 안치	
8월 16일	사가(佐賀)현 가라츠(唐津)시	▪大鶴礦業所殉職者之碑	·기시마오츠루(杵島大鶴)炭鉱朝鮮人刻名(唐津市肌前光明寺)	·光明寺 住職 川原浩心
8월 17일	나가사키(長崎)현 이키(壱岐)시 아시베초(芦辺町)	▪大韓民国人慰靈碑 ▪大韓民国遭難者精霊等	·귀국선조난(帰国船遭難) ·천덕사(天徳寺)	·天徳寺 住職 西谷徳道 ·후쿠오카(福岡)현 지방본부 단장 李相鎬
8월 18일	오이타(大分)현 오이타(大分)시	▪ムッチャン平和像	·오이타(大分)현 평화시민공원	
8월 19일	후쿠오카(福岡)현 오무타(大牟田)시	▪馬渡社宅51棟跡	·馬渡第一公園(三井三池炭鉱収容所跡)	

[표 I -5] 일본 현지조사(4차) 일정 및 내용

날짜	지역	방문기관	활동내용	비고
11월08일	후쿠오카(福岡)현 후쿠오카(福岡)시	▪재일본 대한민국 민단 후쿠오카(福岡)현 지 방본부	·강제연행 관련 자료(민단 국 민등록 갱신·신규 신청서)	·후쿠오카(福岡)현 지방본부 단장 이상호(李相鎬)
11월09일	구마모토(熊本)현 아츠시로(八代)시	▪조흔비(弔魂碑)	·鹿兒島本線(海岸線)工事朝 鮮人名	·善立寺 住職 니시아마(西山)
11월10일	후쿠오카(福岡)현 이이즈카(飯塚)시	▪慶尚院 ▪俱会一处墓	·炭鉱連行者追悼 ·日鉄二瀬炭鉱無縁遺骨	·慶尚院 住職 최경상(崔慶尙)
11월11일	후쿠오카(福岡)현 케이센초(桂川町) 이이즈카(飯塚)시	▪吉隈炭鉱共同墓 地納骨堂 ▪관음사(觀音寺)	·麻生吉隈炭鉱 ·관음사(觀音寺) 유골 보관	·觀音寺 住職 古賀一弘

3. 기존연구의 검토

본 조사의 목적은 일제말기(1939~1945) 일본에 강제적으로 동원된 재일제주인 1세들의 자취를 추적 발굴하여 향후 재일제주인의 강제동원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 재일제주인 연구는 대부분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져 있어서 2017년에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제외하면 재일제주인 강제동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현실이다.¹⁾ 이러한 연구 상황 속에서 재일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하여 국내외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사학자 박경식(朴慶植)은 1965년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을 저술하였다.²⁾ 이 저서는 일제강점기 강제연행에 대한 최초의 보고서로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강제연행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물이다. 식민지 노예로 혹사당한 조선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했었는지, 어떻게 강제 연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해방 후 어떤 차별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실상을 공개하였다. 조선인의 강제연행 사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던 시절에 그는 강제 연행된 조선인들의 학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각종 문서를 조사하였으며, 조선인 징용자 및 목격자를 만나 인터뷰를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해방 전후 일본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겪은 재일조선인 1세대의 입장에서 각종 노

1) 박찬식·고광명·고병수(2017), 『일제 강제연행 재일제주인 이주경로 추적』,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2) 朴慶植(1965),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来社 [박경옥(2008),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고즈윈]. 이 외에도 강제연행 관련 연구로는 다음과 같이 다수의 문헌들이 있다. 金英達(2003), 『朝鮮人強制連行の研究』, 明石書店. 朴慶植(1991), 『朝鮮人強制連行についての調査研究』, 『アジア問題研究所報』(6), アジア問題研究所. 朴慶植(1993), 『朝鮮人強制連行』, 『朝鮮人強制連行論文集』, 明石書店. 김인덕(2002), 『강제연행 연구』, 경인문화사. 정혜경(2006),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Ⅰ: 일본편』, 선인. 정혜경(2011), 『일본 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 :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Ⅱ』, 선인.

역으로 혹사당하고 종전 후에는 조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한 채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장받지 못한 재일조선인들의 실상을 밝히고 있다.

둘째, 朝鮮人強制連行調査団은 1974년 『朝鮮人強制連行・強制労働の記録-北海道・千島・樺太編』을 발간한 이후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른 조사를 진행한 결과물을 시코쿠(四国), 오사카(大阪), 효고(兵庫), 주부도카이(中部・東海), 주고쿠(中国), 간토(関東) 등 지역별 시리즈(『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을 발간하였다.³⁾ 이 조사단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엄밀한 공동조사로 국소적으로 행해왔던 강제연행 조사의 성과를 포함해서 새롭게 일본 열도 전역에 전개된 전시하의 강제연행을 총괄적으로 해명하였다. 특히 각지에서 모집된 조선인들은 철도나 금속광산, 조선소, 군수공장, 군사시설, 지하공장 건설 등을 위해 강제 노동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武富登已男・林えいだい(2000)는 중국, 조선반도에 있어서 국가 모두의 노동자 사냥, 탄광에서의 과혹한 강제노동, 학살, 도주 그리고 패전 등 갱내(坑内)계(係), 특고(特高), 포로들의 생생한 증언, 수기, 게다가 폐각 처분된 미즈이(三井)야마노(山野)광산(鉱山)의 수용소 설계도를 통해 전시하의 탄광의 실태를 밝혔다.⁴⁾

넷째, 정혜경(2003)은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사료 연구』에서 식민지 지배의 잔상인, '피해의 역사', 강제연행의 역사를 통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논했다.⁵⁾ 문헌자료는 물론, 노동현장을 답사하고 경험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그들 삶의 궤적을 이해하려 했던 작업의 경험을 모아 정리하고 있다.

다섯째, 한일민족문제학회(2005)는 식민지시대 노동력 수탈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연구를 총망라하여 노동력, 병력, 성 동원, 귀환, 원폭 피해, 전후 보상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으며, 주요 논저의 해제 및 출판지, 주제별 목록을 소상히 제시하고 있다.⁶⁾

여섯째, 김인덕(2008)은 「일제시대 여수지역 강제연행에 대한 고찰」이란 논문에서 일본 전역과 태평양 일대까지 여수 사람들이 끌려갔다는 것이다. 특히 여수지역 강제연행 가운데 군속으로 동원된 경우는 일본 홋카이도, 오사카, 규슈, 남양군도(南洋群島) 등지로 갔다. 결국 이 지역은 강제연행의 송출지로 다른 지역과는 차별성을 갖고 있는 특수한 곳으로 특히 배에서 생활한 경험 때문에 군함(軍艦)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⁷⁾

일곱째, 竹内康人編(2012)은 조선인 강제연행자 명부 분석, 조선인 미지불금 실태, 강제동원 수와 유골, 과거청산 운동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⁸⁾ 또한 竹内康人編(2015)은 전

3)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1974), 『朝鮮人強制連行・強制労働の記録-北海道・千島・樺太編』, 現代史出版会.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1992),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四国編』, 柏書房.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1993),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大阪編』, 柏書房.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1993),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兵庫編』, 柏書房.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1997),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中部・東海編』, 柏書房.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2001),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中国編』, 柏書房.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2002),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関東編』, 柏書房.
4) 武富登已男・林えいだい(2000), 『異郷の炭鉱-三井山野鉱強制労働の記録-』, 海鳥社.
5) 정혜경(2003),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사료 연구』, 景仁文化社.
6) 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연구분과(2005), 『강제연행 강제노동 연구 길라잡이』, 선인.
7) 김인덕(2008), 「일제시대 여수지역 강제연행에 대한 고찰」 67권, 『역사와 경계』, 부산경남사학회, 9~29쪽.
8) 竹内康人編(2012), 『戦時朝鮮人強制労働調査資料集2-名簿未払金動員数遺骨過去清算-』, (財)神戸学生

시 조선인 강제노동 조사의 현황과 과제, 강제연행 조선인 노동현장 전국 일람표, 강제연행 전국지도, 강제연행 조선인 사망자 명부 등을 정리하였다.⁹⁾

여덟째, 沖本富貴子(2017)는 오키나와전(沖繩戰)에 조선인이 어떻게 연행되어 배치되었는지, 소속했던 부대와 배치 수에서 전체의 윤곽을 잡으려 했다. 부대별로 사망자 수, 사망 시기, 사망 장소를 살펴봄으로써 전장에서의 실태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다. 더 나아가 조선인 부대가 있었던 특설수상근무대(特設水上勤務隊)에 대해 동원에서부터 오키나와의 항만 작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다루었다.¹⁰⁾ 沖本富貴子(2018)는 오키나와전에 동원되었던 조선인에 대해 통설로 되어 있는 1~2만 명이라는 근거를 서지나 보도에서 짚어보았지만 수치를 뒷받침할 것이 없었다. 현재 한국정부에 전달된 군인군속의 유수명부(留守名簿) 등에서 오키나와전 관련자는 약 3,500명까지 파악되고 있지만 이 밖에도 더 있었을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게라마(慶良間)나 미야코야에야마(宮古八重山)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해명된 동원 수를 나타냈다.¹¹⁾

아홉째, 太田静男(2014)는 지도로 찾아가는 야에야마(八重山)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3부로 나누어 저술했다. 제1부는 전적(戰跡)에 서다, 제2부는 야에야마의 전쟁, 제3부는 자료편으로 구성하여 살펴보았다.¹²⁾

이처럼 일제강점기 강제연행에 대한 조사연구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전후로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국내외 강제연행 연구는 한국에서 2004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 관련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동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면서 시민단체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조선인 강제연행에 대해 발굴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규슈(九州)·오키나와(沖繩)지방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통해 기존연구의 공백을 보완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青年センター.

9) 竹内康人編(2015), 『戦時朝鮮人強制労働調査資料集(増補改訂版)－連行先一覧・全国地図・死亡者名簿－』, (財)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 이 외에도 강제연행 관련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문헌들이 있다. 竹内康人(2013), 『調査朝鮮人強制労働①炭鉱編』, 社会平論社; 竹内康人(2014), 『調査朝鮮人強制労働②財閥鉱山編』, 社会平論社; 竹内康人(2014), 『調査朝鮮人強制労働③発展工事・軍事基地編』, 社会平論社; 竹内康人(2015), 『調査朝鮮人強制労働④軍需工場・港灣編』, 社会平論社.

10) 沖本富貴子(2017), 「沖繩戦に動員された朝鮮人に関する一考察－特設水上勤務隊を中心に」 『地域研究』 第20号, 沖縄大学地域研究所, 29~53쪽.

11) 沖本富貴子(2018), 「沖繩戦の朝鮮人－数値の検証」 『地域研究』 第21号, 沖縄大学地域研究所, 45~65쪽.

12) 太田静男(2014), 『八重山の戦争(復刻版)』, 南山舎.

II. 명부자료를 통해 본 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1. ‘강제동원 관련 명부자료’ 분석의 필요성

전시체제기(1937~1945)에 제주인을 포함한 수많은 ‘식민지 조선인’들은 노무자, 군인, 군속, 위안부 등의 형태로, 일본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으로써 강제동원되었다. 그 규모는 자료상의 한계로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한반도 내외의 지역에 약 782만 명(연인원, 한반도 내 6백50만, 한반도 외 104만)이 동원된 것으로 현재 추산되고 있다.¹³⁾

이처럼 대규모로 진행된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은 그들의 한반도 식민지배의 목적이 그들이 선전하던 그리고 지금도 일부 우익이 행하는 망언처럼 ‘조선의 근대화’가 ‘식민지 조선의 활용’에 있었음을 단적으로 파악케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강제동원이 ‘종료’된 지 70여 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고 학문적 연구도 미비한 상태로 많은 연구 과제를 안고 있다. 2004년 11월 ‘국무총리실 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되어 일부 관심을 이끌어 내고, 이전에 비해 관련 연구자 및 연구성과가 증가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2015년 12월 31일부로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고, 그 3일 전에 소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것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한국 사회의 무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과제 중의 하나가 바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의 기록을 담고 있는 ‘강제동원 관련 명부자료’(이하 명부자료)에 대한 분석과 연구이다.

일본은 전시(戰時) 동원 과정에서, 그리고 패전 이후 ‘처리·수습’ 과정에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작성하였다. 개별 자료마다 구성하는 항목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인적사항과 동원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언제, 어느 지역에서, 몇 살에’ 동원되어, ‘언제, 어떤 부대·기업 소속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신분으로’ 투입되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노역에’ 처해 있었으며, ‘언제,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부상·사망하였으며,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 귀환’하였는가와 같은 내용을 일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물론 이 명부자료들이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의 기록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각 자료들마다 구성 항목의 차이, 기재의 오류 등과 같은 여러 한계를 지니고도 있다. 하지만 전체 강제동원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관련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연구의 중요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명부자료 분석의 필요성 하에서, 본 장은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조사’의 한 방법으로 강제동원된 제주인 관련 자료가 편철된 명부자료에 대

1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요약본)』, 2016.6, 33쪽.

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강제동원된 제주인 명부 자료의 내용과 성격을 개관하고, 주요 동원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해군 군속 동원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작업은 강제동원된 제주인의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은 아니다. 전체 강제동원 규모의 파악이 불가능하기에, 제주인의 강제동원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련 명부자료의 분석을 통해, 강제동원된 제주인들의 일반적으로만 알려진 피해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국가기록원 소장 ‘명부자료’의 현황

1) 국가기록원 소장 ‘명부자료’의 현황

현재 국가기록원은 1971년 『피징용사망자연명부(被徵用死亡者連名簿)』를 시작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사본의 형태로 인계받은 다수의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명부자료’들을 소장 중에 있다. 이외에도 ‘위원회’가 발굴·수집한 관련 명부자료도, ‘위원회’의 활동 종료 이후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받아 소장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일제 강점기 피해자 명부’ 코너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들과 1957~58년에 한국 정부(노동청)에서 작성한 『왜정시피징용자명부(倭政時被徵用者名簿)』에 불과하다. 그 규모는 일본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 480,693명 분과 한국 정부가 작성한 285,771명 분에 이른다.¹⁴⁾ 국가기록원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들 명부자료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그런데 이 국가기록원에서 소개하고 있는 강제동원 관련 명부자료들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첫 번째는 바로 새로운 내용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지 않은 점이다. 실제로 2013년 주일한국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된 『일정시피징병자급애국운동자명부』의 경우,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자료에는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2004년부터 2016년까지 강제동원 관련 피해조사 및 지원업무를 담당 하였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발굴·수집한 58종에 이르는 관련 명부자료에 대한 언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¹⁵⁾ 또한 이들 자료에 대한 검색도 불가능하다. 새로이 발굴·수집된 자료들을 빠르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들 자료들이 분석과 연구도 거치지 않고 오로지 ‘기록물’로서만 소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14) 이하 ‘국가기록원 소장 명부자료’에 대한 내용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의 ‘일제 강점기 피해자 명부’ 코너의 ‘명부소개’ 내용을 이용하였다(검색일 2018.11.30.).

15) ‘위원회’에서 발굴·수집한 강제동원 관련 명부자료들의 목록에 대해서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2016.6, 459~467쪽.

[표 II-1] 국가기록원 외정시피징용자명부(倭政時被徵用者名簿) 현황

시명부명기	수량	등재 인원 수	이관시기(일본→한국)
유수명부	114권	160,648	1993.10. 9.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15권	69,766	1991. 3.
임시군인군속계	103권	46,164	1993.10. 9.
소위 조선인 징용자에 관한 명부	6권	27,949	1991. 3.
피징용사망자연명부	10권	21,692	1971.10.
병적전시명부	67권	20,222	1993.10. 9.
일제하피징용자명부	3권	14,410	1991.12.
군속선원명표	26권	7,046	1993.10. 9.
부로명표	156권	6,942	1993.10. 9.
군인/군속명부(자유한인보)	1권	2,623	1993. 3.25.
공원명표 등	13권	2,102	1993.10. 9.
병상일지	30권	851	1993.10. 9.
해군 군속자명부	26롤	100,788	1993.10. 9.
소계	544권/26롤	480,366	

2) 국가기록원 제공 제주인 관련 ‘명부자료’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의 요청에 의해 국가기록원은 ‘명부자료’에 수록된 10,097명에 해당하는 기록물 사본을 색인목록과 함께 디지털 파일 형태(DVD)로 제공하였다.¹⁶⁾ 제공 받은 색인목록에는 총 10,432건이 존재한다. 국가기록원 공문상의 10,097명은 중복 분을 제외한 인원수로 판단된다. 제공받은 각 명부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이 색인 목록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 나타난 인원수가 강제 동원된 제주인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이 인원수들은 각각의 명부자료들에서 확인되는 제주인수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중복분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편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사본은 대부분의 자료들이 사실상 판독이 불가능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해당 명부들의 디지털 자료가 아닌 다운 그레이드(down grade)한 파일 자료를 제공한 것이다. 자료를 요청한 지 장시간이 소요된 것은 물론이고, 판독이 불가능한 자료의 송부로 대부분의 자료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였다.

16) 별첨한 국가기록원 공문(공개서비스과-18212, 2018.10.31.) 참조.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조사

[표 II-2] 각 명부별 ‘강제동원 제주인’ 현황

철 제목	명부 제목	연행지	제주인 관련 건수
가미오카(신강)광산희생자명부(기부현)	가미오카광산희생자명부(35명)	일본 기부현 신강광산	1
가와니시(천서)항공기명부(병고현)	가와니시항공기주식회사(38명)	일본 병고현 천서항공기주식회사	3
공원명부등육군관아 (수품양말병기보급창등)	항공창(40명)		3
공원명표상모육군조병창대판육군조병창	야(63명)		1
구레(오)해군공창의연행자명부	귀성선주소명부(정기료)(452명)	일본 오해군공창정기료 (日本吳海軍工廠正氣療)	2
구일본육 해군징용선시망자명부	구일본육해군징용선시망자 (2614명)		370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1,453
구해군군인이력원표			304
군속선원명표			1,197
군인·군속사물자명부			2
군인·군속사물자명부(오,복강복원부)			9
나가사키(장기)조선인피폭자명부	장기조선인피폭자(2251명)	일본 장기현(나가사키)	12
노동원시망자명부(각도)			3
매화장인허원부(이근군도야촌역장) 및 과거장	탄광재해(114명)	일본 삼송원편조원수직자(상호가 문서북구주시)-三松園編照院殉職 者(三好家文書北九州市)	4
명부록		중국 산둥 청도	3
병상일지[비공개]			39
병적전시명부[비공개]			196
부로명표[비공개]			100
비바이(미패)탄광시망자명부(북해도)	비바이(미패) 탄광시망자명부(552명)	일본 북해도 미패탄광 (日本北海道美唄炭坑)	24
소위조선인징용자등에관한명부	3692공장무도대편람(2176명)	일본 북해도 3692공장무도대	4
	대일본산업보국회-북강현지부 (314명)	일본 북강현 심릉반총광업소	1
	만자탄광주식회사(1001-1133명)	일본 북해도	2
	신항내광업소(68명)		3
	평화광업소(50명)	일본 북해도 탄광기선주식회사	1
	평화광업소평화광(13명)	신항내광업소	13
	평화광업소평화광(35명)		35
수미토모(주우)전공명부(병고현)	수미토모(주우)전공주식회사(39명)	일본 병고현 주우전공	3
왜정시피징용자명부			1,583
유골명부(구육군부, 구해군부, 일반부)			117
유수명부			840
육군운수부군속명부			10
일정시피징병지급애국운동자명부 (제주도)			1,718
일제하피징용자명부	상반탄전조선인노동자순직자명부 (310명)	일본 북강현 상반탄전	3
	순직산업인및유족조사보고서명부 -북해도(207명)	일본 북해도	11
	순직산업인유족조사보고서명부 -자하현(2명)경도부(1명)대판부(3명)	일본 대판부	2
임시군인군속계			976
자유한인보(7호)			16
제2차세계대전중전몰한국인유족에 대한 향 전금지급명세서	제주도 신청분		90
조선인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377
조선인육군군인조사			154
쓰모(도무)광산의연행자명부(도근현) 강제노동화강광산사망자명부		일본 도근현 도무광산	2
태평양전쟁한국인전몰자유골명부			77
태평양전쟁희생자명부			41
피징용시망자명부			619
화장인허증 및 번째보고서(장기)		일본 장기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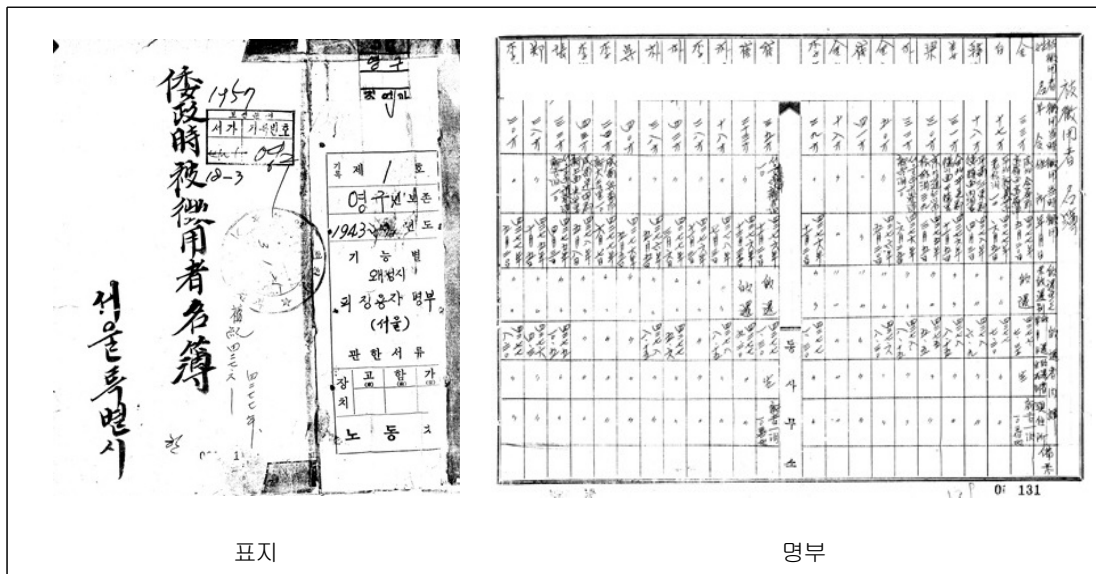
3. 제주인 관련 ‘명부자료’

이 절에서는 제주인의 기록이 수록된 ‘명부자료’들에 대해 개관한다. 각각의 ‘명부자료’의 그림 중에서 성명 중의 이름, 생년월일 중의 월일, 가족의 이름, 본적지의 면(面) 이하 주소 등 개인신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여 수록하였다.

1) 주요 ‘명부자료’

(1) 왜정시피징용자명부 및 일정시피징병자급애국운동자명부

■ 왜정시피징용자명부



-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285,771건
-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1,583건
- ③ 항목 : 피징용자 성명, 징용 당시 연령, 징용 당시 주소, 징용 연월일, 귀환 또는 미귀환, 귀환자 내역-귀환연월일·귀환시 생사별·현주소, 비고
- ④ 개요 : 한국 정부가 일본과 수교 문제를 협의하면서 대일 배상청구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57~59년 사이에 노동청에서 작성·생산한 문서이다. 각 시도별로 피징용자 명단을 신고 받아 작성한 자료로, 최초 각 시도에서 작성할 당시 동장이나 면장 등이 당사자 또는 가족 등을 통해 작성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동원시기와 기간, 투입 지역에 대한 정확도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인원수에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6·25전쟁’ 이후 남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는 점과 당시 사회 상황에서 위안부, 여자근로정신대와 같은 여성 동원에 대한 신고는 상당히 누락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 확인 불가(일본 전 지역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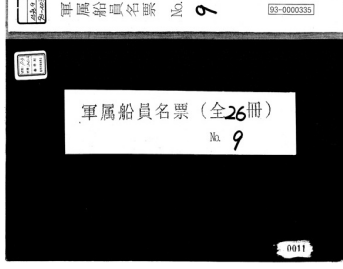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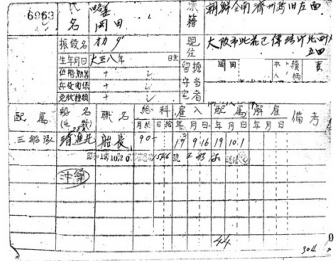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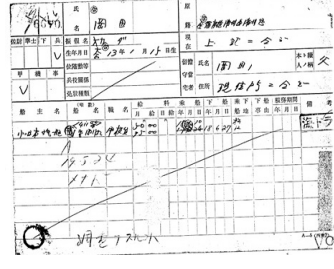
■ 일정시피징병자급애국운동자 명부



- ① 색인목록(제주인) 건수 : 1,718건
- ② 항목 : 주소, 주소, 생년월일, 피징용 연월일, 귀환 연월일, 미귀환 이유-사망·행방 불명, 비고
- ③ 개요 : 2013년 주일한국대사관 이전 과정에서 ‘관동지진피살자명부’, ‘3·1운동피살자명부’ 등과 함께 발견된 3종의 자료 중의 하나이다. 1952년 내무부에서 생산된 자료이다. 그 형태는 ‘왜정시 피징용자 명부’와 일부 항목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거의 유사하다. ‘왜정시피징용자명부’에 게재된 인원 상당수가 중복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일제 강점기 피해자 명부’ 코너의 ‘명부소개’에 대한 내용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④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 확인 불가(일본 및 점유·침략 전 지역 추정)

(2) 군속선원명표

■ 군속선원명표

 표지	 명표 1	 명표 2
---	---	--

-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7,046건
-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1,197건
- ③ 항목 : 1. 일련번호, 씨명, 원적, 현주, 생년월일, 위계훈등, 병역관계, 면상종류, 계급, 진가명(振假名, 후리카나), 갑·가·사, 유수택담당자(가족 성명, 관계, 주소), 선주명, 선명, 직명, 급료, 승선일, 하선일, 승하선지, 하선이유, 복무기간, 비고/ 2. 일련번호, 전공적, 사본조합, 특종공훈, 미담, 표창, 사고자, 이력서, 씨명, 본적, 생년월일, 훈장, 위계, 면상종류, 유수담당자, 해군 관계, 배속선, 선명, 톤수, 직명, 급료(월급), 고입연월일, 배속·승선연월일, 하선·휴무연월일, 해고연월일, 선박구분, 명부제조, 적요
- ④ 개요 : 육군 선원(군속)의 개인별 자료이다. 항목 구성으로 볼 때, 보다 다양해지는 2형의 문서가 후기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적’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일본인 선원도 이 자료에 내역이 기재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우에 따라 침몰 시기가 기재되어 있어, 해당 인원의 사망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전시체제기에 일본 정부 기관이 작성한 1차 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 ⑤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 확인 곤란(일본 및 점유·침략 전 지역 추정)

※ 선원이 육군의 군속이 되는 것은, 일본의 경우 전시 수송을 위해 선박을 징용할 때, 육군과 해군 그리고 운수성이 협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징용하였기 때문이다. 그 주체에 따라 육군에 징용된 선박을 A선, 해군 B선, 운수성 C선으로 구분하였다.

(3) 유수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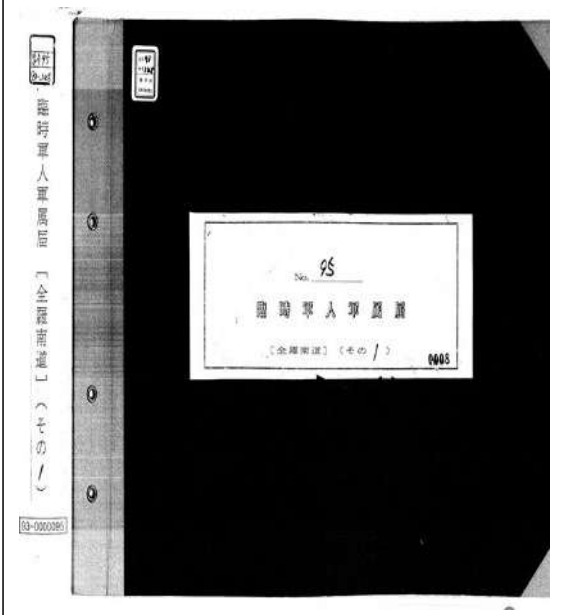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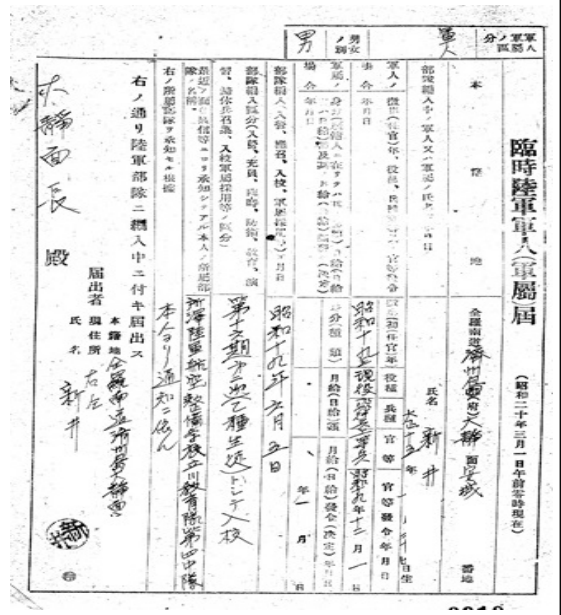
■ 유수명부



-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160,148건
-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840건
- ③ 항목 : 편입시기, 전소속부대 및 그 편입연월일, 본적지, 유수담당자-주소·관계·씨명, 징집년, 임관년, 역병종(役兵種) 관등 및 등급 봉급 월액(月額) 발령연월일, 유수택도(留守宅渡)유무, 보수(補修)연월일
- ④ 개요 : ‘유수명부’는 육군의 각 부대별로 작성하는 자료로, 군인과 군속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에 소장 중인 ‘유수명부’는, 패전 이후 각 부대별로 관리하던 해당 자료를 후생성(厚生省)에서 인계받아, 1945~1949년 사이에 조선인 부분만 따로 빼서 재작성한 자료이다. 따라서 원본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편철은 대부대에서 소부대 순으로, 주로 중대별로 창씨명의 일본어 발음 순서에 따라 편철되어 있다. 일부 편철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투입된 부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표지와 중간 표지, 그리고 명부에 기재된 부대명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각 항목에 기재된 부분 이외에, 상하부의 여백에 기재된 내용도 동원 실태를 파악하는데 중요하다. 사망자 중 야스쿠니(靖國)에 합사된 경우, ‘합사완료(合祀済)’라는 표기가 존재하며, 공탁금 번호(예 : 供16781)가 기재된 경우도 있다. 패전 이후에 작성된 자료이기는 하나, 1차 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 ⑤ 제주도 투입 지역·작업장 : 확인 곤란(일본 및 점유·침략 전 지역 추정)

(4) 임시군인군속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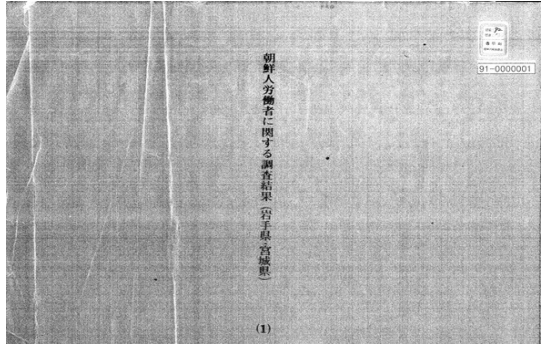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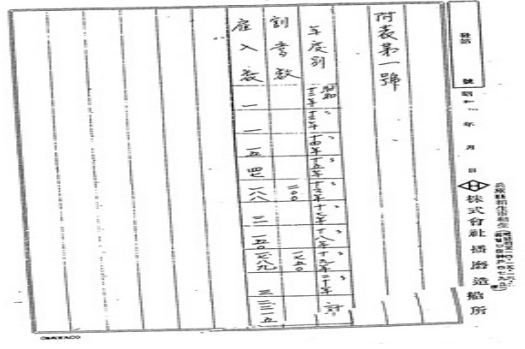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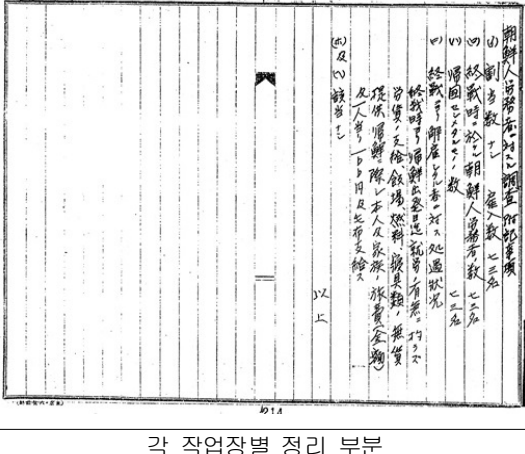
■ 임시군인군속계

표지	명부
	

-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46,164건
-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976건
- ③ 항목 : 본적지, 씨명, 생년월일, 징집(초입관)년, 병종·병과, 관등, 관등발령연월일 [이상 군인 관련], 신분(종류), 월급(일급)액, 일급·월급·발령(결정)연월일 [군속 관련], 부대편입(입영·응소·입교·군속채용)연월일, 부대편입구분(입영·충원·임시·방위·교육·연습·귀휴병·소집·입교·군속채용등), 우수담당자
- ④ 개요 : 1945년 3월 1일 0시 현재 일본 육군에 동원되어 있던 군인·군속에 대하여 호주(또는 가족)가 면장 앞으로 보낸 신고서. 주로 강제동원된 인원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나 전보와 같은 통신 내용을 통해 해당 내용을 기재하였기 때문에 일정한 오류가 존재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른 문서들과의 중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시체제기에 일본 정부의 명령으로 작성된 1차 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 ⑤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 확인 곤란(일본 및 점유·침략 전 지역 추정)

(6)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표지	작업장 통계
	
제2호표(명부)	각 작업장별 정리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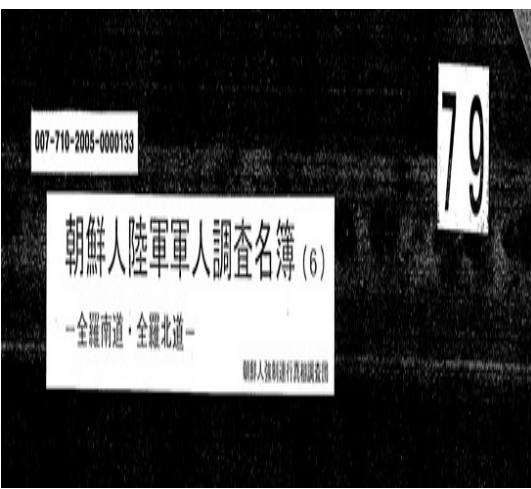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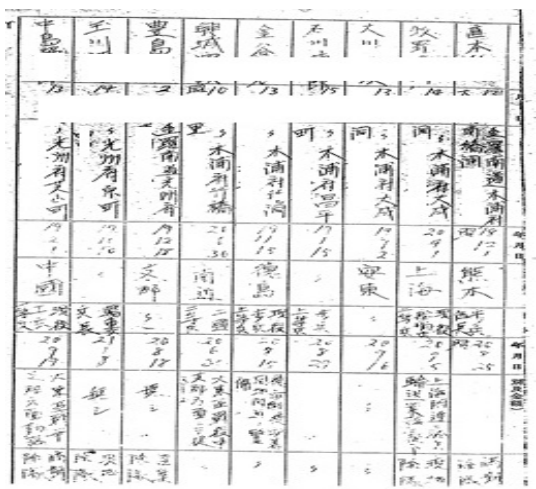
-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69,766건
-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377건
- ③ 항목 : [2호표]입소경로별, 성명, 연령(생년월일), 본적, 직종, 입소연월일, 퇴소연월일, 미불금-종별·금액, 퇴소시의 대우, 후생연금보험 급부제·미제, 적요
- ④ 개요 : 1946년 GHQ의 지시에 의해, 일본 후생성이 각 현에 전시체제기에 조선인 노무자를 사용한 각 작업장별로 관련 내용을 조사·보고할 것을 지시한 결과로 만들어진 자료이다. 이로 인해 각 현별로 답신 공문과, 해당 현의 각 작업장의 연도별 조선인 인원수를 기록한 제1호표와, 각 작업장별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국가기록원이 제공한 자료에는 제1호표가 확인되지 않는다). 각 작업장별 기록은 연도별로 관할선과 징용으로 동원된 조선인 인원수를 기재한 통계표와 각 개인별 기록이 항목으로 기재된 제2호표, 그리고 해당 작업장의 전반적인 동원 상황이 기재된 '정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패전 이후, 각 작업장에 소장 중인 원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2차 자료이나, 1차 자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⑤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 미야기현(宮城縣) 센다이시(仙臺市) 동경 제1육군조병창 센다이제조소 건설공장
- 미야기현(宮城縣) 가토구미(加藤組)
- 아키타현(秋田縣) 고사카(小坂)광산
- 도치기현(栃木縣) 데이고쿠(帝國)광업개발주식회사 釜之擇鑛業所
- 도치기현(栃木縣) 니폰(日本)광업주식회사 기토노사와(木戸ヶ澤)광산
- 나가노현(長野縣) 오무라구미(大村組) 마쓰모토(松本)출장소
- 나가노현(長野縣) 豊里탄광
- 나가노(長野縣)현 金成광업주식회사 금성탄광
- 나가노현(長野縣) 시마자키구미(島崎組)
- 나가노현(長野縣) 사가미구미(相模組) 등

(7) 조선인육군군인조사

■ 조선인육군군인조사

	
표지	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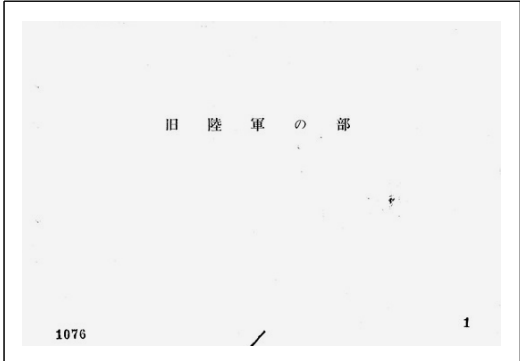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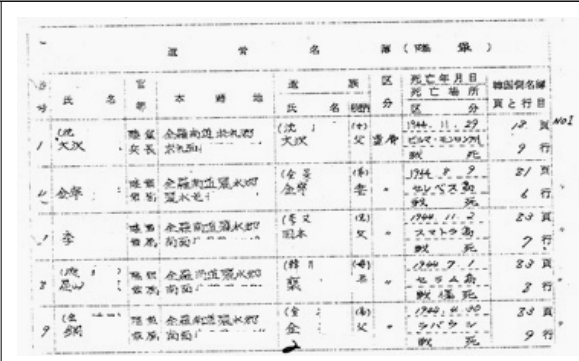
-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제공 자료로는 확인 불가]
-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154건
- ③ 항목 : [제공 자료로는 확인 불가]
- ④ 개요 : 표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패전 이후 일본 지역에서 1972년 설립된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자료이다. 진상조사단은,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 중 일본에 의한 강제동원 사실을 문헌·현지조사, 증언수집 등과 같은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남북한과 일본간 우호와 화해를 목적으로 오키나와에서 결성되었고, 이후 일본 25개 지역에 지역조사단을 두고 활동하는 일본의 시민단체이다. 재일교포를 중심으로 양심적

인 일본인 다수가 참여하고 있다. 해당 자료는 일본 정부의 자료를 원자료로 하여 작성된 2차 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이들이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2차 자료라는 점에서, 다른 자료와 중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⑤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 확인 곤란(일본 및 점유·침략 전 지역 추정)

(8) 유골명부(구육군부, 구해군부, 일반부)

■ 유골명부

	
중간 표지	명부

-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제공 자료로는 확인 불가]
-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154건
- ③ 항목 : 씨명, 관등, 본적지, 유족-씨명·관계, 구분, 사망연월일, 사망장소, 구분, 한국? 명부 쪽과 줄
- ④ 개요 : 육군과 해군, 그리고 일반(노무자)으로 구분한 이후, 출신지역별로 기록을 편철하고 있다.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구성과 형태 상으로 볼 때 피징용사망자연명부에 수록된 인원 중 유골이나 유품이 있는 경우를 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징용사망자연명부와 유사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기존의 자료에서 사망자와 유골·유품이 존재하는 인원만을 추려서 작성한 2차 또는 3차 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또 이 때문에 다른 자료의 내용과 중복된다.
- ⑤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 확인 곤란(일본 및 점유·침략 전 지역 추정)

(9) 구해군군인이력원표

-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21,420건
-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304건
- ③ 항목 : 입적번호, 병종, 소관, 입대시 학력·직종, 복역연기, 본적지, 특기 등
- ④ 개요 : 해군 군인으로 동원된 조선인의 개인별 기록 자료이다. 국가기록원은 「구해군

군속신상조사표」와 함하여 “해군군속자명부”라는 자료철명으로 관리하고 있다. 해군 군인으로 동원된 인원의 동원부터 패전 이후 해제까지 주요 사항에 대해 ‘연월일, 소속, 기사’ 항목에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동원 시기, 동원 기간, 투입 지역, 사망 지역 등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로는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시체제기에 일본 해군이 작성한 1차 자료의 성격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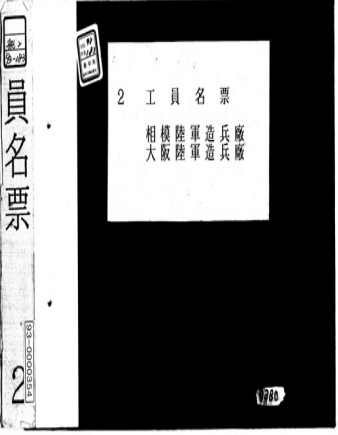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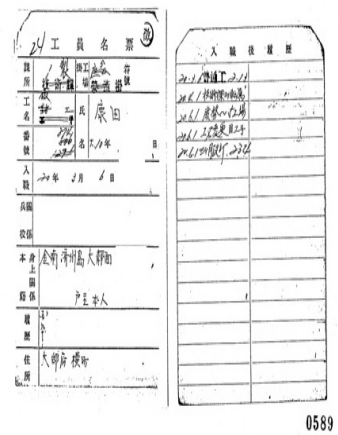
⑤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 확인 곤란(일본 및 점유·침략 전 지역 추정)

(10)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

-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79,358건
-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1,453건
- ③ 항목 : [제4절 참조]
- ④ 개요 : [제4절 참조]
- ⑤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 [제4절 참조]

2) 기타 ‘명부자료’

(1) 공원명표

■ 구해군군인이력원표	■ 공원명표상모육군조병창대판육군조병창	
		
명부	① 표지	② ‘사가미명표’

-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573건
-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1건
- ③ 항목 : 표 참조

④ 개요 : 「공원명표」는 사가미(相模)육군조병창과 오사카(大阪)육군조병창으로 동원된 조선인 군속에 대하여 작성한 개인별 신상카드로써, 일본어 가나 발음하는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1993년 10월 외무부가 일본정부로부터 인도받은 명부로써 「工員名簿(공원명부)」(3권, 363명), 「陸軍運輸部軍屬名簿(육군운수부군속명부)」(8권, 1,166명)와 함께 국가기록원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공원명표 등』이 명명한 자료이다. 육군조병창은 일본 육군에서 사용되는 각종 병기를 생산하는 기관으로 1869년 오사카에 설치된 ‘銃砲火藥製造局’과 ‘造兵司’를 기원으로 한다. 이후 확장을 거듭하다가 1923년 4월 통합·개편되어 육군조병창이란 명칭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명부에 나타나는 ‘사가미육군조병창’과 같은 명칭은, 1940년 육군조병창과 육군병기창이 육군병기행정본부로 통합되면서, 관리조직이었던 육군조병창 밑에서 생산을 담당하던 각 ‘工廠’들이 조병창으로 불리게 되면서 부터이다.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육군에는 도쿄 제1·2, 오사카, 나고야(名古屋), 고쿠라(小倉), 사가미, 인천, 남만주 조병창 등이 존재하였다. 일반적으로 조병창 밑에 여러 병기제조소가 있고, 그 밑에 다수의 분공창이 존재하는 구조로, 조병창을 중심으로 거대한 군수공업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38년 8월에 병기제조소로 개설된 사가미조병창은 가나가와현(神奈川縣) 고자군(高佐郡)에 위치하였다. 최초 개설 당시에는 거대한 부지를 비롯하여 지하 공장 시설 등 동양 제1의 규모를 지니고 있었다.¹⁷⁾ 그림의 ②명표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상의 한계로 사가미조병창에 투입된 조선인 공원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림의 ②명표가 확인되는 인원이 총 522명이지만, 이는 사가미조병창의 명표에 기재된 인원수이지 사가미조병창으로 투입된 조선인의 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중 제주인의 명표는 한 개만 확인된다. 그 내용을 보면, 대정면 동일리 출신으로 1945년 3월 6일 투입되었다. 투입 당시에는 普通工으로써 일급 2.13엔을 책정받았다. 이후 일급은 6월 1일 2.34엔으로 증가하였다.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그의 소속은 제1제조소 제5공장, 직종은 鍛工이다.¹⁸⁾

⑤ 제주인 투입 지역 및 작업장 : 가나가와현(神奈川縣) 고자군(高座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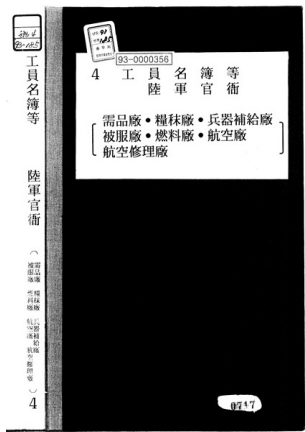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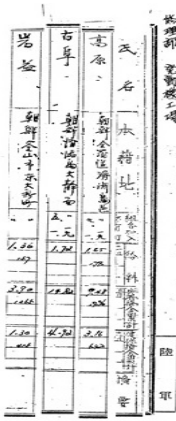
17) 육군조병창 및 「공원명표」의 분석을 통한 조선인 공원 동원에 대해서는 필자의 선행 연구(『「工員名票」를 통해 본 戰時體制期 舊日本陸軍造兵廠의 조선인 군속동원』, 『민족운동사연구』 66, 2011)를 참조 바람.

18)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자료에서는 낮은 해상도로 인해 항목의 제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여기서 확인한 항목제목과 내용은 필자의 선행연구(『「工員名票」를 통해 본 戰時體制期 舊日本陸軍造兵廠의 조선인 군속동원』) 작성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표 II-3] ‘사가미명표’의 항목 및 내용

항목	내용	비고
課所	소속 課	앞면
掛工場	소속 課의 산하 공장	
工名	직종	
番號	입직 번호	
氏名	창씨명 (생년월일 함께 기재)	
入職	‘工員’으로 투입된 날짜	
兵役關係	군속 투입 이전의 병역 내용 기재	
本籍・身上關係	본적지 및 친족 관계	
履歷	군속 투입 이전의 학력・경력 사항	
住所	현재 주소	뒷면
入職後履歷	소속・신분의 변화 및 日給 변동 사항	

(2) 공원명부

공원명부등육군관아(수품양말병기보급창등)	
	
표지	명부

- ① 전체 수록 건(명)수 : 363건
- ② 색인목록(제주인) 건(명)수 : 3건
(2건)
- ③ 항목 : 성명, 본적지, 급료, ‘共濟掛金累計’, 健保掛金累計, 적요¹⁹⁾
- ④ 개요 : 「공원명표」와 함께 『공원명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다. 여기에는 오사카, 나고야(名古屋), 고쿠라(小倉)육군병조창과 다카기(鷹來)제조소 및 기타 여러 육군 관아에 동

원된 조선인 명부들이 부서 별로 편철되어 있다. 또한 내용 중에는 군속 공원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군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표지에서 확인되는 ‘官衙’라는 표현은, 일반 부대가 아닌 ‘항공창’과 같은 보급 관계의 부서에 대해 일본군이 사용하던 용어이다. 이외에도 工作廳, 陸上廠廳이란

19)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자료에서는 낮은 해상도로 인해 항목의 제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여기서 확인한 항목제목은 필자의 선행연구(『『工員名票』를 통해 본 戰時體制期 舊日本陸軍造兵廠의 조선인 군속동원』, 『민족운동사연구』 66, 2011) 작성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다.

용어를 사용하였다. 육군항공창은 육군 항공병기·연료 등의 조달·보급 등을 행한 기관으로 1935년 8월에 창설되었다. 本廠과 다수의 支廠으로 구성되었다. 이 명부에 기재된 제주인들이 투입된 부서가 본창 혹은 지창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航空廠’ 부분의 명부에는 총 42건이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인원수는 40명이다. 그 중 2명이 제주인이다.²⁰⁾ 2명이 기재된 그림과 같은 ‘수리부 발동기(엔진) 공장’이나, 어느 항공창의 공장인지 확인되지 않아 지역을 특정할 수 없다.

⑤ 제주인 투입 지역·작업장 : 확인 불능

4. 제주인 해군 군속의 동원 실태²¹⁾

국가기록원이 제공한 자료 중 강제 동원된 제주인의 동원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1,453명에 해당하는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舊海軍軍屬身上調査表)」(이하 ‘군속조사표’)이다. 다른 ‘명부자료’들에 비해, 판독이 가능하여 분석을 행할 수 있었다.

먼저 ‘군속조사표’는 문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 해군의 군속으로 동원된 조선인에 대한 기록을 개인별로 작성한 것이다. 그 형태는 [그림 II-1]과 같다.

1993년에 「구해군군인이력원표」와 함께 한국 정부에 제공된 「구해군군속신상조사표」는 제주인을 포함하여 약 7만 9천 건(중복부분 포함)에 이른다.

작성 주체는 패전 이후의 일본 정부이지만, 작성 시기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일본 정부가 발간한 자료에 ‘1957년경 이후 전개된 관계국과의 외교 교섭에서 필요한 조선과 대만 출신 군인·군속의 복원(復員)·사망 등에 관한 신상 및 미지급 급여 등에 대한 처리 상황을 개인별 자료로 작성할 필요를 인지’하여 작성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1957년경으로 판단할 수 있다.²²⁾ 구레(呉)지방복원부를 중심으로 작성된 ‘군속조사표’는 그 작성 과정에서 패전 이후 일본 해군성(海軍省)의 업무를 승계한 제2복원국(復員局)과 그 산하의, 전쟁 당시 일본 해군의 주요 기관이었던 진수부(鎮守府)와 경비부(警備府)의 복원 관련 자료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군속조사표’의 기재사항 중의 하나인 ‘가정리번호’의 ○부분을 비롯하여 자료 내부 곳곳에, 제2복원국, 요코스카(横須賀), 사세보(佐

20)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엑셀 자료에는 3명으로 확인되나, 1명은 부정확하게 쓰여진 한자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결과이다. 국가기록원에서 엑셀 자료를 작성할 때, 한자가 정확히 판독되지 않을 시에는 유사한 이름을 함께 기록하고, 중복 여부를 표시하는데 제공된 엑셀에서는 중복 관련 내용이 삭제된 데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된다.

21) 필자는 명부자료의 중요성과 다른 동원 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군속 동원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2009년 ‘위원회’가 일본 정부로부터 인계받은 「舊일본 해군 조선인군속 관련 자료(2009)」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필자의 연구는 2017년부터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에 있다.(연구과제명 “태평양전쟁기 日本 海軍의 조선인 군속 동원-일본 정부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과제번호 NRF-2017S1A5B5A02023286). 이 절의 내용은 이러한 연구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22) 『援護五十年史』, 145~147쪽.

世保), 구례(吳), 마이즈루(舞鶴) 진수부 및 오미나토(大湊)·진해경비부의 약자를 의미하는 ‘二, 橫, 佐, 吳, 舞, 大, 鎮’ 등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림과 같은 형태를 지닌 ‘군속조시표’는 다음과 내용을 지닌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에 기재된 내용들을 정리·분석하면, 해당 인원의 인적 사항과 동원 및 피해에 관련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군속조사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주인 해군 군속의 동원 현황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분석은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1,453건 중 선원을 제외한 806명분의 기록을 가지고 진행하였다.²³⁾ 그 내용은 [표 II-4]와 같다.

[그림 II-1] 「舊海軍軍屬身上調査表」의 형태(左-귀환자, 右-사망자)

[illegible]

23) 선원을 제외한 이유는 이들의 강제동원은 승선한 선박이 일본 육군과 해군에 징용되고 동시에 강제 동원된 특성을 지님과 동시에, 갖은 이동과 소속 변경으로 인해 소재지(투입지역)와 배속된 부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표 Ⅱ-4] 「舊海軍軍屬身上調査表」의 기재 항목과 내용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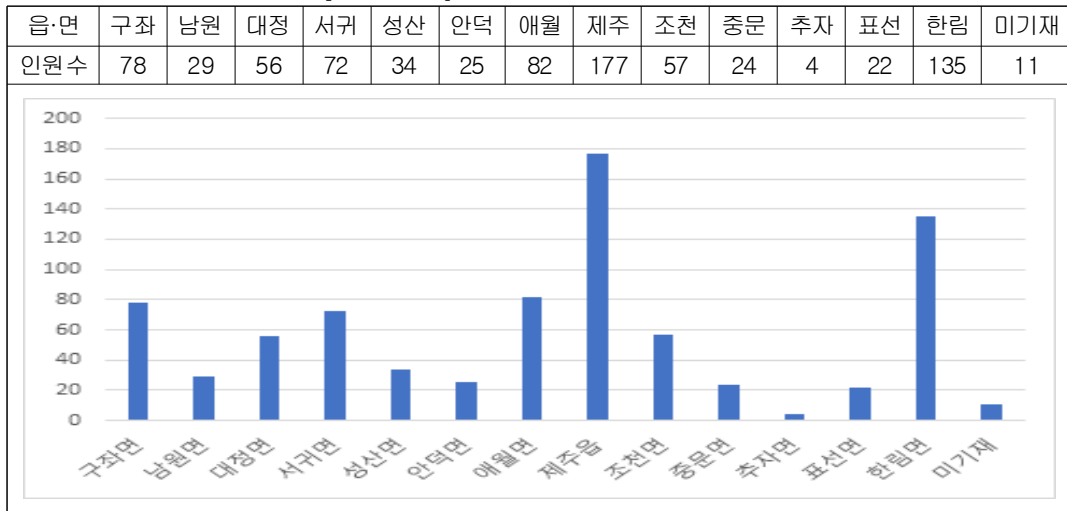
기재항목				내용 [비고]		구분	
(1)南北不				본적지를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을 구분. 확인 불능시에는 不 [표 밖, 문서 왼쪽 여백에 존재. 해당 내역 체크]		(가) 지역 구분 일련 번호	
(2)整理番號				해당 인원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부여한 번호로 추정 [복원 담당 기관의 약부호(二・横 등)을 표시하는 ○가 존재]		(나) 소속 관계	
(3)假整理番號				해당 인원의 자료를 정리하면서 임시로 부여한 번호로 추정 [(2)와 동일]			
(4)所轄				소속 기관			
(5)所在地				강제동원 이후 파견된 지역명		(다) 인적 사항	
(6)所管派遣元廳 또는 會社名				현 소속으로 동원·파견되기 전에 소속된 기관명 또는 회사명			
(7)身分/入籍番號				동원 신분/군속명부에 기재된 번호(일종의 ‘군번’) 추정			
(8)氏名				창씨명		(라) 복무 사항	
(9)生年月日				생년월일 기재 [일본 연호인 明・大・昭和에 의거하여 기재]			
(10)本籍地				본적지 주소 [朝鮮이 인쇄되어 있음]			
(11)住所				현주소		(바) 사망 내역	
(12)身上	①年月日			동원 일시, 소속 기관명 및 관련 내용, ‘解員’ 일시 및 장소 관련 내용			(라) 복무 사항
	②所轄			[총 7줄로 구성. 복무사항 변경 내용 기재. 첫째 줄에는 ‘採用・徵用’이 인쇄되어 관련 여부 체크. 마지막 줄에는 ‘解員(場所)’가 인쇄]			
	③記事						
	④死沒	㉠年月日		사망 연월일			(바) 사망 내역
		㉡死歿場所		사망 장소			
		㉢公表年月日		사망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시점			
		㉣死歿區分		사망 형태 [‘戰死, 戰傷死, 戰病死’ 등으로 기재]			
		㉤狀況		사망 당시의 상황과 원인			
		㉥遺骨 有無	㉦傳達	유골 존재	유골의 유족 전달 시기 [유골 존재 시 기재]		
			㉧還送	여부 체크	한국에 보낸 유골의 반송 시기 [㉦와 동일]		
㉨遺留品 有無		㉩交付	유류품 존재	유족에게 遺留品을 교부한 시기 [유류품 존재 시 기재]			
	㉪還送	여부 체크	한국에 보낸 유류품의 반송 시기 [㉩와 동일]				
(13)給與	⑤家族渡送金先			給與 관련 금액의 송금처 주소		(사) 급여 및 공탁 사항	
	⑥受取人			송금 급여 수취인의 이름과 동원자와의 관계			
	⑦基本給			일급, 월급 체크 및 금액 [임시 산정 여부 체크]			
	⑧供託	㉠俸		봉급			〔所管・金額 기재란 존재〕
		㉡引		유골인수비용(引取費)			
		㉢埋		매장비			
		㉣葬		장례비			
		㉤扶		유족 扶助料			
	⑨完結甲			급여지급의 자료(지불증빙서류 등)에 의해 본인 및 유족에게 급여지급이 완료된 것(공탁 완료된 것 포함)			
	⑩完結乙			급여지급의 자료(지불증빙서류 등)는 없지만, 소속 부대에서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생각되는 것			
	⑪未給			미불된 급여			
	⑫移牒カード(카드)			본인·유족에게 일부 지급되었거나 미급여금이 있는 경우, 일부 공탁이 완료되었지만 아직 미급여금이 있는 경우 및 (국민저금조합)저금보관자로 봉급은 저금으로 보관하고 있지만 사물급여금 지출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는 자의 카드			
	⑬家族渡			급여 및 보상금을 포함하여 유족에게 송금한 봉급			
	⑭不給			지급해야 할 급여금이 없는 경우			
	⑮保管			저금이 보관되어 있는 경우			
	(14)記事				‘군속조서표’를 작성한 이후 추가 기재 내용이 또는 관련 내용들을 기재		(아)추가
㉠一復照合濟				제1復員局의 자료 조회 완료		(자) 기타	
㉡靖國神社合祀手續濟 스탬프				야스쿠니(靖國)신사로의 합사수속 완료			
㉢靖國神社合祀濟 스탬프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 완료			
㉣船管委照合濟 스탬프				船舶管理委員會 조회 완료			

24) 필자의 선행연구(「구일본해군 조선인군속 동원 관련 자료(2009)」의 미시적 분석)에서 재인용.

1) 동원 지역(출신지)별, 동원·투입 시기별 현황

806명 중 본적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11명을 제외한, 제주인 해군 군속의 출신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II-5] 출신 지역별 동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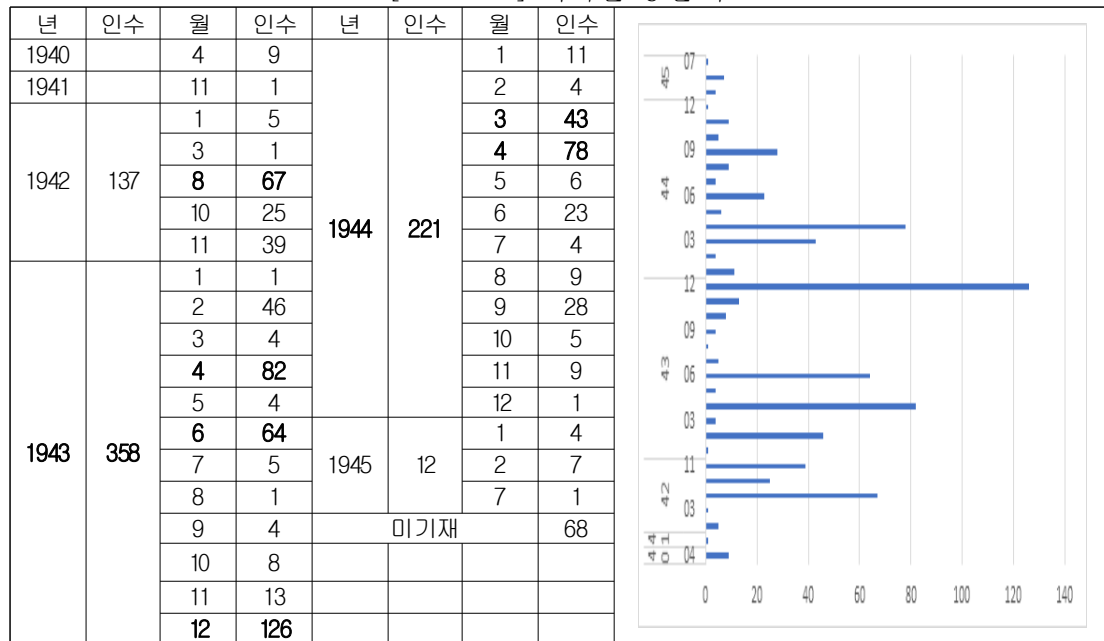


제주읍에서 가장 많은 177명(22%)이 동원·투입되었고, 한림면(135명, 17%), 애월면(82명, 11%), 구좌면(78명, 10%), 서귀면(72명, 9%) 등에서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원 시기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은데, 진주만 기습(1941.12.7.)으로 미국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이전인 1940년 4월과 1941년 11월에도 동원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미국과의 전쟁을 대비하여, 주로 ‘남양군도’와 같은 전략 요충지에 군사시설 구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후 1942년에는 137명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으로 증가하며, 8월에 가장 많은 67명이 동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43년에는 가장 많은 358명이 동원되는데, 전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해 12월에 나타나는 126명의 동원 수는 월별 동원 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1944년에는 40% 정도가 감소한 221명이 동원되었고, 1945년에는 12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전체 조선인 해군 군속 동원 시기별 분포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물론 진주만 기습 이전부터 동원이 진행되고, 1942년부터 본격적인 동원이 진행되는 것은 제주인의 동원 양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전체의 경우 1943년에는 약 40% 정도 감소하였다가, 1944년에 전년 대비 43%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된다. 또한 1945년에도 1944년에 비해 약 25%의 감소세를 보이지만, 1942년과 1943년보다 많은 인원이 동원된다.²⁵⁾

[표 II-6] 시기별 동원 수



제주인을 포함한 조선인 군속 동원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지역집단동원’이다. 즉 특정한 일시에 주로 郡을 단위로 하는 특정 지역에서 다수의 인원을 동원하여, 이들을 한 부대·부서에 투입하는 형태이다. 제주인 해군 군속 동원에도 이러한 양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와카야마현(和歌山縣)의 와카야마 지역으로 투입된 오사카 해군시설부 와카야마 지방시설부 소속의 제주인 19명 중 17명이 동일한 날짜(1944.6.19.)에 동원된 사례와 히로시마현(廣島縣) 구레(呉)지역의 구레해군공창에 94명이 투입되고, 이들 중 42명이 1944년 4월 25일에 26명이 같은 해 3월 2일이라는 동일한 날짜에 투입되는 양상을 보여 준다. 한편 이러한 ‘지역집단동원’의 양상을 통해 볼 때, 1명 내지는 소수의 인원만이 기재된 명부자료들의 경우 다수의 인원이 동원되었음에도 관련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이 동원되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케 한다.

2) 투입 지역 현황

제주인 해군 군속들이 투입된 지역을 일본 지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대상 806명 중 일본 지역으로 투입된 인원은 404명, 그 외의 지역으로 투입된 인원은 402명으로 유사한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그 지역 규모로 놓고 봤을 때는 일본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일본 지역에 집중되는 것은 전체 해군 군속 동원 양

25) 전체 조선인 해군 군속 동원 현황에 대해서는 필자의 선행 연구(「전시체제기 조선인 해군 군속의 일본 지역 동원 현황 - 구일본해군 조선인군속 관련 자료(2009)의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 연구』 81, 2014.12)를 참조 바람.

상에서도 확인된다. 전체의 경우도 일본 지역에 가장 많은 63.4%가 투입되었으며, 한반도 지역 10.1%, 태평양 지역 30%, 동남아시아 지역 3.2%가 투입되었다. 일본 지역과 그 외 지역으로의 투입 비율이 전체에 비해 약하지만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할 것이다.

서부 태평양 지역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위임통치하는 구독일령 ‘남양군도(南洋群島)’를 중심으로 진주만 기습 이후 침략·점령한 인근의 비스마르크 제도, 얍, 길버트 제도 및 뉴기니아 지역으로 투입되는 것이 확인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마살 제도의 웻체(Wetje)로 투입된 59명의 경우이다. 도라쿠(トラック, 현 Chuuk)에 투입된 60명 다음으로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데, 그 중요성에 비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과 같이 웻체는 마살 제도의 동쪽 끝부분에 위치하는 작은 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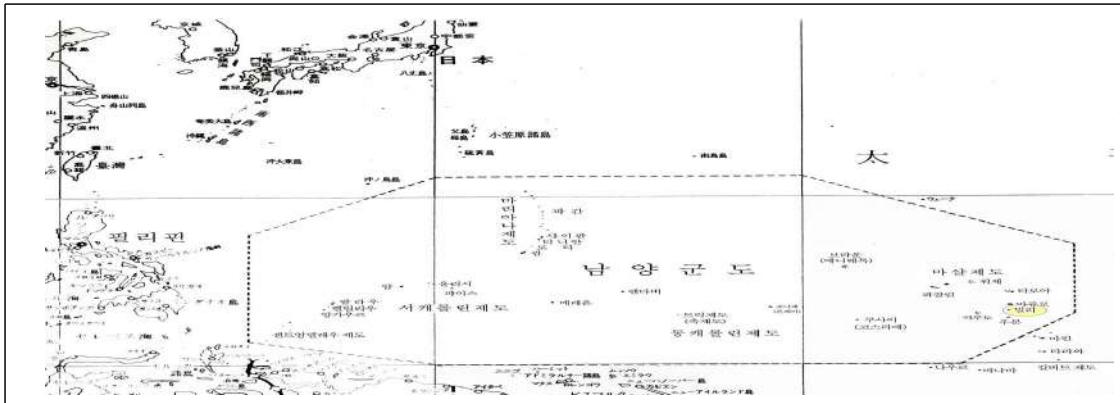
[표 II-7] 일본 지역 이외의 제주인 해군 군속 투입 지역 현황

대지역	인수	중지역	인수	소지역 (투입지)	인수	대지역	인수	중지역	인수	소지역 (투입지)	인수
동남 아시아	78	인도네시아	12	발릭파판	1	서부 태평양	202	길버트 제도	30	타라와	30
				비아크	1			뉴기니아	1	뉴기니아	1
				셀레베스	2			마리아나 제도	24	괌	3
				앙본	2				59	사이판	15
				자바	2				12	티니안	4
				카우	3				3	로타	2
				할마헤라	1			마살 제도	59	웻체	59
		인도차이나	9	사이공	1			비스마르크 제도	12	라바울	12
				싱가폴	6			얍	3	얍	3
				홍콩	2			캐롤라인 제도	60	도라쿠	60
		필리핀	53	해남도	4			팔라우제도	11	펠렐리우	11
				네그로스	5			불명			2
				다바오	22	중국	1			상하이	1
				마닐라	2	한반도	88			진해	88
				미기재	24						
미기재	33										

[표 II-8] 일본 지역의 제주인 해군 군속 투입 현황

투입지역 현	인수	투입 지역	인수	투입지역 현	인수	투입 지역	인수
홋카이도(北海道)	1	홋카이도 지구	1	야마구치현(山口縣)	11	히카리(光)	9
아오모리현(靑森縣)	5	오미나토(大湊)	5			도쿠야마(徳山)	2
도쿄도(東京都)	12	도쿄	5	도쿠시마현(徳島縣)	62	도쿠시마	62
		지치지마(父島)	1	에히메현(愛媛縣)	5	마쓰야마(松山)	5
		하치조지마(八丈島)	2	고치현(高知縣)	1	스쿠모(宿毛)	1
		이오지마(硫黄島)	4	후쿠오카현(福岡縣)	9	후쿠오카	1
가나가와현(神奈川縣)	22	요코스카(横須賀)	22			사이키(築城)	8
효고현(兵庫縣)	1	고베(神戸)	1	나가사키현(長崎縣)	12	오무라(大村)	3
아이치현(愛知縣)	1	도요가와(豊川)	1			사세보(佐世保)	8
와카야마현(和歌山縣)	19	와카야마	19			가와타나(川棚)	1
오카야마현(岡山縣)		구라시키(倉敷)	2	오이타현(大分縣)	14	오이타(大分)	12
교토부(京都府)	41	마이즈루(舞鶴)	41			우사(宇佐)	2
히로시마현(広島縣)	152	히로(廣)	12	미야자키현(宮崎縣)	6	미야자키(宮崎)	6
		요시우라(吉浦)	9	가고시마현(鹿児島縣)	24	쿠시라(串良)	11
		오다케(太竹)	1			가노야(鹿屋)	11
		야노우라(矢ノ浦)	10			다네가시마(種子ヶ島)	1
		구레(呉)	118			이부스키(指宿)	1
		기리쿠시(切串)	2	불명		觀音寺	4

[그림 II-2] ‘南洋群島’지도²⁶⁾



이 윗체에 투입된 전체 조선인 해군 군속의 규모는 총 225명으로 59명의 제주인이 약 27%를 차지한다. 반면에 서부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많은 조선인 해군 군속이 투입된 도라쿠의 경우 총 5,827명이 투입되어, 여기서 제주인 60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를 겨우 상회하는 수준이다. 윗체에 다수의 제주인들이 집중되는 양상은 서부 태평양 지역으로의 제주인 투입의 특징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일본 지역으로 투입된 제주인들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진수부와 같은 주요한 해군 기관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다수의 인원이 투입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많은 152명의 인원이 투입되는 히로시마의 경우, 주로 구레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히로, 요시우라, 야노우라 등의 도시들은 구레 인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구레 지역으로 투입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세 번째로 많은 41명이 교토부 마이즈루에, 네 번째로 많은 22명이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에 투입되었다.

이들 지역은, 도쿠시마를 제외하고, 일본 해군의 주요 기관이었던 진수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진수부는 군사 행정의 실시 기관이자 동시에 작전을 담당하는 작전 부대였다.²⁷⁾ 해상·육상에 완비된 군사시설을 보유하고 정해진 海軍區內的 방어와 경비를 담당하며, 동시에 작전부대의 중요한 후방 ‘策源地’로써 ‘出師準備’에 관한 것을 관장하였다. 각 軍港에 설치된 진수부는 1876년 도카이(東海)진수부(1884 요코스카(横須賀)진수부로 개칭)를 시작으로 쿠레(吳)·사세보(佐世保)·마이즈루(舞鶴)진수부 등이 설립되었다. 한편 각 要港에 설치된 경비부는 진수부의 조직과 임무를 소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896년 다케시키(竹敷)要港部를 시작으로 오미나토(大湊)·鎮海·馬公·旅順·[오사카(大阪)·高雄]경비부 등이 설립되었고, 1941년 경비부로 개칭되었다. 이들 진수부·경비부는 소재지명을 기관명으로 사용하여 요코스카진수부 및 오미나토경비부 등으로 불렸다.

26)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의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편, 『남양군도 밀리환초(Mili Atoll)에서 학살된 강제동원 조선인에 대한 진상조사』(작성자 조건), 2011.6, 6쪽에서 재인용.

27)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部, 『(戰史叢書)海軍軍戰備(1)昭和十六年十一月まで』, (株)朝雲新聞社, 1969.11, 518쪽; 『(戰史叢書)陸海軍年表-付兵器 兵語の解説』, 1980.1, 518쪽.

[그림 II-9] 鎮守府 및 警備府의 編制

鎮守府司令長官	鎮守府司令長官	警備府司令長官
幕僚	幕僚	幕僚
文庫主管	海軍人事部	海軍港務部
海軍人事部	海軍經理部	海軍人事部
海軍經理部	海軍軍需部	海軍軍需部
海軍軍需部	海軍司法府	海軍工作部
海軍司法府	海軍艦船部	海軍經理部
海軍艦船部	海軍港務部	海軍病院
海軍港務部	海軍施設部 ¹	海兵團
海軍建築部	海軍運輸部	艦船
海軍病院	海軍病院	航空隊
鎮守府軍法會議	軍法會議(鎮守府)	聯合航空隊(阪) ²
海軍刑務所	海軍刑務所	航空戰隊(高) ³
海軍工廠	海軍工廠	聯合特別陸戰隊(大·鎮) ⁴
燃料廠(橫·吳)	燃料廠(橫·吳)	特功戰隊(阪)
海兵團	海兵團	根據地隊(大) ⁵
警備戰隊	警備隊	特別根據地隊(高·鎮) ⁶
警備隊	防備隊	陸上輸送隊(大·阪)
防備戰隊	潛水艦基地隊	施設部(高)
防備隊	通信隊	地方海軍部(大)
聯合航空隊	特別根據地隊	防備隊(鎮)
航空隊	特功戰隊	港灣警備隊(鎮)
通信隊	特別陸戰隊	衣糧廠(阪)
艦船	第1特別基地隊	療品廠(阪)
海軍砲術學校(橫)	陸上輸送隊	燃料廠(高)
海軍水雷學校(橫)	航空隊	
海軍工機學校(橫)	衛生部	
海軍通信學校(橫)	報道部	
海軍航海學校(橫)	地方海軍部	
海軍潛水學校(吳)	聯合航空隊(吳·佐·舞)	
	練習戰隊(吳)	
	潛水戰隊(吳)	
1941년 11월	1945년 8월 15일	1941년 11월 ~ 1945년 11월
鎮守府	鎮守府	警備府

※ 본 표는 『日本海軍編制事典』의 48~58쪽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음.

1) 海軍建築部가 1943.8.15. 개칭, 2) 오사카경비부에는 항공대가 아닌 제24연합항공대(1945.3.1. 창설)가 존재, 3) 高雄경비부에는 제29항공전대 및 항공대가 존재, 4) 오미나토(1945.7.10)와 진해(1945.7.20)에 개설, 5) 지시마(千島)根據地隊(1942.11.25) 개설, 6) 高雄(1945.5.1), 진해(1942.1.15)에만 존재

이들이 투입된 요코스카해군시설부·해군공창, 구레해군시설부·해군공창, 마이즈루해군시설부들은 바로 이러한 진수부 편제 내에 존재하는 부서들이다. 제주인 해군 군속들이 투입되는 대부분의 부대·부서들 역시 바로 이러한 진수부 편제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것들이다.

이들 지역에 다수의 인원이 투입되는 것은 전체 조선인 해군 군속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가장 많은 인원(8,913명)이 요코스카에, 두 번째로 구레(5,112명), 세 번째로 마이즈루(4,782명) 등이 투입되었다.

이들이 투입된 부서들은 주로 해군시설부와 해군공창으로 확인된다. 해군시설부의 경우 ‘해당 지역의 축성 시설 및 일반 시설에 관한 토목·건축’을 업무로 하였고, 여기에 투입된 제주인들 역시 신분이 대부분 공원이나 토공원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주로 군사시설 구축과 건설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해군공창으로 투입된 인원들의 경우 역시, 공원과 토공원이 주를 이루는 그들의 신분으로 볼 때, 병기 등의 제작이 아닌 해당 공창 내의 건설 공사에 투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 지역에 투입된 제주인들의 경우에서, 현주소가 일본 지역, 특히 오사카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인원들이 다수 확인되는데, 이들의 경우 일본으로 도입한 이후에 강제동원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제4연료창의 경우 1명의 제주인 투입이 확인되는데, 제4연료창에 투입된 조선인들의 기록에는 본적지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인원이 다수를 차지한다. 따라서 ‘지역집단동원’의 측면에서 볼 때, 1명 보다는 많은 수의 제주인들이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조사

[표 II-10] 일본 지역의 제주인 해군 군속 투입 세부 현황

투입 지역	인원수	동원지(본적)	투입 부대	동원 시기	신분	해원 시기	비고	
홋카이도 (北海道)	홋카이도 지구	1명	한림면	오미나토해군시설부	미기재	토공원	1945. 8.15.	
아오모리현 (靑森縣)	오미나토 (大湊)	5명		오미나토해군시설부(전원)	1942. 1.15. ~12. 7.	공원(2) 토공원(3)	1945. 8.15.(3)	사망자 2명의 실제 투입 지역은 기타 지시마(北千島)로 추정되며, 모두 선 박침몰로 사망
도쿄도 (東京都)	도쿄	5명		시바우라(芝浦)해군시설보급부	1944. 8.20. ~9.30.	공원(전원)	1945. 8.20.(2) 1945. 8.26.(3)	3명은 종전 이후 규슈 와카마쓰(若松) 까지 이동하여 한반도로 귀환
	지치지마 (父島)	1명	한림면	지치지마특별근거지대	1944. 8.21.	운반공원		
	하치조지마 (八丈島)	2명		제208특설해군설영대	1940. 4.29. ~45. 2. 3.	토공원	1945. 9. 1.	
	이오지마 (硫黃島)	4명	한림면(2) 애월면(2)	제204특설해군설영대(2) 요코스카(橫須賀)해군시설부(2)	1942.10.15. ~44. 1.10.	공원 토공원	1946. 1. 5.(2)	요코스카해군시설부 2명 현지 전사
가나가와현 (神奈川縣)	요코스카 (横須賀)	22명		요코스카해군시설부(20) 요코스카해군공창(2)	1940. 4.29. ~45. 2.13.	공원 토공원(21)	1945. 8.31.(전원)	9명의 경우 일급 또는 월급 액수가 확인됨.
효고현 (兵庫縣)	고베 (神戸)	1명	미기재	오사카해군시설부 고베지방시설사무소	1944.10. 5.	공원	1945. 8.24.	
아이치현	도요가와 (豊川)	1명	성산면	도요가와해군공창	1944. 9. 10.	공원	1945. 8.31.	
와카야마현 (和歌山縣)	와카야마	19명		오사카해군시설부 와카야마지방시설사무소	1943.12. 7. ~44. 9.20. 1944. 6.19.(17)	공원(11) 末勞공원	1945. 8.24.(4) 1944. 8.31.(15)	
오카야마현 (岡山縣)	구라시키 (倉敷)	2명		구레해군시설부	1942.10.15. ~43. 6. 7.	공원	1945. 8.24.	
교토부 (京都府)	마이즈루 (舞鶴)	41명	제주읍(7) 애월면(7) 한림면(7)	마이즈루해군시설부	1942. 3.15. ~45. 2.10. 1944. 5.23.(5) 1944. 9.26.(5)	토공원(33) 목공원(2) 잡공원(3) 철공원(2)	1945. 8.31.(38)	
히로시마현 (広島縣)	히로 (廣)	12명		구레해군시설부(6) 제11해군항공창(6)	1943.12. 7.(5) 1944.11.11.(6)	공원(전원)	1945. 8.24.(6) 1945. 9.15.(6)	구레해군시설부 6명의 주소가 전원 오사카
	요시우라 (吉浦)	9명		구레해군시설부 제102부대(전원)	1942.10.15. ~44. 9.20.	공원(전원)	1945. 8.24.(전원)	7명의 현주소 오사카, 효고현 1명
	오다케 (大竹)	1명	남원면	구레해군시설부 제313부대	1943.12. 4.	토공원	1945. 8.24.	
	야노우라 (矢ノ浦)	10명		구레해군시설부 제105부대	1943. 2.14.(전원)	공원(5) 토공원(5)	1945. 8.24.(전원)	9명의 주소가 오사카, 이외 고베 1명
	구레 (呉)	118명	제주읍(36) 한림면(18) 구좌면(13) 애월면(12)	구레해군공창(94) 구레해군시설부 구레해군군수부	1943. 2.14. ~45. 2.11. 1944. 3. 2.(26) 1944. 4.25.(42)	공원(108) 토공원(10)	1945. 8.24.(23) 1945. 8.28.(91)	

Ⅱ.명부자료를 통해 본 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서귀면(11)					
	기리쿠시 (切串)	2명		구레해군시설부	1943.12. 7.	공원	1945. 8.24.	전원의 주소가 오사카
야마구치현 (山口縣)	히카리 (光)	9명		구레(吳)해군시설부(8) 구레해군시설부 제303부대(1)	1943. 2.14.(5) 1943.12. 7.(3)	공원(전원)	1945. 8.24.(전원)	8명의 현주소 오사카
	도쿠야마 (徳山)	2명		구레해군시설부 제303부대 오사카해군시설부	1943.12. 7. ~44.10. 1.	공원 토공원	1945. 8.22. 1945. 8.24.	
도쿠시마현 (徳島縣)	도쿠시마	62명	제주읍(15)	오사카(大阪)해군시설부(전원)	1943.12. 7.(전원)	토공원(전원)	1945. 8.22.(23) 1945. 8.24.(39)	구레해군시설부의 관할 아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에히메현 (愛媛縣)	마쓰야마 (松山)	5명		구레해군시설부 제404부대	1943. 2.14. ~12. 7.	공원(4) 토공원(1)	1945. 8.24.(전원)	
고치현 (高知縣)	스쿠모 (宿毛)	1명	남원면	구레해군시설부 제423부대	미기재	공원	1945. 8.24.	
후쿠오카현 (福岡縣)	후쿠오카	1명	구좌면	제4해군연료창	1944. 6. 2.	광원	1945. 8.15.	<다수의 주소 미기재자 존재>
	스이키 (築城)	8명		구레해군시설부	1944. 4.26.(3) 미기재(5)	공원(전원)	1945. 8.24.(전원)	
나가사키현 (長崎縣)	오무라 (大村)	3명		사세보해군시설부 제21해군항공창(2)	1942.10.14. ~44. 4.10.	공원(2) 토공원	1945. 8.15.(전원)	
	사세보 (佐世保)	8명		사세보해군시설부(7) 사세보해군공창	1942.10.15. ~45. 1.13.	공원(3) 토공원(4)	1945. 8.15.(7) 1945.11.27.	
	가와타나 (川棚)	1명	성산면	사세보해군시설부	1942.10.15.	토공원	1945. 8.15.	
오이타현 (大分縣)	오이타 (大分)	12명	제주읍(6)	구레해군시설부(2) 구레해군시설부 제903부대(10)	1943. 2.14.(4) 1943.12. 7.(8)	공원(11) 토공원(1)	1945. 8.24.(전원)	전원 일본 주소, 오사카(9), 고베, 교토
	우사 (宇佐)	2명		구레해군시설부	1943.12. 7.	공원 토공원	1945. 8.24.	전원의 주소가 오사카
미야자키현 (宮崎縣)	미야자키 (宮崎)	6명	제주읍(3)	구레해군시설부 제931부대(전원)	1943. 2.14.(1) 미기재(5)	공원(2) 토공원(4)	1945. 8.24.(전원)	전원의 현주소가 오사카
가고시마현 (鹿兒島縣)	쿠시라 (串良)	11명	제주읍(전원)	사세보(佐世保)해군시설부 가노야(鹿屋)지부(전원)	1943. 6. 1.(전원)	공원(6) 토공원(5)	1945. 8.15.(전원)	일부 인원, 공탁금 존재
	가노야 (鹿屋)	11명	제주읍(9)	사세보해군시설부 가노야지부(전원)	1942. 1. 20. ~45. 1.20. 1943. 6. 1.(5)	공원(8) 토공원(3)	1945. 8.15.(9) 미기재(2)	2명 미군 공습으로 사망
	다네가시마 (種子ヶ島)	1명	제주읍	사세부해군시설부 가노야지부	1943. 6. 1.	토공원	1945. 8.15.	
	이부스키 (指宿)	1명	제주읍	사세보해군시설부 가노야지부	1942. 1.15.	토공원	1945. 8.15.	
불명	觀音寺	4명		구레(吳)해군시설부 제402부대(전원)	1942. 1.18 ~1943.12. 7.	공원(2) 토공원(2)	1945. 8.24.(전원)	

3) 소속 부대·부서의 업무와 성격

제주인 806명이 투입된 부대·부서는 약 84개에 이르며 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II-11] 개별 부대·부서명

부대·부서명	개별 부대·부서명
특설해군건설부	104, 25, 30, 5, 8
해군경비대	84
해군공작부	10
해군공창	光, 舞鶴, 吳, 佐世保, 豊川, 横須賀
해군군수부	吳 / [특설]102, 103, 4, 8
근거지대	14
특별근거지대	父島
기상대	4
방비대	防備隊
특설해군설영대	101, 111, 19, 202, 204, 205, 208, 212, 213, 214, 215, 217, 219, 223, 224, 225, 232, 233, 234, 235
해군시설부	大湊, 大阪, 舞鶴, 吳, 佐世保, 海南, 横須賀 / [특설]101, 102, 103, 4 [지부]가노야(鹿屋)지부(사세보시설부) / [지방시설사무소]印支(101시설부), 고베(대판시설부), 와카야마(대판시설부)
해군연료창	4
해군운수부	う, 도라, 마닐라, 上海, 香港
해군통신대	鎮海
해군항공창	11, 21, 51
시바우라(芝浦)해군시설보급부	

주로 토목·건축 등을 담당하는 시설계 부대·부서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개별 부대·부서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²⁸⁾

28) 각 부대·부서의 성격은 필자의 선행연구(『전시체제기 시바우라해군시설보급부의 조선인 군속 동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7, 2018.12)의 내용을 수정하여 게재하였다.

■ 해군시설부

해군시설부는 1920년 설치된 海軍建築部가 1943년 8월 개편된 것이다. 약간의 내용 개정이 존재하지만, 진수부·경비부에 설치되어 해당 ‘축성 시설 및 일반 시설에 관한 토목 건축’을 담당하는 고유 업무에는 변화가 없다. 미일 관계의 악화라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비하여, 1940년 10월 작전 지역에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특설해군시설부를 설치하였다. 이들 부서들의 관련 법령을 보면 그 성격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²⁹⁾

「海軍建築部令」(1920.9.30., 勅令 제441호)

제1조 각 軍港에 해군건축부를 설치함.

해군건축부는 그 소재지명을 冠稱함.

제2조 해군건축부는 소재 鎮守府에 속한 건축 및 토목공사의 실시에 관한 것과 官有財産에 관한 것을 관장함.

(이하 생략)

「海軍施設部令」(1943.8.17., 勅令 제673호)

해군건축부령 개정의 건을 다음과 같이 공포함.

제1조 각 軍港 및 要港(德山 및 馬公 要港 제외)에 海軍施設部를 설치함.

海軍施設部는 그 소재지명을 冠稱함.

제2조 해군시설부는 해당 진수부 또는 경비부에 속하여 해군대신이 정한 바에 따라 築城 시설 및 일반 시설에 관한 토목건축의 실시 및 실험과 국유재산에 관한 것을 담당함.

(이하 생략)

「特設海軍施設部令」(1940.10.1., 內令 제640호)

제1조 특설해군시설부는 전시 혹은 사변의 시 또는 필요에 따라 작전지 등에 이를 설치함.

특설해군시설부의 소관, 소속, 명칭 및 소재지는 별도로 이를 정함.

제2조 특설해군시설부는 해군대신이 정한 바에 의해 축성 및 일반 시설에 관한 토목건축의 실시와 국유재산에 관한 것을 관장함.

전항 이외 특설해군시설부는 필요에 따라 특설설영대의 보급에 관한 것을 관장함.

(이하 생략)

해군시설부와 ‘특설해군시설부’(이하 특설시설부)의 차이는 설치 지역(軍港·要港↔작전 지역)과 상설·임시라는 존재 시기에 있다. 두 부서는 일반적으로 부서명에 사용된 지역명 또는 번호에 따라 구분이 가능하다.

■ 해군연료창

해군연료창은 함선 사용 연료의 변화의 필요에 따라 개설되었다. 즉 1900년대 중반 이후 함선의 연료가 석탄에서 중유로 바뀌자, 기존의 해군 연료 공급을 위해 가동 중이었던 海軍採炭所 및 海軍鍊炭製造所를 폐지하고 연탄제조소가 있던 도쿠야마(德山, 山口縣)에 1921년 海軍燃料廠을 개설하였다. 이후 석유 및 연탄 관련 연구를 진행하면서, 석탄·연탄의 생산 및 제조도

29) 『(御署名原本 大正九年 勅令 第四百四十三號)海軍建築部令』(JACAR, A03021278199); 『(御署名原本昭和十八年勅令第六七三號)海軍建築部令改正ノ件』(JACAR, A03022856600); 『(昭和二十年三月二十六日現在)內令提要 卷1(10版)』(JACAR, C13072053900)

계속하였다.

1941년 요카이치(四日市, 三重縣)에 연료창 발족과 함께, 오후나(大船, 神奈川縣)의 제1연료창, 요카이치의 제2연료창, 도쿠야마의 제3연료창, 시메의 제4연료창 및 평양의 제5연료창으로 5개 연료창 체제로 개편하였다. 이 중 제1~3연료창은 액체 연료 관련 생산과 연구를 진행하였고, 제4~5연료창은 석탄계 연료를 취급하였다. 제6연료창은 高耐爆 항공연료의 증산을 목표로 태평양전쟁 직후에 대만의 3개소(新竹, 新高, 高雄)에 설치되었다. 제101·제102해군연료창은 개전 이후 점령한 인도네시아 지역 유전의 복구 및 개발을 위해 편성된 부대로, 이후 발릭파판, 로아쿠르, 셀람 등지의 유전에서 석유 생산을 담당하였다.

제4연료창의 경우 투입된 4,323명 전원의 ‘신분’이 鑛員으로 기재되어 있다. 일본측 자료에 패전 직전에는 1945년 5월 현재 전체 광원 수를 5,883명으로, 이 중 조선인(半島人)이 採掘員인 1종 광원으로 2,168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³⁰⁾

■ 특설해군설영대

일반적으로 設營隊라 불리는 특설해군설영대는 工兵隊가 존재하지 않았던 일본 해군의 공병 대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시설부들의 산하에서 작전부대의 지휘를 받으며, 실제 전선에서 주로 활주로를 포함한 비행장 시설, 방어진지 및 숙사 등 각종 군사 시설 등의 토목·건축에 투입된 ‘노동부대’라 할 수 있다. 전쟁 기간 중에 200여 隊가 편성되었다. 초기인 1941년 10월 경에 제1~제8의 8개 특설설영반으로 편성되었다. 최초의 설영반들은 문관인 海軍技師·技手を 간부로 하고, 작업원은 징용공원 만으로 구성된 순수한 ‘軍屬部隊’였다. 이후 1942년 4월 경부터 새로이 工作學校를 졸업한 技術士官이 추가되면서 군인이 지휘하는 특설설영대가 편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력 문제로 인해, 설영대의 주력은 군속이 담당하였다. 1944년 5월부터는 ‘技術下士官 및 技術兵’ 제도가 도입되어 ‘군인설영대’가 편성되었다.³¹⁾

■ 해군 공창

1865년 설립된 요코스카製鐵所를 기원으로 1903년 「海軍工廠條例」(1903.11.5., 勅令 제171호)로 요코스카해군공창이 설립된 이후 지속적인 변천을 행하였다.³²⁾ 일반적으로 海軍工廠(이하 공창)은 각 軍港(鎮守府)에 설치되어 함선 및 병기(항공병기는 해군대신이 특별히 지정한 것), 그리고 工作物인 유선통신장치 등의 제조와 수리, 구매 및 실험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것을 임무로 하였다. 또한 각 진수부 소속으로 각지에 다수의 공창들이 설립되었다. 이 공창들은 소재지명을 부서명으로 관칭하였다. 진수부 별 소속 공창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요코스카진수부 : 요코스카 · 사가미(相模) · 고자(高座) · 다가조(多賀城) · 누마즈(沼津) · 도

30) 燃料懇話會 編, 『日本海軍燃料史』 上, 東京:原書房, 1972, 708쪽.

31) 설영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참조된다. 佐用泰司·森茂 著, 『基地設營戰の全貌—太平洋戰爭海軍築城の真相と反省』, 東京:鹿島建設技術研究出版部, 1953; 海軍施設系技術官の記録刊行委員會 編, 『海軍施設系技術官の記録』, [東京:刊行委員會], 1972. 설영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로 보다 진행할 예정이다.

32) 이후 총 15차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태평양전쟁 다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36년 「海軍工廠令」(1936.6.26., 勅令 제131호)부터이다.

- 요가와(豊川) · 스즈카(鈴鹿) · 쓰(津) 해군공창
- 구레진수부 : 구레 · 히카리(光) · 히로(廣) 해군공창
- 사세보진수부 : 사세보 · 가와타나(川棚) 해군공창
- 마이즈루진수부 : 마이즈루 해군공창

각 공창들은 기능은 크게 두 계열로 구분되는데, 요코스카공창과 같이 軍港에 설치된 공창에는 造船部가 있어 함선의 건조·수리 능력을 보유하였지만, 다른 공창들은 병기, 엔진의 제조·수립 능력만 지녔다.

■ 해군항공창

해군 항공 초창기 비행기에 관해서는 요코스카공창 造兵部에서 기체의 수리·제조를, 造機部에서 엔진의 造修를 행하였다. 이후에 신제품은 민간공장 사용에 의한 방식으로 전화되어, 해군의 공작창에서는 수리만을 행하였다.

1937년 중일전쟁을 개시하고 이것의 확대, 장기화하면서 작전지에서 항공병기의 수리를 행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 목적으로 1939년 10월 이래, 제1항공창(漢口), 제2항공창(海口) 등의 ‘특설항공창’이 설치되었다. 1941년 10월 새롭게 항공병기와 그 재료의 造修와 부대 공급을 일원화한, 상설 해군항공창이 일본, 대만, 조선에 설치되어 제〇〇해군항공창으로 호칭되었다. 또 해당 지역에 분공장, 각 항공기지에 보급공장이 설치되었다. 동시에 작전지에 설치되었던 특설항공창에서도 수리만이 아닌 항공병기의 보급도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³³⁾

■ 해군공작부

해군공작부는 警備府(要港部)에 속하며 함선, 병기 및 공작물인 유선통신장치의 수리 및 장비와 특무선 및 잠역선의 제조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부서이다.³⁴⁾ 다른 부서와 마찬가지로 필요시에 작전지역에 설치되는 ‘특설’공작부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³⁵⁾ 약 500명이 투입된 鎮海工作部는 1941년부터 상설로 설치된 부서이다. 이외에 조선인이 투입된 ‘특설’공작부는 다음과 같다.³⁶⁾

[표 II-12] 조선인 군속이 투입된 ‘특설’ 해군공작부

공작부명	본부 위치	분공장	공작부명	본부 위치	분공장
제1	上海	漢口分工場	제101	싱가폴	페낭 · 사반 분공장
제4	도라쿠	과잘린 · 사이판 분공장	제102	스라바야	바타비아 · 암본 분공장
제30	라바울	펠렐리우 · 괌 분공장	제103	마닐라	세부 분공장

33) 『日本陸海軍事典』 上, 72~73쪽.

34) 「海軍工作部令」(勅令 제241호, 1941.3.20)『御署名原本 昭和十六年 勅令第二四一號海軍工作部令』(JACAR A03022574499).

35) 역시 ‘특설’공작부의 경우 담당 임무는 공작부(일반)와 차이는 없으나 ‘戰時 또는 事變時 또는 필요에 따라 작전지 등’에 설치되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昭和20年3月26日現在)内令提要 卷1(10版)』(JACAR C13072053900~55900).

36) 『海軍關係戰力調書資料』(防衛研修所戰史部) (JACAR C16120665000) 이외에도 海南工作部 및 제11특별공작부 등이 존재했으나, 조선인 투입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 해군군수부

기존에 품목에 따라 각각의 부서에서 담당하였던 군수품의 준비, 보관, 공급을 일원화하기 위해 1923년 신설되었다.³⁷⁾ 군수부는 각 군항과 도쿠야마, 馬公을 제외한 要港 및 오사카에 설치되었다. 또 가스미가우라(霞ヶ浦), 요카이치, 가고시마(鹿兒島) 등의 9개소에 支部, 다테야마(館山), 지치지마(父島),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등 10개소에 支庫가 설치되어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모하였다. 1941년 해군항공창이 설치되자, 항공병기 등은 항공창이 담당하였다.

■ 특별근거지대·특설근거지대

부대임무는 두 개 모두 소재하는 근거지와 그 부근의 경비, 港務, 통신을 담당하고, 필요에 따라 함선부대로의 보급과 수리공작, 환자 진료, 위생 담당 등 유사하다. 특별근거지대는 상설로, 편제는 군함과 유사하였다. 함대 또는 警備府에 소속되어, 소재지명을 관칭하거나 번호를 부여하여 호칭하였다. 馬公, 지치지마, 靑島 방면 특별근거지대 등 또는 싱가포르의 제9, 마카사르의 제23특별근거지대 등이 있다. 특설근거지대는 戰隊와 유사한 조직을 지니고, 산하에 특설 방비대, 특성항공대, 특설통신대, 특설소해대 등을 두고 전진근거지에 배치되었다. 소재지명 또는 번호를 관칭하였고, 부젠빌, 부인의 제1근거지대 등이 그 예이다.

■ 방비대

1923년 각 軍港과 도쿠야마, 高雄, 馬公을 제외한 要港에 또 기이(紀伊), 소야(宗谷), 사이키(佐伯) 등 기타 방비상 필요한 지역에도 설치되었다. 주로 소재지 부근의 海面 방어에 임했고, 海兵團 소재지 이외의 방비대에는 대공방어와 육상의 防火도 담당했다.

■ 경비대

기존에 海兵團이 담당하였던 軍港 및 要港의 방어·경비를 이관받기 위해 1941년 11월 설치되었다. 편제상 육상경비과와 수상경비과가 설치되었다.

4) 제주인 해군 군속의 사망현황

806명 중 133명의 사망 내역이 확인된다.

이중 미군의 공격을 받아 점령당하면서 해당 지역의 일본군이 전멸하는 마리아나 제도(괌, 사이판, 티니안, 필리핀), 길버트 제도(타라와, 마킨), 펠렐리우 등과 같은 ‘전멸 지역’의 경우 미군과의 전투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 지역에서는 마리아나 13명, 길버트 제도 29명, 펠렐리우 3명, 필리핀 31명, 유황도 2명 등의 사망 현황이 확인된다.

37) 군수품이란 병기, 탄약, 연료, 海圖, 치료품, 식료품, 의복류, 교육도서 등 군용으로 공급하는 모든 물품을 칭한다.

반면에 미군이 일본 본토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직접 공격하지 않고 우회하여 해당 지역을 고립시키는 도라쿠, 라바울, 윗체 등과 같은 ‘고립 지역’의 경우 주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 지역에서는 도라쿠 9명, 라바울, 2명, 윗체 5명 등의 사망 현황이 확인된다. 이 중 윗체의 경우 고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아닌,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사망한다. 당시 이 지역에 행해진 미군 폭격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인 사망 현황 중 주목되는 것은 선박 침몰로 인한 사망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선박 침몰 사망은 이동하기 위해 편승한 선박이 미군의 공격으로 사망하는 형태로, 해상에서 발생하기에 한 번에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제주인이 사망하는 침몰 선박은 하치로가타마루(八郎瀉丸), 하쿠요마루(白陽丸), 고요마루(香洋丸), 조와마루(長和丸), 가마쿠라마루(鎌倉丸) 등이 확인 된다.

제주인 12명이 사망하는 하쿠요마루(白陽丸) 침몰의 경우 조선인은 총 322명이 사망한다. 조선인 침몰 사망 사례 중 두 번째의 큰 규모이다. 오사카상선(大阪商船) 소속인 하쿠요마루(5,742 총톤)는 해군에 징용된 B선으로, 1944년 10월 가타오카만에서 가솔린, 화차(貨車), 식료품 등의 화물 약 4천톤을 탑재하고 23일 군함의 호위를 받으며 홋카이도 오타루로 향해 하던 중 25일 호로무시로도(幌筵島) 서방 약 530km 해상(N50:21, E150:26)에서 미 잠수함 썰(USS Seal, SS-183)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하였다.³⁸⁾ 다음으로 제주인 4명의 사망이 확인되는 코요마루(香洋丸)의 침몰에서 사망하는 조선인들은 총 88명에 이른다.³⁹⁾ 세 번째로 하치로가타마루의 경우 1명의 제주인 사망이 확인되는데, 총 486명의 조선인 해군 군속이 사망하며, 이는 조선인이 선박 침몰로 사망하는 사례 중 규모가 가장 크다.⁴⁰⁾ 네 번째로 1945년 5월 1일 침몰한 조와마루(長和丸)로 총 50명의 조선인이 사망하는 가운데 제주인 2명이 사망하였다.

38) 『日本艦船戦時日誌』, 1,058쪽; 『大阪商船株式會社船事故・海難報告書』(防衛省 防衛研究所 소장 자료,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C:C08050014600~15000); *United States and Allied submarine successes*, p.223.(이하 방위성 방위연구소는 ‘방위연구소’,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는 ‘JAC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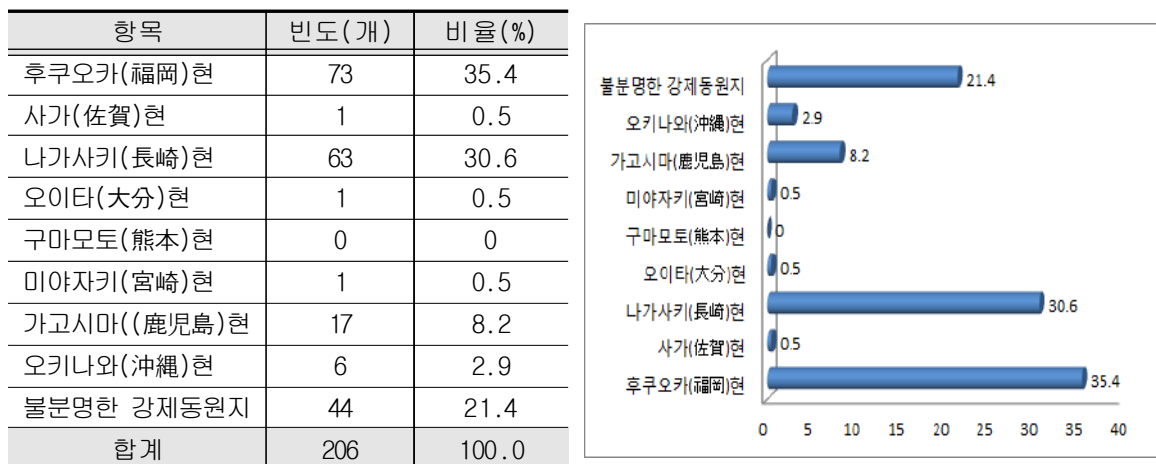
39) 도요기선([東洋汽船] 소속으로 육군에 징용된 코요마루(5,471 총톤)는 1944년 2월 21일 설영대원 1,191명과 편승자 20명과 보급품(건설 자재 및 糧秣) 5천 톤을 적재하고 요코하마(横浜)을 출발하여 사이판을 향하던 중 미 잠수함 스눅(USS Snook, SS-279)이 발사한 어뢰 2발을 기관실과 선미에 맞고 4분 후 침몰하였다. 『日本艦船戦時日誌』, 780쪽; 『戦時船舶史』, 82쪽; *United States and Allied submarine successes*, p.138.

40) 나카가와기선(中川汽船) 소속으로 해군에 징용된(B선)인 하치로가타마루(1,999 총톤)는 1944년 9월 24일 ‘지시마 열도’ 습슈도(占守島)의 가타오카 만(片岡灣)을 출발하여 홋카이도의 오타루(小樽)로 향하던 중 26일 신시루도(新知島) 부근 해상(N47:07, E152:25)에서 미 잠수함 아포곤(USS Apogon, SS-308)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하였다.(林寛司 編著, 『日本艦船戦時日誌』, [東京:林寛司], 2012, 1,011쪽; 『戦時船舶史』, 206쪽.) 미군 측 자료에는 27일 06:00 북위 46도32분, 동경 146도 48분에서 레이더 조준으로 수상에서 발사한 어뢰 3발 중 2발이 명중하여 침몰하였다고 한다.(John D. Alden and Craig R. McDonald, *United States and Allied submarine successes in the Pacific and Far East During World War II*, McFarland and Company, Inc., Publishers, 2009, p.208, 이하 ‘United States and Allied submarine successes’)

Ⅲ. 규슈·오키나와 지방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실태

규슈·오키나와 지방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 Ⅲ-1] 과 같다.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피징용자 명부’에 등록된 제주인 8,715명 가운데 강제동원지를 ‘구주(九州)’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제주인 피해자는 206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검색하면 후쿠오카(福岡)현이 73명(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가사키(長崎)현이 63명(30.6%), 불분명한 강제동원지가 44명(21.4%), 가고시마(鹿兒島)현이 17명(8.2%), 오키나와(沖縄)현이 6명(2.9%), 사가(佐賀)현과 오이타(大分)현, 미야자키(宮崎)현이 1명(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 규슈·오키나와 지방 지역별 재일제주인 피해자 수



자료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피징용자 명부’(<http://www.archives.go.kr>)에서 조사 작성.

1. 후쿠오카(福岡)현

[표 Ⅲ-2] 는 후쿠오카(福岡)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竹内康人編(2015)⁴¹⁾의 자료에 따르면 강제동원 재일조선인 수는 18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광업(89명), 군수공장(38명), 운수항만(16명), 토목건설(13명), 성적노예(9명), 비행장 건설과 군인군속(각각 8명), 지하공장 건설(3명), 군 공사(2명) 등에 강제 동원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에서 제주도 출신(11명)은 광업(8명)이나 군인군속(3명)으로 동원되어 탄광이나 군부대에서 종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제주도 출신자(73명)는 광업(28명), 비행장 건설(8명), 군수공장과 군인군속(각각 4명) 등으로 동원되었거나 불분명한 장소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도 29명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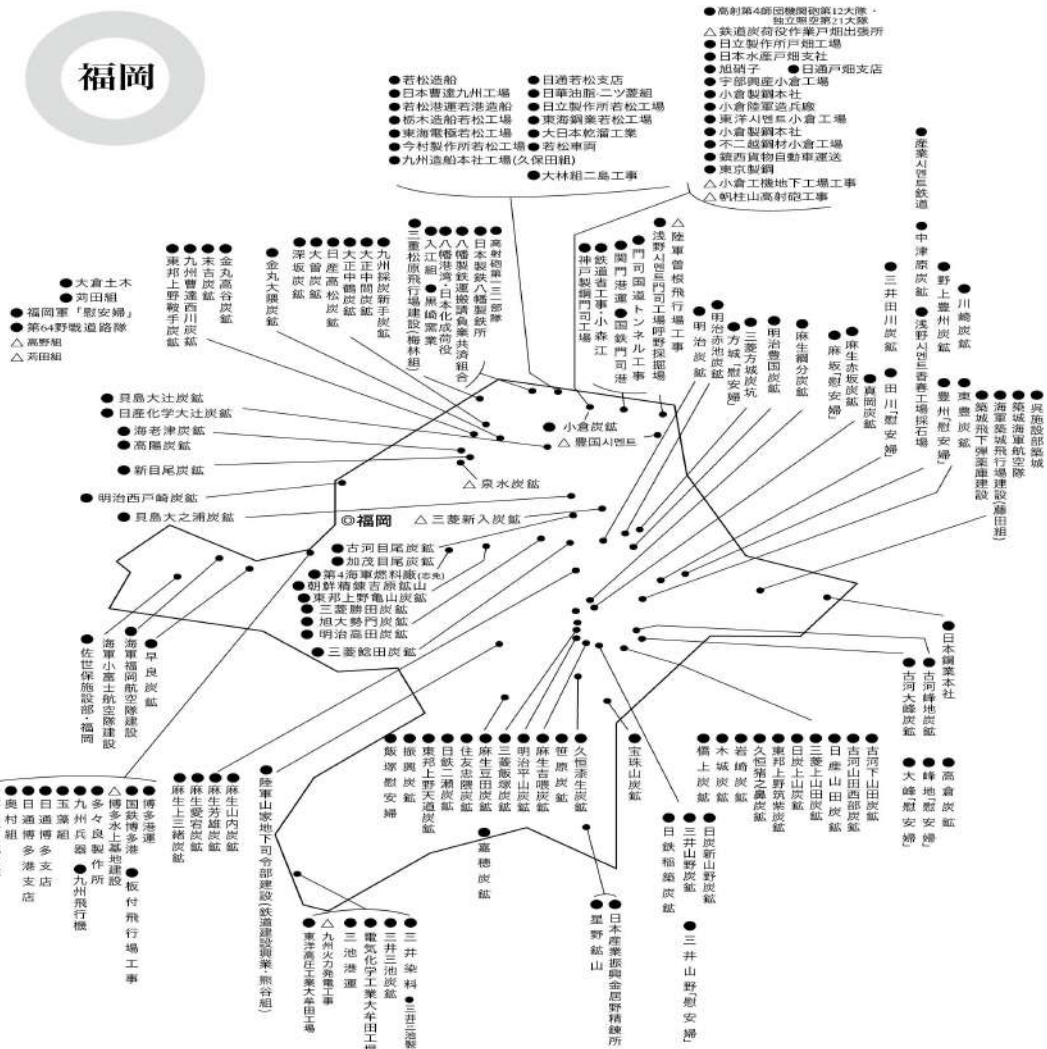
41) 竹内康人編(2015), 『戦時朝鮮人強制労働調査資料集(増補改訂版)－連行先一覧・全国地図・死亡者名簿』, 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

[표 Ⅲ-2] 후쿠오카(福岡)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

강제동원지		광업	비행장 건설	토목 건설	지하공장 건설	군수공장	운수항만	군인군속
竹内康人編	재일조선인	89	8	13	3	38	16	8
	재일제주인	8						3
국가기록원		28	8			4		4
강제동원지		군 공사	발전공사	성적노예	농림	봉사대	불명	합계
竹内康人編	재일조선인	2		9				186
	재일제주인							11
국가기록원							29	73

자료 : 竹内康人編(2015)과 국가기록원(<http://www.archives.go.kr>)에서 조사 작성

[그림 Ⅲ-1] 후쿠오카(福岡)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지도



주 : ● 강제동원지, ○ 강제노동지, △ 강제동원(노동) 가능성이 높은 장소

자료 : 竹内康人編(2015), 『戦時朝鮮人強制労働調査資料集(増補改訂版)―連行先一覧全国地図死没者名簿』, 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에서 인용 작성

2. 사가(佐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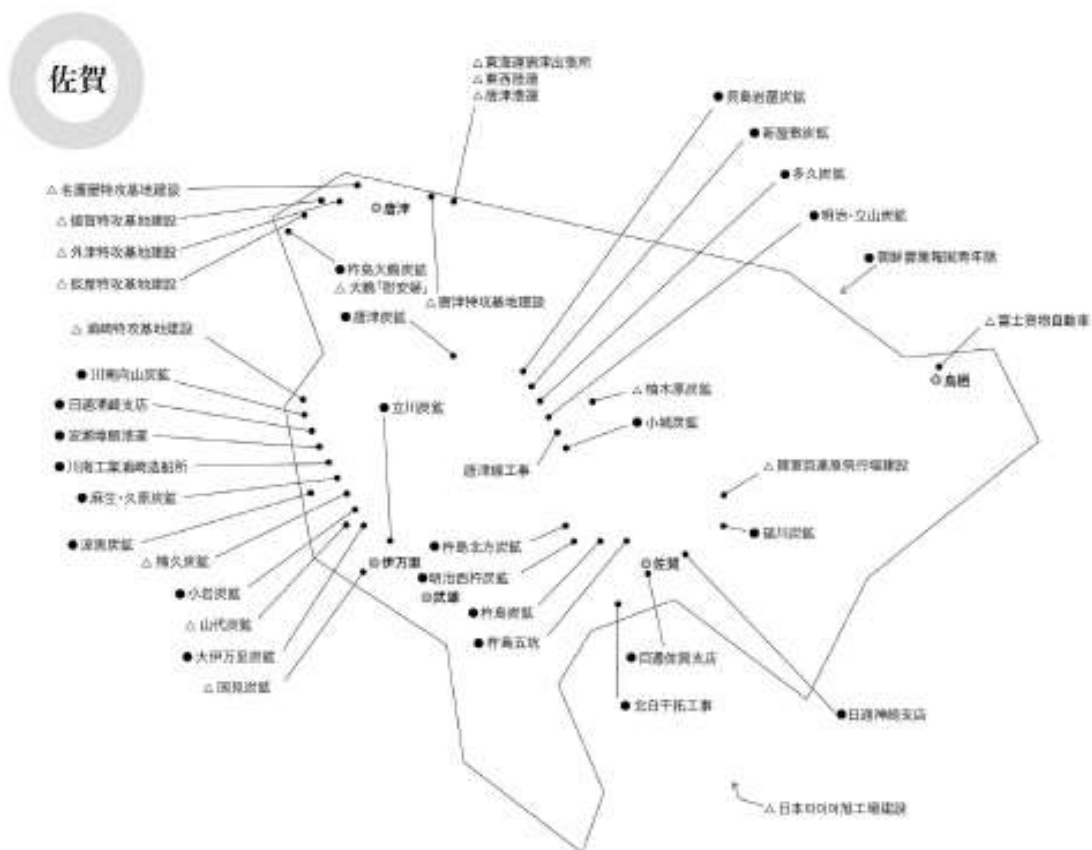
[표 Ⅲ-3] 은 사가(佐賀)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竹内康人編의 자료에 따르면 강제동원 재일조선인 수는 4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광업(19명), 운수(8명), 군 공사(7명), 토목건설(3명), 비행장 건설과 군수공장, 군인군속, 성적노예, 농림(각각 1명) 등에서 강제 동원되어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제주도 출신자(1명)는 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3] 사가(佐賀)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

강제동원지		광업	비행장 건설	토목 건설	지하공장 건설	군수공장	운수항만	군인군속
竹内康人編	재일조선인	19	1	3		1	8	1
국가기록원	재일제주인	1						
강제동원지		군 공사	발전공사	성적노예	농림	봉사대	불명	합계
竹内康人編	재일 조선인	7		1	1			42
국가기록원	재일제주인							1

자료 : [표 III-2] 와 동일

[그림 III-2] 사가(佐賀)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지도



자료 : [그림 III-1] 과 동일

3. 나가사키(長崎)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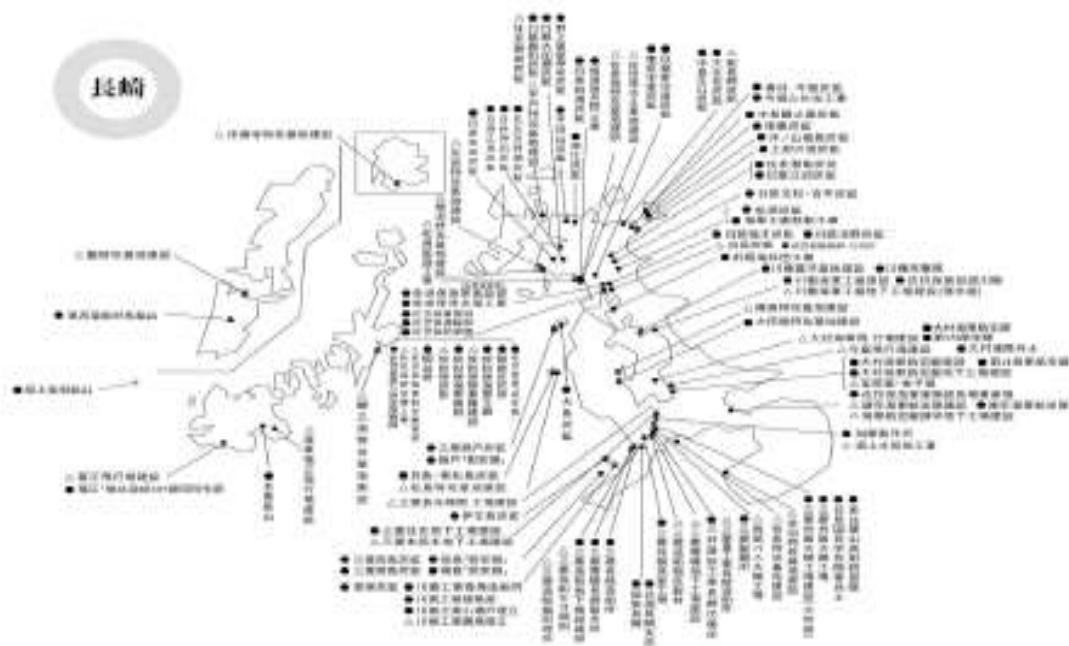
[표 Ⅲ-4] 는 나가사키(長崎)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竹内康人編의 자료에 따르면 강제동원 재일조선인 수는 13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광업(38명), 군 공사(21명), 군인군속(19명), 토목건설(18명), 지하공장 건설과 군수공장(각각 11명), 비행장 건설과 운수항만(각각 6명), 성적노예(3명) 등에 강제 동원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에서 제주도 출신(12명)은 광업과 군인군속(각각 5명), 원폭(2명) 등 탄광이나 군부대, 건설공사 등에서 종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제주도 출신자(63명)는 광업(16명), 군수공장과 운수항만(각각 1명), 불분명한 장소(45명) 등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Ⅲ-4] 나가사키(長崎)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

강제동원지		광업	비행장 건설	토목 건설	지하공장 건설	군수공장	운수항만	군인군속
竹内康人編	재일조선인	38	6	18	11	11	6	19
	재일제주인	5						5
국가기록원		16				1	1	
강제동원지		군 공사	발전공사	성적노예	농림	원폭	불명	합계
竹内康人編	재일조선인	21		3				133
	재일제주인					2		12
국가기록원							45	63

자료 : [표 Ⅲ-2] 과 동일

[그림 Ⅲ-3] 나가사키(長崎)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지도



자료 : [그림 Ⅲ-1] 과 동일

5. 구마모토(熊本)현

[표 Ⅲ-6] 은 구마모토(熊本)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竹内康人編의 자료에 따르면 강제동원 재일조선인 수는 3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군 공사(13명), 비행장 건설(7명), 발전공사(5명), 광업과 토목건설, 군인군속(각각 4명), 군수공장과 농림(각각 1명) 등에 강제 동원되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6] 구마모토(熊本)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

강제동원지		광업	비행장 건설	토목 건설	지하공장 건설	군수공장	운수항만	군인군속
竹内康人編	재일조선인	4	7	4		1		4
국가기록원	재일제주인							
강제동원지		군 공사	발전공사	성적노예	농림	봉사대	불명	합계
竹内康人編	재일조선인	13	5		1			39
국가기록원	재일제주인							

자료 : [표 Ⅲ-2] 과 동일

[그림 Ⅲ-5] 구마모토(熊本)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지도



자료 : [그림 Ⅲ-1] 과 동일

6. 미야자키(宮崎)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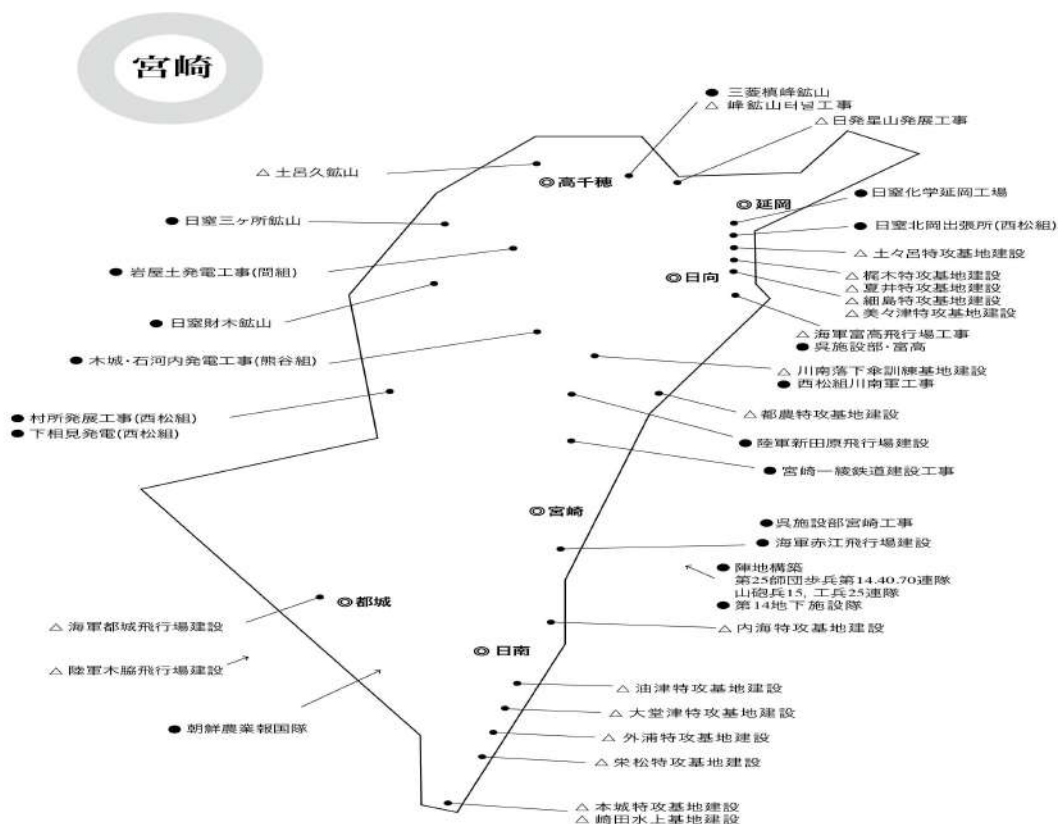
[표 Ⅲ-7] 은 미야자키(宮崎)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竹内康人編의 자료에 따르면 강제동원 재일조선인 수는 4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지하공장 건설(11명), 토목건설(8명), 광업(7명), 비행장 건설과 군 공사(각각 6명), 군인군속(5명), 군수공장과 성적노예(각각 2명), 농림(1명) 등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제주도 출신자(1명)는 군부대(군인군속)에서 종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7] 미야자키(宮崎)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

강제동원지		광업	비행장 건설	토목 건설	지하공장 건설	군수공장	운수항만	군인군속
竹内康人編	재일조선인	7	6	8	11	2		5
국가기록원	재일제주인							1
강제동원지		군 공사	발전공사	성적노예	농림	봉사대	불명	합계
竹内康人編	재일조선인	6		2	1			48
국가기록원	재일제주인							1

자료 : [표 III-2] 과 동일

[그림 Ⅲ-6] 미야자키(宮崎)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지도



자료 : [그림 III-1] 과 동일

7. 가고시마(鹿児島)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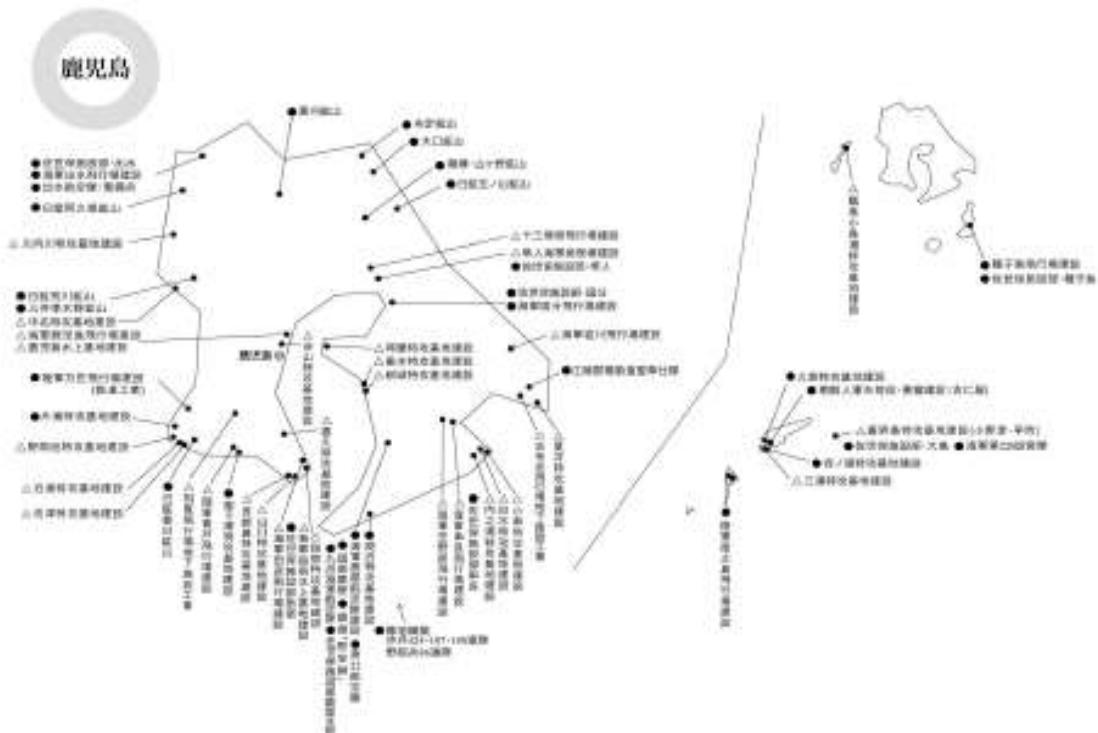
[표 Ⅲ-8] 은 가고시마(鹿児島)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竹内康人編의 자료에 따르면 강제동원 재일조선인 수는 70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군 공사(26명), 비행장 건설(18명), 군인군속(14명), 광업(9명), 운수항만과 성적노예, 봉사대(각각 1명) 등에 강제 동원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에서 제주도 출신(4명)은 군부대(군인군속)에서 종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제주도 출신자(17명)는 군인군속(8명), 불분명한 장소(9명) 등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Ⅲ-8] 가고시마(鹿児島)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

강제동원지		광업	비행장 건설	토목 건설	지하공장 건설	군수공장	운수항만	군인군속
竹内康人編	재일조선인	9	18				1	14
	재일제주인							4
국가기록원								8
강제동원지		군 공사	발전공사	성적노예	농림	봉사대	불명	합계
竹内康人編	재일조선인	26		1		1		70
	재일제주인							4
국가기록원							9	17

자료 : [표 Ⅲ-2] 과 동일

[그림 Ⅲ-7] 가고시마(鹿児島)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지도



자료 : [그림 Ⅲ-1] 과 동일

8. 오키나와(沖繩)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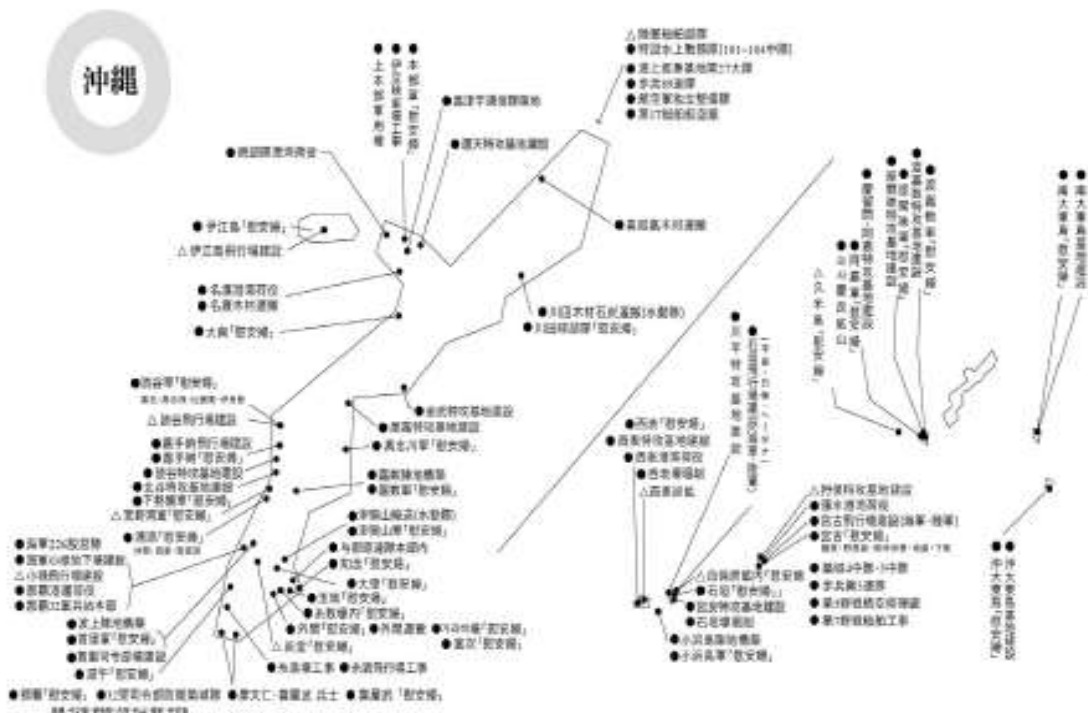
[표 III-9] 는 오키나와(沖繩)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竹内康人編의 자료에 따르면 강제동원 재일조선인 수는 118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성적노예(52명), 군 공사(25명), 군인군속(19명), 운수항만(10명), 비행장 건설(9명), 광업(3명) 등에 강제 동원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중에서 제주도 출신(12명)은 군부대(군인군속)에서 종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제주도 출신자(6명)는 군인군속(1명), 불분명한 장소(5명) 등에 동원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9] 오키나와(沖繩)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황

강제동원지		광업	비행장 건설	토목 건설	지하공장 건설	군수공장	운수항만	군인군속
竹内康人編	재일조선인	3	9				10	19
	재일제주인							12
국가기록원								1
강제동원지		군 공사	발전공사	성적노예	농림	봉사대	불명	합계
竹内康人編	재일조선인	25		52				118
	재일제주인							12
국가기록원							5	6

자료 : [표 III-2] 과 동일

[그림 III-8] 오키나와(沖繩)현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지도



자료 : [그림 III-1] 과 동일

9. 불분명한 규슈(九州)지방

[표 Ⅲ-10] 은 불분명한 규슈(九州)지방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제주도 출신자(44명)는 광업(21명)이나 군인군속(1명)으로 종사하였거나 불분명한 장소에 동원된 경우도 22명으로 파악되었다.

[표 Ⅲ-10] 불분명한 규슈(九州)지방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강제동원지		광업	비행장 건설	토목 건설	지하공장 건설	군수공장	운수항만	군인군속
竹内康人編	재일제주인							
국가기록원	재일제주인	21						1
강제동원지		군 공사	발전공사	성적노예	농림	봉사대	불명	합계
竹内康人編	재일제주인							
국가기록원	재일제주인						22	44

자료 : [표 Ⅲ-2] 과 동일

IV.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현지조사는 일본에서 제주도 출신들을 포함한 많은 조선인들이 이주하여 거주했던 일부 지역(8개현)을 중심으로 실시했다. 본 조사는 일본 8개 지방 중 규슈(九州)·오키나와(沖縄)지역에 국한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후쿠오카(福岡), 사가(佐賀), 나가사키(長崎), 오이타(大分), 구마모토(熊本), 미야자키(宮崎), 가고시마(鹿児島), 오키나와(沖縄) 등 8개 현(県)이다.

본 조사는 일제 강제연행 관련 비(碑) 조사, 재일제주인 이동경로, 기관방문(역사 사료관, 자료관, 박물관 등), 면담조사(연구자, 시민단체, 종교인)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비(碑) 조사는 비(碑) 개요(명칭, 건립 시기, 건립 장소, 소재지, 건립 주체, 건립 목적), 이동경로, 강제동원 현장, 사망원인, 비문, 사진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마지막에 조사한 일시 및 장소, 조사자의 성명을 기록하였다. 재일제주인 이동경로는 제주↔오사카, 부산↔시모노세키 등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기관방문은 기관명, 소재지, 방문 목적과 내용 등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조사는 성명, 소속, 직업, 거주지, 면담 목적과 내용 등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강제동원 관련 비 특성에서는 2017년(4개)과 2018년(32개)에 조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표 IV-1] 참조).

[표 IV-1] 일본 현지조사 지역(8県 26市·町·村)

지방	현(県)	조사지역
규슈(九州) 오키나와(沖縄)	후쿠오카(福岡)현	다가와(田川)시, 미야와카(宮若)시, 기타규슈(北九州)시, 이이즈카(飯塚)시, 오무타(大牟田)시, 아카이케초(赤池町), 케이센초(桂川町), 소에다초(添田町), 고다케초(小竹町), 이토다초(糸田町),
	사가(佐賀)현	가라츠(唐津)시
	나가사키(長崎)현	나가사키(長崎)시, 이키(壱岐)시 아시베초(芦辺町)
	오이타(大分)현	오이타(大分)시
	구마모토(熊本)현	아라오(荒尾)시, 야츠시로(八代)시
	미야자키(宮崎)현	미야자키(宮崎)시
	가고시마(鹿児島)현	가노야(鹿屋)시, 지란(知覧)시
	오키나와(沖縄)현	나하(那覇)시, 이토만(糸満)시, 기노완(宜野湾)시, 요미탄손(読谷村), 시마지리군(島尻郡) 도카시키키지마(渡嘉敷島), 미야코지마(宮古島)시, 이시가키지마(石垣島) 야에세초(八重瀬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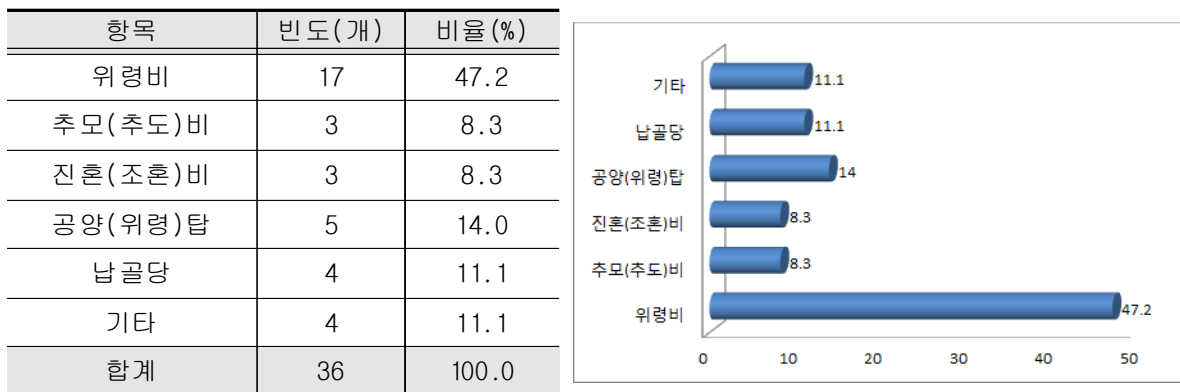
2.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비(碑) 특성

일본에서 강제연행 사망자를 애도하는 묘비(위령비, 추모비, 추도비 등)는 일본 전역에 138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가운데 강제연행과 관련된 비는 85기, 관동대지진 19기, 위안부 5기 등으로 구분된다. 조선인 강제연행 관련 묘비는 후쿠오카(福岡) 16기, 홋카이도(北海道)·도쿄(東京)·오사카(大阪) 각각 10기, 오키나와(沖縄) 8기, 지바(千葉) 7기, 사이타마(埼玉)·시즈오카(静岡)·효고(兵庫)·나가사키(長崎) 각각 6기 등으로 일본 31개 지역에 건립되어 분포하고 있다.⁴²⁾

1) 유형별 특성

[표 IV-2] 는 비(碑) 유형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유형별로는 위령비가 17개(47.2%)로 가장 높았으며, 공양(위령)탑이 5개(14.0%), 납골당과 기타(기념비, 평화상, 묘지, 각명비 등)가 각각 4개(11.1%), 추모(추도)비와 진혼(조혼)비가 각각 3개(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석들은 대부분 석비(石碑)로 건립되어 있으나 일부는 목비(木碑)나 철비(평화상)로 세워진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IV-2] 유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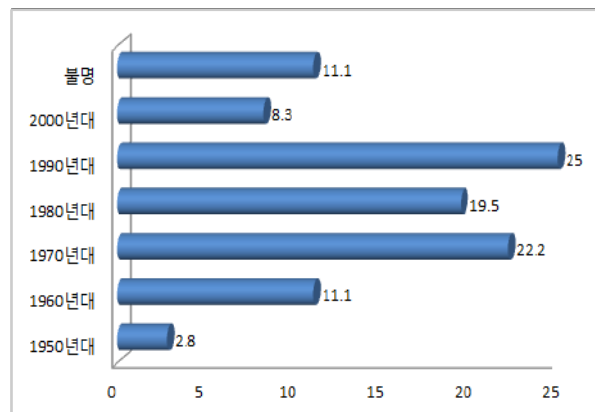
2) 건립 시기별 특성

[표 IV-3] 은 비(碑) 건립 시기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건립 시기별로는 1990년대가 9개(25.0%)로 가장 높았으며, 1970년대가 8개(22.2%), 1980년대가 7개(19.5%), 1960년대와 건립 연대를 알 수 없는 불명이 각각 4개(11.1%), 2000년대가 3개(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이후 한·일 관계가 우호적으로 형성된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2) 竹内康人編(2015), 앞의 책, pp.208~210.

[표 IV-3] 건립 시기별 분포

항목	빈도(개)	비율(%)
1950년 대	1	2.8
1960년 대	4	11.1
1970년 대	8	22.2
1980년 대	7	19.5
1990년 대	9	25.0
2000년 대	3	8.3
불명	4	11.1
합계	3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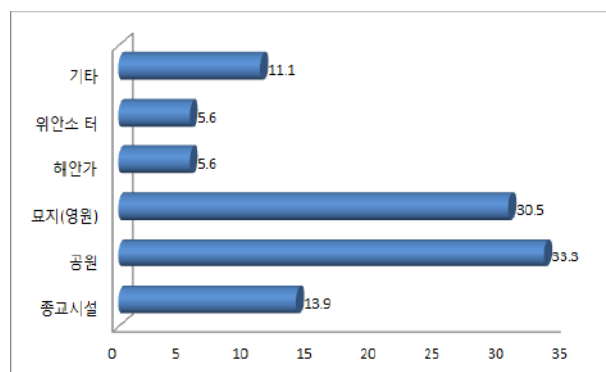


3) 건립 장소별 특성

[표 IV-4] 는 비(碑) 건립 장소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건립 장소별로는 공원이 12개(33.3%)로 가장 높았으며, 묘지(영원)가 11개(30.5%), 종교시설이 5개(13.9%), 기타(공항 활주로 근처, 공업단지 산기슭, 회관, 개인주택 농지 등)가 4개, 해안가와 위안소 터가 각각 2개(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비석들은 추도하기 편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 건립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는 시민단체(NGO)나 종교인, 민단·조총련 등이 건립 주체들과 연계해서 건립 가능한 장소에 세웠다고 볼 수 있다.

[표 IV-4] 건립 장소별 분포

항목	빈도(개)	비율(%)
종교시설	5	13.9
공원	12	33.3
묘지(영원)	11	30.5
해안가	2	5.6
위안소 터	2	5.6
기타	4	11.1
합계	3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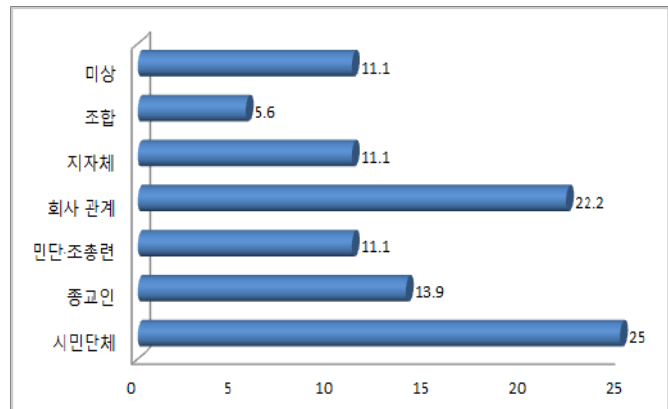
4) 건립 주체별 특성

[표 IV-5] 는 비(碑) 건립 주체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건립 주체별로는 시민단체가 9개(25.0%)로 가장 높았으며, 회사 관계 8개(22.2%), 종교인이 5개(13.9%), 민단·조총련과 지자체, 미상(마을 주민, 시민, 봉찬회, 개인)이 각각 4개(11.1%), 조합(노동)이 2개(5.6%)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비석은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위한 양심 있는 일본인, 뜻 있는 시민단체, 회사 관계자, 대한민국 민단과 조총련 등 재일한국·조선인, 일본과 한국의 종교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세워져 구원을 떠도는 원혼을 달라고 있다.

[표 IV-5] 건립 주체별 분포

항목	빈도(개)	비율(%)
시민단체	9	25.0
종교인	5	13.9
민단·조총련	4	11.1
회사 관계	8	22.2
지자체	4	11.1
조합	2	5.6
미상	4	11.1
합계	3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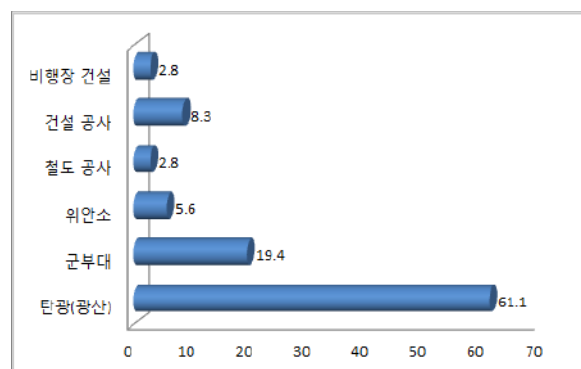


5) 근무지별 특성

[표 IV-6] 은 근무지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근무지별로는 탄광(광산)이 22개(61.1%)로 가장 높았으며, 군부대(특공기지)가 7개(19.4%), 건설(토목) 공사가 3개(8.3%), 위안소가 2개(5.6%), 철도 공사와 비행장 건설이 각각 1개(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으로 강제 징용된 사람들은 대부분 탄광(광산)이나 철도, 댐 공사 등에서 강제노역을 하였거나 군인군속으로 차출된 경우는 위안소(성적노예)와 군수공장, 그리고 군사기지(비행장 등) 건설에 동원되었다. 결국 이들 대부분은 일본에 강제적으로 끌려가서 가혹한 노동조건 속에서 목숨을 잃거나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 원통한 삶을 살았던 것이다.

[표 IV-6] 근무지별 분포

항목	빈도(개)	비율(%)
탄광(광산)	22	61.1
군부대	7	19.4
위안소	2	5.6
철도 공사	1	2.8
건설 공사	3	8.3
비행장 건설	1	2.8
합계	3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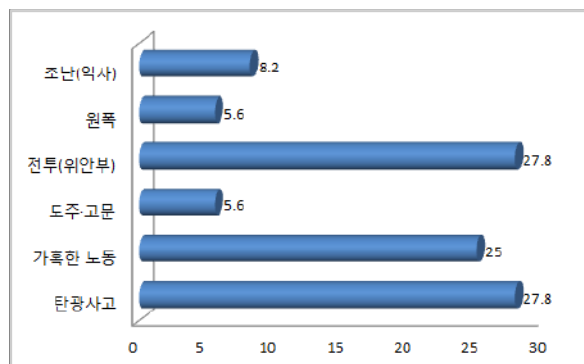


6) 사망 원인별 특성

[표 IV-7] 은 사망 원인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사망 원인별로는 탄광 사고나 전쟁(위안부)이 각각 10개(27.8%)로 가장 높았으며, 가혹한 노동이 9개(25.0%), 조난(익사)이 3개(8.2%), 도주고문과 원폭이 각각 2개(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사망 원인별 분포

항목	빈도(개)	비율(%)
탄광 사고	10	27.8
가혹한 노동	9	25.0
도주·고문	2	5.6
전투(위안부)	10	27.8
원폭	2	5.6
조난(익사)	3	8.2
합계	3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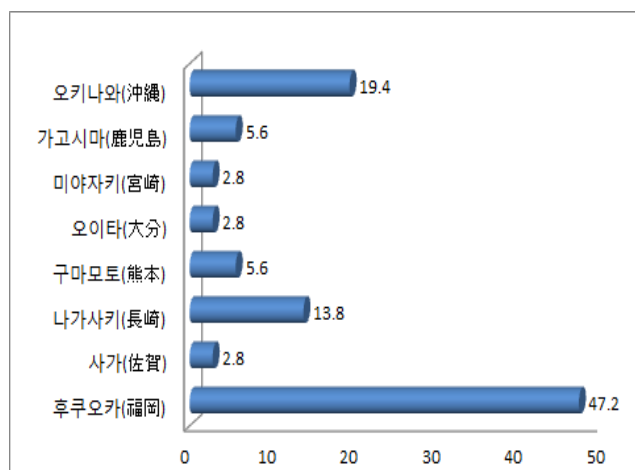


7) 지역별 특성

[표 IV-8] 은 지역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지역별로는 후쿠오카(福岡)가 17개(47.2%)로 가장 높았으며, 오키나와(沖縄)가 7개(19.4%), 나가사키(長崎)가 5개(13.8%), 구마모토(熊本)와 가고시마(鹿児島)가 각각 2개(5.6%), 사가(佐賀)와 오이타(大分), 미야자키(宮崎)가 각각 1개(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규슈·오키나와 지방에서 탄광, 비행장 건설, 군수공장, 군인군속, 성적노예 등으로 강제 동원된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표 IV-8] 지역별 분포

항목	빈도(개)	비율(%)
후쿠오카(福岡)	17	47.2
사가(佐賀)	1	2.8
나가사키(長崎)	5	13.8
구마모토(熊本)	2	5.6
오이타(大分)	1	2.8
미야자키(宮崎)	1	2.8
가고시마(鹿児島)	2	5.6
오키나와(沖縄)	7	19.4
합계	36	100.0



3. 재일제주인 이동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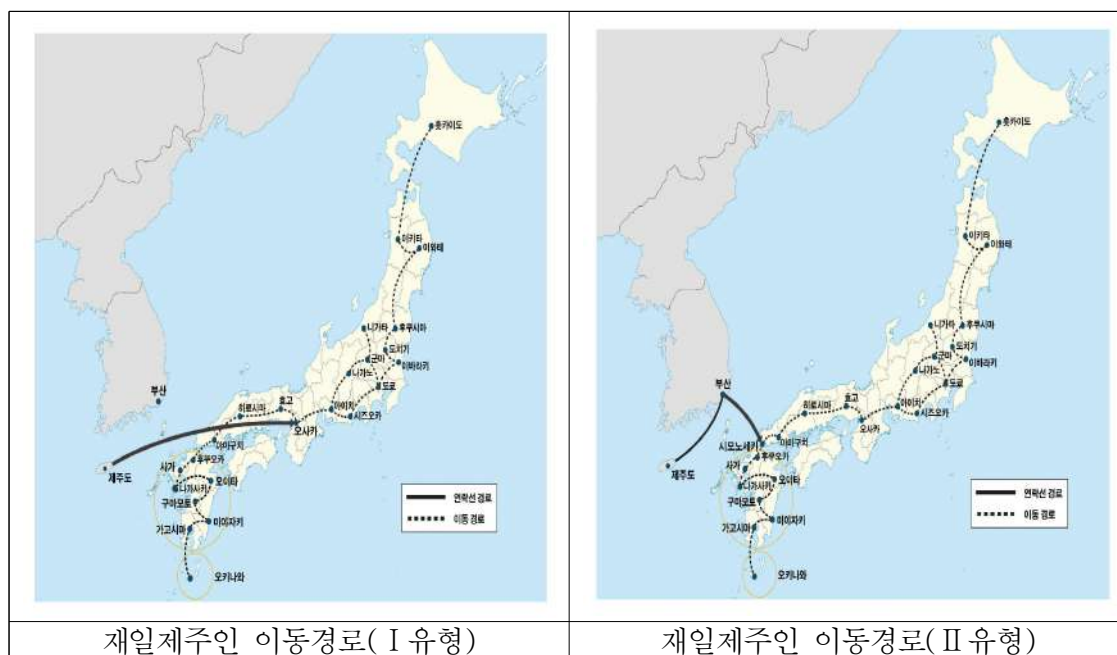
제주도 출신들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징병·징용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되면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그 당시(1939~1945년) 조선을 오고간 정기 여객선은 제주⇄오사카의 기미가요마루(君が代丸)와 부산⇄시모노세키(下関)의 관부(関釜)연락선 등 두개의 이동경로가 있었다.

I 유형은 제주도에서 출발하여 오사카에 도착하는 기미가요마루이다. 이 배는 1923년부터 1945년 초까지 제주도와 오사카 항로를 운항하였다. 매달 3차례 제주의 각 기항지를 한 바퀴 돌고 일본으로 향하여 제주도 출신자들이 이주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제주도에서 이주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주에서 기미가요마루를 이용하여 오사카에 도착한 후 규슈·오키나와 지방 등지로 이동하였다.

II 유형은 제주도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경유하여 시모노세키에 도착하는 관부연락선이다. 이 배는 1905년 운항을 시작으로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잇는 항로에 취항하였다. 이 경우는 부산에서 관부연락선을 이용하여 시모노세키에 도착한 후 규슈·오키나와 지방 등지로 이동하였다.

[그림 IV-1] 은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8개 지역을 중심으로 재일제주인 이동경로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들은 제주에서 출발하여 일본에 도착한 후 규슈·오키나와 지방의 각 지역(8개현)으로 강제 동원되어 어려운 삶을 살았다. 결국 제주도 출신들은 제주와 부산을 통해 오사카와 시모노세키를 거쳐 일본 규슈·오키나와 지방으로 강제 동원된 일부 이동경로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일본에 먼저 건너간 제주도 출신들의 경우는 일본 현지 오사카에서 오키나와로 군인 군속이나 군수공장 등에 동원된 경로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IV-1] 재일제주인 이동경로 유형



3. 기관방문 및 면담조사

1) 기관방문

본 조사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된 지역을 중심으로 민단(2곳), 역사 자료관(4곳), 박물관(2곳), 사료관(2곳), 기념관(4곳) 등 14개의 기관을 방문하였다.

[표 IV-8] 기관방문 현황

기관명	소재지	방문 내용	비고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부산광역시 남구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는 역사관으로서 강제동원의 역사와 현황	
沖縄県平和祈念資料館	沖縄県 糸満市	전쟁의 희생이 된 많은 영혼을 달래며 오키나와전의 역사적 교훈을 바르게 다음 세대에 전하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마음을 전하여 더욱이 영구적인 평화를 심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현민 개개인의 전쟁 체험을 모아 자료관을 설립	●
나하(那覇)시 역사박물관	沖縄県 那覇市	전전의 수리(首里)/나하(那覇), 전시체제, 오키나와에서 독일로 보낸 그림엽서, 10·10공습과 나하의 괴멸, 오키나와전, 전단(伝単), 수용소 생활, 전후 초기의 생활 물자 등 전시	
渡嘉敷村歴史民俗資料館	沖縄県 渡嘉敷	旧日本軍特攻艇秘匿壕, 集団自決跡地, 赤松隊本部壕, 白玉の塔, 伊江村民収容地跡記念碑 등 전적지 자료	●
宮古島市総合博物館	沖縄県 宮古島市	미야코지마(宮古島)의 사적을 지역별(平良地区/城辺地区/上野地区/伊良部地区/多良間村)로 구분해서 特攻艇秘匿壕, 기관총호, 통신대호, 설명대 지하호, 화기포호, 전파탐지기호, 중화기秘匿壕, 비행장 전투 지휘소 등을 영상으로 설명	●
八重山平和祈念館	沖縄県 石垣市	야에야마(八重山)전적지, 말라리아(Malaria) 자료	●
福智町図書館歴史資料館	福岡県 田川郡	赤池・金田・方城가 후쿠지(福智)로 통합하여 과거 탄광 관련 역사 자료들을 전시	
후쿠오카(福岡)현/가고시마(鹿児島)현 지방본부	福岡県 福岡市 鹿児島県 鹿児島市	이주 시기와 경로, 목적이 적혀 있는 국민등록신청서 등 재일제주인 관련 자료	
鹿屋航空基地史料館	鹿児島県 鹿屋市	과거를 배우고 지금을 알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 가노야(鹿屋)해군항공기지에서 908명, 해군항공기지에서는 363명의 해군 군인이 특공대원으로서 남방에 출격하여 젊고 귀한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	●
知覧特攻平和会館	鹿児島県 南九州市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오키나와 전투에서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자살 공격을 한 육군특별공격대원(지란기지)의 영상, 유품, 기록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	●
万世特攻平和祈念館	鹿児島県 南さつま市	영상을 사용해서 당시 관계자의 증언이나 자료 영상을 소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유서와 혈서 등도 전시	●
万田炭鉱館	熊本県 荒尾市	일본의 근대화를 지탱한 남자들의 꿈의 흔적... 미이케(三池)탄광万田坑은 2015년 메이지(明治)일본의 산업혁명유산 제철·제강·조선·석탄 산업의 구성 자산의 하나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	●
高島石炭資料館	長崎市 高島町	高島炭鉱跡, 北溪井鉱跡, 中ノ島炭鉱跡 등 高島炭鉱의 시작부터 미츠비시(三菱)가 경영하기까지의 역사 자료를 전시	●

주 : ●는 강제동원 관련 방문기관을 표시

2) 면담조사

본 조사에서는 재일조선인들이 강제적으로 동원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자(2명), 시민단체(11명), 민단 관계자(4명), 종교인(6명), 관장(1명), 기타(1명) 등 총 25명을 면담하였다.

[표 IV-9] 면담조사 현황

성명	거주지	소속 및 직업	조사 내용	비고
주영민(朱榮民)	부산광역시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학예연구관	강제동원의 역사와 현황 관련 자료	
이라카키 야스코(新垣安子)	福岡県 南城市	済州と沖縄を結ぶ会 主幹 新沖縄県史編集委員	沖縄県史-沖縄戦(일본군 위안소, 조선인 군부) 태평양전쟁 미야코지마(宮古島) 전몰자 명부	
아사토 에이코(安里英子)	沖縄県 南城市	沖縄恨之碑の会 代表	前조선인 군부 강인창(姜仁昌)의 증언(할아버지의 유언) 자료	●
오키모토 후키코(沖本富貴子)	沖縄県 島尻郡	沖縄恨之碑の会	오키나와전(沖縄戦)에 동원된 조선인 관련 자료	●
니시자토 하츠에(西里初枝)	沖縄県 宮古島	NGO 회원	미야코지마(宮古島) 전적지	
나가미네 스미에(長嶺すみ江)	沖縄県 宮古島	NGO 회원	아리랑의 비(오키나와전 위안부)	●
여나하 히로토시(与那覇博敏)	沖縄県 宮古島	위안부 증언자	미야코지마(宮古島)에 있던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 증언	●
시오히라 마사미치(潮平正道)	沖縄県 石垣市	9条の会やえやま 共同代表	이시가키지마(石垣島) 전적지에 관한 자료	
야마자토 세츠코(山里節子)	沖縄県 石垣市	9条の会やえやま	야에야마(八重山) 전쟁 유적지에 관한 자료	
나칸다카리 마사히코(仲村渠政彦)	沖縄県 宗像市	わが沖縄を考えるひとりの会 主幹 高江現地行動連絡会 共同代表	후쿠오카(福岡)현 탄광 유적지에 관한 자료	
요시다 사치코(吉田幸子)	福岡県 飯塚市	人権ネット いづつか 事務局 長	이이즈카(飯塚)시 무궁화당(탄광 관련 납골당)에 관한 자료	●
모리야마 센이치(森山 沾一)	福岡県 田川市	田川市石炭歴史博物館 館長	다가와(田川)시 탄광 역사에 관한 자료	●
배동록(裴東錄)	福岡県 北九州市	コリアと日本の架け橋 平和と歴史の語り部	휴가모지 등 후쿠오카(福岡)현 역사의 증언자	●
이노우에 미치아키(井上道昭)	福岡県 田川市	法光寺 住職	横嶋炭鉱에서 강제적으로 노동한(석탄채굴) 조선인 탄광 순직자 관련 자료	
任貞淳	鹿児島県 鹿児島市	가고시마(鹿児島)현 지방본부 사무국장	가고시마(鹿児島)현 국민등록신청서 등 재일제주인 관련 자료	
토미야마 마사카츠(富山正勝)	鹿児島県 鹿児島市	가고시마(鹿児島)현 지방본부 섭외부장	가노야(鹿屋)항공기지, 지란(知覧)과 만세(万世)특공기지에 관한 자료	●
정의봉(鄭義鳳)	鹿児島県 霧島市	島山塾 (神話傳說研究會)	가고시마(鹿児島)현 재일제주인 이주와 삶	
重吉和久	鹿児島県 南さつま市	鹿児島県立加世田高等学校 교감	아마미(奄美)섬 재일조선인 강제징용 관련 자료	●
慶田 修	熊本県 荒尾市	大牟田・荒尾炭鉱のまち ふあんくらぶ 万田炭鉱館職員	아라오(荒尾)와 오무타(大牟田)지역에서 강제노역한 조선인 탄광 노동자에 관한 자료	●
川原浩心	佐賀県 唐津市	光明寺 住職	오츠루(大鶴)탄광 광업소 노동자 관련 자료	
니시다니 토구도(西谷徳道)	長崎県 壱岐市	天徳寺 住職	1945년 광복 직후 인근에서 숨진 강제징용자와 그 가족 등 한국인 유골(131기) 관련 자료	●
이상호(李相鎬)	福岡県 博多区	후쿠오카(福岡)현 지방본부 단장	후쿠오카(福岡)현이 소장하고 있는 국민등록신청서 등 재일제주인 관련 자료	
니시아마(西山)	熊本県 八代市	善立寺 주지스님	가고시마본선(海安線) 공사 관련 자료	
최경상(崔慶尙)	福岡県 飯塚市	慶尚院 주지스님	殉職産業人名簿 등 조선인 징용자 관련 자료	●
古賀一弘	福岡県 飯塚市	観音寺 주지스님	탄광 노동자 유골을 일시 보관했던 종교시설	

주 : ●는 강제동원 관련 면담조사를 표시

V.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본 실태조사는 일제말기(1939~1945년) 제주도를 떠나 일본에 강제적으로 동원된 재일제주인 1세들의 자취를 추적 발굴하여, 향후 재일제주인의 강제동원 관련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였다.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 8개현 현지조사를 수행하면서 그 당시 억울하게 돌아가신 선조들의 원혼을 달래는 의미에서 규슈·오키나와 지방에 있는 추모비, 추도비, 위령비 등(36개)이 있는 곳을 찾아 재일조선인 관련 비(碑)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일본 규슈·오키나와 지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 시민단체, 민단 관계자, 종교인 등을 통해 강제동원 관련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에 대한 조사·연구 현황을 파악하였다.

셋째, 오키나와(沖繩)현 평화기념 공원에 있는 평화의 초석(刻銘者名簿)에서 제주도 출신 피해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넷째, 오사카에서 오키나와로 강제 연행된 제주도 출신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군에 의해 포로로 잡혀서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殉職産業人名簿』에서는 제주도 출신(1명)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그 명부에는 연행년월, 사업소(기업), 성명, 나이, 유족(성명 등), 본적지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여섯째, 국가기록원과 竹内康人編(2015) 자료를 통해 강제 동원된 제주도 출신이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일부 명부가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일곱째, 아직도 사망자 명단을 확인하지 못한 유족들을 비롯하여 발견되지 않은 유골이 일본 규슈·오키나와 지방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강제동원 관련 비(추도비, 추모비, 위령비 등)가 세워져 있지 않는 지역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제주도에서도 다수의 제주도 출신들이 강제 동원되었고, 이들의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2장 제5절의 해군 군속의 경우와 같이 분석과 연구를 통해 이들이 겪은 강제동원의 실태를 일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2. 시사점 및 한계

본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최근 재일한인 강제동원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국내외 강제동원 연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첫째, 명부자료의 분석을 통해 강제 동원된 제주도 출신들의 일반적으로만 알려진 피해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권역별(8개 지방)로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가기록원, 연구자, 경상원(慶尙院) 방문 등을 통해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명부를 입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본 조사에서는 일부이지만 강제 동원된 재일제주인 명부를 확인하고 작성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셋째, 규슈·오키나와 등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지방본부가 보관하고 있는 재일한인(재일제주인)에 대한 소중한 자료(국민등록갱신·신규신청서)을 원본 복사, 사진 스캔 등의 방법을 통해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강제동원과 관련된 상황을 좀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넷째, 노무현 정부 당시 피해 보상을 위해 제주도민들이 작성하여 신청한 자료 등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사본만이라도 제주도에 반환되도록 시도하여 소중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이 보내 준 자료는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낮은 용량의 파일을 보내줌으로써 저질의 화질로 인해 이들의 구체적인 동원실태(투입 지역 및 작업장, 신분 등)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였다.

둘째, 국가기록원은 자료와 같이 송부한 ‘색인’에 ‘총 10,432명의 제주인’이라고 기재하여 보냈으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색인’은 여러 자료의 중복은 물론이고 동일자료 상에서의 중복 부분도 포함한 수치였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정부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상에 기재되어 있는 강제 동원된 제주인의 정확한 수치를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셋째, 현지조사 과정에서 1세대들의 강제연행에 대한 경험자들이 이미 사망한 경우가 많아 이들 가족들에 대한 구술을 채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주 일부만 명단이 확보되고 있으나 과거 일본의 군수공장, 탄광 등의 지역뿐만 아니라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에도 강제 동원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현지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넷째, 일본의 재야 사학자와 스님 등 종교계 인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일부 있으나 이들의 일부는 한국과 일본 정부 등에 자료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원본 등의 전체 자료는 개인이 소장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공개를 꺼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이 필요한 실정이다.

다섯째, 아직까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를 연구하거나 활동하는 연구자나 시민단체 회원 등의 제약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오키나와(沖縄)현 평화기념 공원에 각명되어 있는 피해자에 대해 일본인이나 대만 등 우호 국가 사망자들은 생년월일, 출신지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선인 출신들은 생년월일, 출신지 등이 미 기재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3. 제언

강제동원은 과거, 우리 민족이 그리고 우리 제주도 출신이 겪었던 ‘수난의 역사’로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하는 역사적 사건이었으며, 또한 미래지향적인 한일 양국 간의 발전적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앙 정부 차원의 강제동원 관련 조사 및 연구는 2015년 12월 소위 ‘한일 위안부 협정’으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중단된 사업을 지방 정부 차원에서 조사를 행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 정부 차원의 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연구 수행자는 우선적으로 ‘기초 데이터’의 확보와 ‘기억의 전승’을 통한 관련 사실의 전파로 제시하고 싶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초 데이터’의 확보이다.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강제동원 관련 자료 중 ‘제주인’ 관련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기록원이 이미 제공한 자료가 아닌, 보다 업그레이드된-화질이 좋은-자료의 입수가 물론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각 자료들마다 항목에 차이를 지니고는 있지만, 성명, 본적지, 투입지, 투입시기, 투입부대, 피해 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할 경우, 보다 구체적인 ‘제주인’들의 동원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현재의 국가기록원 ‘색인’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한국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상에 기재된 ‘제주인’들의 정확한 인원수는 중복된 부분을 제외하여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억의 전승’이다. 현재 강제동원이 ‘법적으로 종료’된 지 약 80년에 가까운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강제동원을 직접 경험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망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의 경험담을 직접 청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이 겪은 강제동원의 피해는 이들을 통해 이미 그들의 자손들에 일정하게 전파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그 내용은 매우 한정적인 내용일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통해 그 자손들이 알고 있는 강제동원의 피해를 조사하는 작업은 ‘기억의 전승’이라는 차원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강제동원을 알지 못하는 ‘어린 제주인’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들이 강제동원을 통해 어떠한 고초를 겪었고,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 아버지들에게 어떻게 전해졌으며,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전해야 하는 가’와 같은 ‘기억의 전승’ 또는 일반인 차원의 ‘역사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초 데이터베이스의 확보와 경험담을 토대로, ‘할아버지 제주인’들이 겪은 강제동원의 역사를 어린 학생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역사 탐방 교육 프로그램 사업’도 함께 전개하는 것도 많은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억울하게 죽어간 재일제주인 등에 대한 역사적 소명을 통해 후손으로서 이들의 기록을 사료로 남겨서 후세에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사의 현장을 배우고 학습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광명(2013), 『재일(在日)제주인의 삶과 기업가활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김인덕(2002), 『강제연행연구』, 경인문화사.
- _____ (2008), 『역사와 경계』, 「일제시대 여수지역 강제연행에 대한 고찰」 67권, 부산경남사학회, 9~29.
- 심재욱(2013), 「[구일본해군 조선인군속 동원 관련 자료(2009)]의 미시적 분석」, 『한일민족문제연구』 24.
- _____ (2018), 「전시체제가 시바우라해군시설보급부의 조선인 군속 동원」,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7.
- _____ (2014), 「전시체제가 조선인 해군 군속의 일본 지역 동원 현황-구일본해군 조선인 군속 관련 자료(2009)의 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1.
- _____ (2017), 「『육군운수부군속명부』를 통해 본 태평양전쟁기 일본육군운수부의 조선인 군속 동원」, 『한일민족문제연구』 33.
- _____ (2011), 「『工員名票』를 통해 본 戰時體制期 舊日本陸軍造兵廠의 조선인 군속동원」, 『민족운동사연구』 66.
- 정혜경(2003), 『일제말기 조선인 강제연행의 역사-사료 연구』, 景仁文化社.
- _____ (2006), 『조선인 강제연행 강제노동 I: 일본편』, 선인.
- _____ (2011), 『일본 제국과 조선인 노무자 공출: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노동Ⅱ』, 선인.
- 박찬식·고광명·고병수(2017), 『일제 강제연행 재일제주인 이주경로 추적』, 제주특별자치도·제주학연구센터.
- 한일민족문제학회 강제연행문제연구분과(2005), 『강제연행 강제노동 연구 길라잡이』, 선인.
- 朴慶植(1965), 『朝鮮人強制連行の記録』, 未来社 [박경옥(2008),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 고즈원].
- _____ (1991), 「朝鮮人強制連行についての調査研究」, 『アジア問題研究所報』(6), 아시아문제연구소.
- _____ (1993), 「朝鮮人強制連行」, 『朝鮮人強制連行論文集成』, 明石書店.
- 金英達(2003), 『朝鮮人強制連行の研究』, 明石書店.
- 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及び国外強制動員被害者等支援委員会(2016), 『委員会活動結果報告書』.
-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部(1969), 『(戰史叢書)陸海軍年表-付兵器 兵語の解説』.
- _____ (1969), 『(戰史叢書)海軍軍戰備(1) 昭和十六年十一月まで』, (株)朝雲新聞社.
- 燃料懇話會編(1972), 『日本海軍燃料史(上)』, 原書房.
- 原剛·安岡昭南編(2003), 『日本陸海軍事典コンパクト版(上)』, 新人物往來社.
- 林寛司編(2012), 『日本艦船戰時日誌』, 林寛司.

入管協會(2012), 『在留外國人統計』.

朝鮮人強制連行真相調査団(1974), 『朝鮮人強制連行・強制労働の記録-北海道・千島・樺太編』, 現代史出版会.

_____ (1992),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四国編』, 柏書房.

_____ (1993),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大阪編』, 柏書房.

_____ (1993),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兵庫編』, 柏書房.

_____ (1997),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中部・東海編』, 柏書房.

_____ (2001),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中国編』, 柏書房.

_____ (2002), 『朝鮮人強制連行調査の記録-関東編』, 柏書房.

佐用泰司・森 茂(1953), 『基地設營戦の全貌-太平洋戦争海軍築城の真相と反省』, 鹿島建設技術研究出版部.

竹内康人編(2015), 『戦時朝鮮人強制労働調査資料集(増補改訂版)-連行先一覧・全国地図・死亡者名簿』, 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

沖本富貴子(2017), 「沖縄戦に動員された朝鮮人に関する一考察-特設水上勤務隊を中心に」 『地域研究』 第20号, 沖縄大学地域研究所, 29~53.

_____ (2018), 「沖縄戦の朝鮮人-数値の検証」 『地域研究』 第21号, 沖縄大学地域研究所, 45~65.

太田静男(2014), 『八重山の戦争(復刻版)』, 南山舎.

海軍施設系技術官の記録刊行委員会編(1972), 『海軍施設系技術官の記録』, 刊行委員会.

厚生省社会・援護局五十年史編纂委員会編(1997), 『援護五十年史』, (株)ぎょうせい.

John D. Alden and Craig R. McDonald(2009), *United States and Allied submarine successes in the Pacific and Far East During World War II*, McFarland and Company, Inc., Publishers.

「국가기록원 제공 제주도민 강제동원 관련 명부자료」.

「구일본해군 조선인 군속 관련 자료(2009)」.

『(御署名原本 大正九年 勅令 第四百四十三號)海軍建築部令』(JACAR, A03021278199).

『(御署名原本昭和十八年勅令第六七三號)海軍建築部令改正ノ件』(JACAR, A03022856600).

『(昭和20年3月26日現在)内令提要 卷1(10版)』(JACAR, C13072053900).

『(昭和20年3月26日現在)内令提要 卷1(10版)』(JACAR C13072053900~55900).

『大阪商船株式会社船 事故・海難報告書』(JACAR, C08050014600-15000).

「海軍工作部令」(勅令 제241호, 1941.3.20.), 『(御署名原本 昭和十六年 勅令第二四一號)海軍工作部令』(JACAR A0302257449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2016),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요약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편(2011), 『남양군도 밀리환초(Mili Atoll)에서 학살된 강제동원 조선인에 대한 진상조사』(작성자 조건).

www.jiwon.go.kr.

Abstract

A Survey on the Actual Status of the Forced Mobilization of Jeju people in Jap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cusing on Kyushu and Okinawa)

Chan-Sick Park, Kwang-Myong Ko, Jae-Wook Shim, Byung-Soo Ko

This survey was conducted to follow and discover the traces of the first-generation Jeju people in Japan who were forcibly mobilized to Japan from Jeju Island around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period(1939-1945), in order to provide a basic data regarding the forced mobilization to Japan and utilize such data for history education in future. The results of this surve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36 places in Kyushu and Okinawa, where monuments, memorials, and cenotaphs are erected, were visited and the current status of gravestones related to Korean people in Japan was identified in order to solace the vengeful souls of the people who died miserably in those days, while conducting a field survey for 8 prefectures in Japan.

Second, this survey was carried out to collect statistical data on the forced mobilization from researchers, NGOs, officials from the Korean Residents Union in Japan, and religious people in Kyushu and Okinawa and to identify the status of the survey and research on forced mobilizatio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Third, it was confirmed that some people from Jeju were included in the names engraved on the cornerstone of peace in Peace Memorial Park, Okinawa Prefecture.

Fourth, there was a record that a person from Jeju Island, who was forcibly mobilized from Osaka to Okinawa, died. However, it was later found that he had been captured by U.S. forces and had been alive.

Fifth, the name list of deceased industrial workers included one person from Jeju Island. The year and month of his forced mobilization, the location of his company, his name, age, family name, and permanent address were written in detail in the list.

Sixth, through the data of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akeuchi Yasuto Book(2015), the study identified whether the name list of forcibly mobilized people included any Jeju people. It was confirmed that the names of some Jeju people were recorded in the data.

Seventh, the following facts were confirmed: There are bereaved families who have not yet found the name list of the deceased; there are undiscovered remains in Kyushu and Okinawa, Japan, and there are areas where no monument, memorials, or cenotaphs are

erected related to forced mobilization.

As stated above, this study identified that a large number of Jeju people were forcibly mobiliz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at their records remained. The data on the civilians attached to the naval army in Section 5, Chapter 2 has a material significance in that the analysis and research of the data help understand the actual status of the forced mobilization that Jeju people experienced.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survey will provide many implications for Korean and overseas researchers on the forced mobilization at a time when the fact that Koreans in Japan having been forcibly mobilized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matter.

First, analysis of the name list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damage that Jeju people suffered due to forced mobilization more specifically. In order to do so,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 long-term and systematic investigation on the actual situation of the victims of forced mobilization from Jeju Island who resided in 8 regions in Japan.

Second, it was recognized that it is necessary to visit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researchers, and Gyeongsang-won and obtain the name list of forcibly mobilized Jeju people in Japan. In this sense, this surve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partially identified and prepared the name list of forcibly mobilized Jeju people in Japan.

Third, it is necessary to copy and scan the originals of valuable documents such as national registration application and renewal application of Jeju people in Japan stored by Kyushu and Okinawa branch offices of the Korean Residents Union in Japan. This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better understand the situation related to forced mobilization.

Fourth, the reports on damage of Jeju people prepared for the compensation during the time of Roh Moo-hyun government, are presently stored in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The copies of such reports should be provided to Jeju Province and used as valuable research materials.

Notwithstanding this importance, however, the data sent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have many problems, as mentioned above.

First, it was impossible to identify the specific situation of the forced mobilization(assigned area, workplace, identity, etc.) of Jeju people with the relevant data because it consisted of low-capacity and poor image quality files.

Second, an 'index' written as 'a total of 10,432 Jeju people' was sent together with the data by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However, as mentioned above, the figure in this 'index' included duplicates on the same data as well as various duplicate data. Thus, it has a limitation that it cannot identify the exact figure of the forced mobilized Jeju people, which is stated in the data currently stored by the Korean government agen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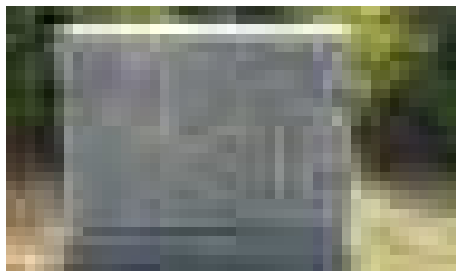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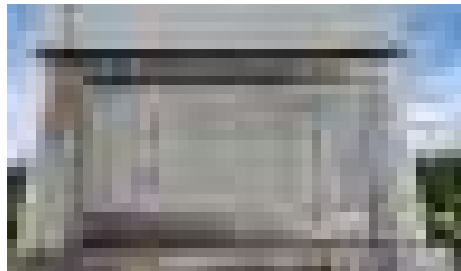
Forced mobilization, which is 'the history of suffering' that Koreans including Jeju

people experienced in the past, is a historical event that must not be repeated. It is also an important task that must be 'solved' in order to establish a progressiv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Nevertheless, survey and research on the forced mobilization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has been suspended due to 'South Korea–Japan Comfort Women Agreement' which was concluded in December 2015. It is very significant to carry out a surve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for the project suspended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In addition, the researcher should first secure 'the basic data' and propagate the related facts through 'the transfer of memory' which are important points in a survey at the local government–level.

Keyword : Japanese colonial period, Jeju people in Japan, forced mobilization, Kyushu and Okinawa, peace memorial park, history of suffering, solved, South Korea–Japan comfort women agreement, basic data, transfer of memory, history education program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비(碑) 조사카드

비(碑) 개요	비(碑) 명칭	寂光(朝鮮人炭鉱殉職者之碑)		
	건립 시기	1997년 3월	건립 장소	호코지(法光寺) 경내
	소재지	후쿠오카(福岡)현 다가와(田川)시 川宮 1985		
	건립자	호코지(法光寺) 주지스님		
	건립 목적	일본은 조선반도를 1910년부터 1945년 패전할 때까지 식민지로 지배하여 왔다. 특히 1931년부터 일본이 저지른 15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일본 국내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면서 이곳에도 석탄채굴 노동력으로 약 15만 명의 조선 사람들이 강제로 연행되어 왔다. 이들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노동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약 2만여 명이 갱내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했다. 이 순난 비에는 지나치게 가혹하였던 역사를 극복하고 살아서 조국의 산천이나 친척들을 다시 만나보지도 못한 채 원통하게 돌아가신 조선인 유골들이 안치되어 있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후쿠오카(福岡)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지쿠호(筑豊)지역 탄광			
사망원인	갱내 사고와 질병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후쿠오카(福岡)현 재일한인 18,390명(재일 제주인 330명)			
일시·장소	2018년 8월 2일(목) 호코지(法光寺)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비(碑) 개요	비(碑) 명칭	韓國人徵用犠牲者慰靈碑		
	건립 시기	1988년 4월	건립 장소	석탄·역사박물관
	소재지	후쿠오카(福岡)현 다가와(田川)시 大字伊田 2734		
	건립자	재일본 대한민국거류민단 후쿠오카(福岡)현 다가와(田川)지부		
	건립 목적	다가와(田川)시는 1900년 미즈이다가와광업소(三井田川鉱業所)가 설립되면서 지쿠호(筑豊)지역 최대의 탄광도시로 발전하였다. 1960년대 에너지 의존도가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되어 석탄 산업이 쇠퇴하면서 1964년 폐광하였다. 이곳은 조선인들을 강제 징용하여 끔찍한 환경에서 석탄 노동을 시켰던 지역이다. 이 비는 강제연행의 희생자로 연고가 없는 유골을 모시기 위해 다가와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웠다. 살아서는 지하 갱도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렸지만 죽어서는 근처 가장 높은 곳에서 편히 쉬시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후쿠오카(福岡)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미즈이(三井)다가와 광업소, 아소(麻生)탄광 등 지쿠호(筑豊)지대			
사망원인	갱내, 노동재해(勞災)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후쿠오카(福岡)현 재일한인 18,390명(재일 제주인 330명)			
일시·장소	2017년 7월 2일(일) 다가와(田川)시 석탄·역사박물관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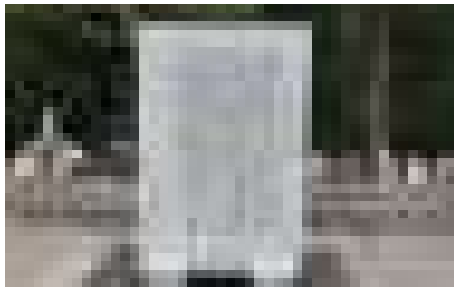
비(碑) 개요	비(碑) 명칭	鎮魂碑(明治鑛業赤池炭鉱殉職者)		
	건립 시기	1994년 1월	건립 장소	赤池會館 근처
	소재지	후쿠오카(福岡)현 田川(다가와)군 赤池町		
	건립자	아카이케(赤池) 탄광 종사자 건립위원회		
	건립 목적	이곳에는 메이지(明治)시대 아카이케(赤池)탄광의 진혼비가 있다. 비 옆에는 순직자 520명을 적은 부비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다. 탄광 노동으로 인한 병사를 포함하면 사망자는 1,000명 가까이 된다. 조선인 사망자도 100명이 넘는다. 비석은 이 고장에서 살고 있는 아카이케 탄광에서 종사하였던 사람들이 1990년 건립위원회를 만들어 선탄(選炭)후 버려진 폐 석탄을 쌓았던 산을 정지한 땅에 1994년 1월 착공하여 세워진 것이다. 비석 위에는 사각의 바닥에 뽕죽한 산 모양의 폐 석탄을 나타낸 모양을 하고 있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후쿠오카(福岡)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아카이케(赤池)탄광			
사망원인	갱내 사고나 도주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후쿠오카(福岡)현 재일한인 18,390명(재일 제주인 330명)			
일시·장소	2018년 7월 30일(월) 赤池會館			
조사자	고 광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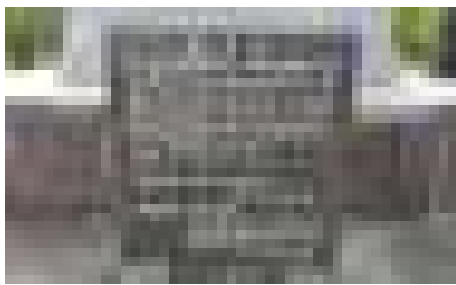
비(碑) 개요	비(碑) 명칭	炭鉱犠牲者復権の塔		
	건립 시기	1977년	건립 장소	千石公園
	소재지	후쿠오카(福岡)현 미야와카(宮若)시 宮田		
	건립자	미야와카(宮若)시 관광협회		
	건립 목적	지난 100여 년 동안 일본의 산업경제는 석탄에 의해 뒷받침되어 오늘날 번영의 토대를 마련해 왔다. 전성기에는 300여개 갱도가 있었다. 지금은 탄광도 모두 폐산하여, 산탄지로서의 이미지는 영원히 잊혀지려 하고 있다. 탄광 노동자로 석탄 산업에 종사한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자가 되었다. 또한 전시에는 외국 사람들 희생자도 다수에 이르러 과거 인간 소외와 인간성의 회복에 대한 소원과 여러 외국 희생자에 대한 사과의 뜻을 담아 공원에 건립하게 되었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후쿠오카(福岡)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가이지마오노우라(貝島大之浦)탄광			
사망원인	갱내 사고나 질병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후쿠오카(福岡)현 재일한인 18,390명(재일 제주인 330명)			
일시·장소	2018년 7월 28일(토) 千石公園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비(碑) 개요	비(碑) 명칭	徳香追慕碑		
	건립 시기	1985년	건립 장소	마을 공원
	소재지	후쿠오카(福岡)현 카호군(嘉穂郡) 桂川町		
	건립자	徳香追慕の碑供養実行委員会		
	건립 목적	도쿠카(徳香) 추모비는 아소요시쿠마(麻生吉隈)탄광의 재해 희생자의 영혼(위령)을 위로하기 위해 모신 곳이다. 일본의 대륙침략 정책으로 한일병합이 강행되어 도항해 온 조선인 노동자들이 산탄지 지쿠호(筑豊)에 몰려들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혹독한 노동이 강해지면서 탄광 재해는 증가했다. 이 비에는 1936년 1월 25일 갱내 화재로 희생된 29명(조선인 25명, 일본인 4명)의 추모비가 건립된 뒤 전쟁의 격화와 함께 강제연행·강제취로 희생자도 같이 합장되어 있다. 당시 희생자들(29명)의 연령은 19세(1명), 20대(12명), 30대(11명), 40대(3명), 50세(1명), 68세(1명)로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후쿠오카(福岡)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아소요시쿠마(麻生吉隈)탄광			
사망원인	탄광 재해(갱내 화재 등)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후쿠오카(福岡)현 재일한인 18,390명(재일제주인 330명)			
일시·장소	2018년 7월 28일(토) 마을 공원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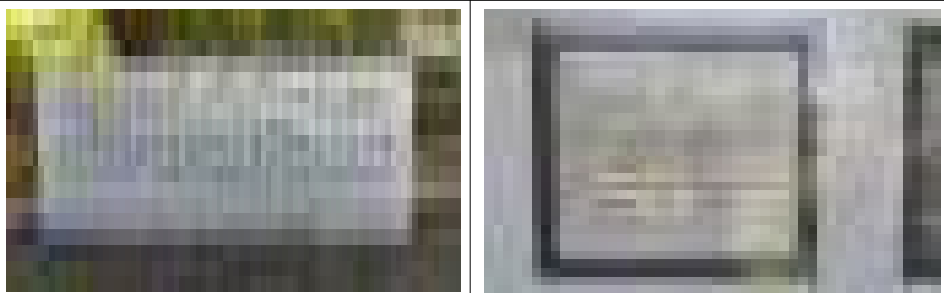
비(碑) 개요	비(碑) 명칭	麻生吉隈炭鉱共同墓地納骨堂		
	건립 시기	1961년 3월	건립 장소	마을 공동묘지
	소재지	후쿠오카(福岡)현 카호군(嘉穂郡) 桂川町		
	건립자	麻生吉隈炭鉱 관계자		
	건립 목적	요시쿠마(吉隈)탄광(1960년 폐광)은 아소광업(麻生鑛業) 산하 탄광 중 가장 규모가 컸으며, 조선인 노무자 역시 가장 많았던 곳이다. 원래 이곳에는 탄광에서 일하다 죽은 조선인 탄광 노무자들이 묻혀있는 무연고 묘지가 있었다. 1985년 마을 공민관을 지으면서 불도저로 땅을 파다 보니 사람 뼈가 나왔다. 땅 주인 측은 시신 발굴에 착수해 모두 504명의 유골을 수습했다. 504명 중 비석이나 위패 등 신원을 확인할 어떠한 단서도 함께 묻혀 있지 않은 450명이 무연고자로 파악됐으며, 이들 대부분은 조선인으로 추정했다. 현재 놀이터에서 떨어진 야산에 있는 공동묘지 남골당으로 유골을 옮겼다고 하는데, 그곳에서도 조선인 유골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후쿠오카(福岡)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아소요시쿠마(麻生吉隈)탄광			
사망원인	탄광 사고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후쿠오카(福岡)현 재일한인 18,390명(재일 제주인 330명)			
일시·장소	2018년 11월 11일(일) 마을 공동묘지(비문 사진은 현재 무연고지 묘지 터)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비(碑) 개요	비(碑) 명칭	日向墓地		
	건립 시기	1974년 5월	건립 장소	휴가집안 공동묘지
	소재지	후쿠오카(福岡)현 소에다쵸(添田町)		
	건립자	강제연행 노동자들		
	건립 목적	일본인 공동묘지 안에 있는 휴가(日向)집안 묘지의 일각에는 재일조선인들의 묘지가 있다. 한 사람의 강제 연행자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다. 이 묘지에는 강제연행으로 끌려와 탄광에서 일하다 죽거나 죽임을 당한 조선인 노동자(37명)가 묻혀 있다. 묘비 비석도 없이 그 대신에 크고 작은 돌이나 석탄 돌맹이가 표지석으로 놓여 있다. 주변에는 일본인의 애완용 강아지, 고양이 묘도 함께 세워져 있다. 그 당시 강제동원된 조선인 징용자는 4,124명 중 1,798명이 탈출을 시도했다. 탈출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은 47명, 붙잡힌 사람은 283명, 성공한 사람은 119명이었다. 조선인 탄광 노동자들이 얼마나 혹독한 환경 속에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반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후쿠오카(福岡)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고가오미네(古河大峰)탄광			
사망원인	탄광에서 일하다 사망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후쿠오카(福岡)현 재일한인 18,390명(재일 제주인 330명)			
일시·장소	2018년 8월 1일(수) 휴가집안 공동묘지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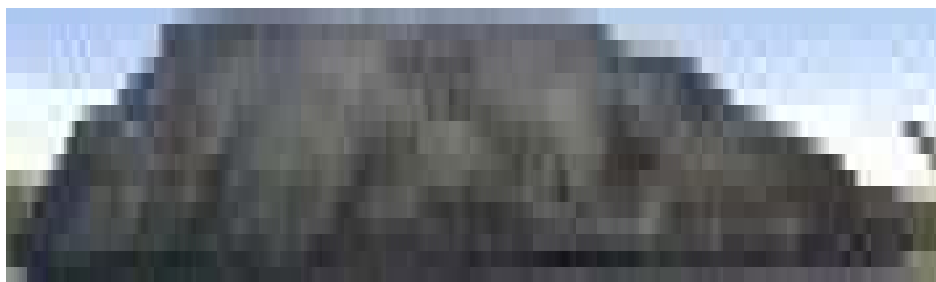
비(碑) 개요	비(碑) 명칭	松岩菩提		
	건립 시기	1994년 8월	건립 장소	마을 공동묘지
	소재지	후쿠오카(福岡)현 고다케초(小竹町)		
	건립자	小竹町合盟供養塔管理組合		
	건립 목적	고가메오(古河目尾)탄광(1969년 폐산)은 제2차 세계대전 중 탄광에서 사망한 노동자들 유골(252기)을 니이다(新多)의 묘지에 매장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조선반도에서 강제적으로 연행되어 온 사람들로 과혹한 노동환경 속에서 낙반 등의 재해, 질병이나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곳에서 1992년 골프장 개발 때 많은 유골들이 발견되어, 1994년 묘가 있던 장소에 공양탑을 건립하였다. 공양탑 주위에 늘어놓은 검은 돌들이 속칭 마즈이와(松岩)라고 한다. 광부들을 울렸던 성가셨던 돌을 소나무의 뿌리로 상징하여 부르게 되었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후쿠오카(福岡)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고가메오(古河目尾)탄광			
사망원인	낙반사고나 재해, 질병, 영양실조 등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후쿠오카(福岡)현 재일한인 18,390명(재일제주인 330명)			
일시·장소	2018년 7월 29일(일) 마을 공동묘지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비(碑) 개요	비(碑) 명칭	徴用犠牲者慰靈碑		
	건립 시기	1995년 3월	건립 장소	甘木公園
	소재지	후쿠오카(福岡)현 오무타(大牟田)시		
	건립자	在日コリア大牟田(재일한인)		
	건립 목적	비문에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땅에 징용되어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가 사망하신 분들의 영령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현하고 지난날의 불행한 일에 대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새겨져 있다. 이 비는 전후 50년을 맞이하여 일본 땅에서 운명을 같이하여 온 우리 동포들이 고인들의 넋에게 위로의 정을 담아 건립하였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후쿠오카(福岡)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미즈이(三井)石炭鉱業(三池炭鉱)			
사망원인	가혹한 노동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후쿠오카(福岡)현 재일한인 18,390명(재일 제주인 330명)			
일시·장소	2018년 7월 26일(목) 甘木公園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비(碑) 개요	비(碑) 명칭	解脫塔慰靈碑・合葬之碑		
	건립 시기	1995년 5월	건립 장소	勝立工業團地 산중턱
	소재지	후쿠오카(福岡)현 오무타(大牟田)시 鳥塚町 10		
	건립자	오무타(大牟田) 수인(囚人) 노동자 묘지 보존회		
	건립 목적	이곳에서는 미이케(三池) 탄광에서 고된 죄수 노역으로 숨진 사람들을 위해 장사를 지냈다. 위령비는 1888년 미이케 집치감(集治監) 관리들의 손으로 세웠다. 합장비는 1995년 가츠다치(勝立)공업단지 조성지의 적토에서 수십 명의 인골이 발견된 곳에 세웠다. 과거 이곳은 1873년에서 1931년까지 죄수 노동이 이루어졌던 지역이다. 비문에는 과거를 잠그고 있는 자는 미래는 잃다(過去に目を閉ざす者は 未来を失う)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후쿠오카(福岡)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미즈이미이케탄광(三井三池炭鉱)			
사망원인	고된 노역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후쿠오카(福岡)현 재일한인 18,390명(재일 제주인 330명)			
일시·장소	2018년 7월 26일(목) 勝立工業團地(산중턱)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비(碑) 개요	비(碑) 명칭	馬渡社宅(51棟)跡		
	건립 시기	1997년 2월	건립 장소	馬渡 第1公園
	소재지	후쿠오카(福岡)현 오무타(大牟田)시		
	건립자	오무타(大牟田)시		
	건립 목적	오무타(大牟田) 미이케(三池)탄광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수천 명의 조선인이 강제 연행되어 혹독한 노동을 강요당했던 곳이다. 이 중 200여 명의 조선인이 마와다리(馬渡)사택에 수용되어 생활했다. 사택(51동)의 벽장에는 이들의 망향을 담은 벽서가 있었는데, 1989년에 찾은 강제연행의 역사를 배우는 그룹에 의해 발견됐다. 전시 중이라고는 하지만 조선인에게 엄청난 희생을 안겨주고, 또 희생자의 아픔을 생각할 때 다시는 이런 행위를 반복해서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기념비는 이 땅에 ‘벽서’를 복원함으로써 전쟁의 비참함과 평화의 고귀함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기 위해 건립하였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후쿠오카(福岡)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미즈이미이케탄광(三井三池炭鉱)			
사망원인	혹독한 노동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후쿠오카(福岡)현 재일한인 18,390명(재일 제주인 330명)			
일시·장소	2018년 8월 19일(일) 馬渡 第1公園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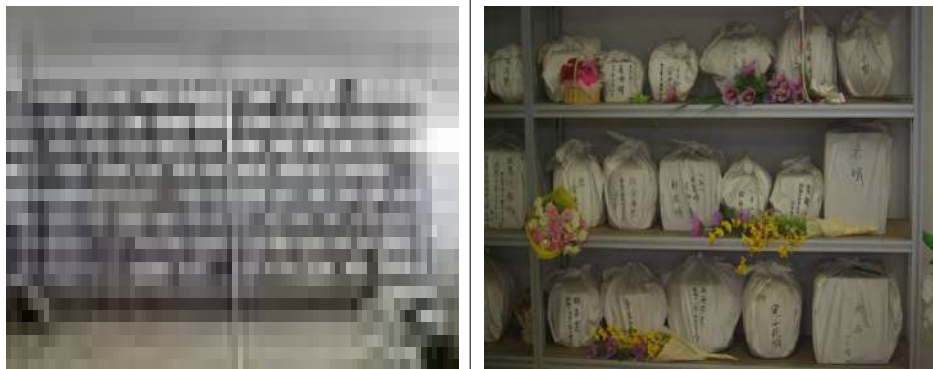
비(碑) 개요	비(碑) 명칭	朝鮮人慰靈碑		
	건립 시기	1975년	건립 장소	慶尙院 경내
	소재지	후쿠오카(福岡)현 이이즈카(飯塚)시 椿 598		
	건립자	최경상(崔慶尙) 주지스님		
	건립 목적	최경상 스님은 도자기를 조사하는 중에 석탄 함(函)에 버려진 조선인 유골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후 유골들을 위령하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기고 출가하였다. 경상원에는 1975년부터 치쿠호(筑豊)지역의 탄광에 흩어져 있는 이름 모를 조선인 유골이 모셔져 있다. 또한 이곳에는 야마구치(山口)현 조세이(長生)탄광에서 희생된 명부(130명)와 1940년부터 1942년까지의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 전국의 강제연행 관련 사망자의 이름, 사망한 날짜, 사고가 있던 기업, 가족 이름 등이 빠짐없이 적혀 있는 명부, 노동자들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된 자료 등 매우 귀중한 사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후쿠오카(福岡)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치쿠호(筑豊)지역 탄광			
사망원인	가혹한 노동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후쿠오카(福岡)현 재일한인 18,390명(재일 제주인 330명)			
일시·장소	2018년 11월 9일(금) 慶尙院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비(碑) 개요	비(碑) 명칭	俱会一处(高雄第2坑跡地慰靈碑)		
	건립 시기	1969년 1월	건립 장소	마을 무연고 묘지
	소재지	후쿠오카(福岡)현 이이즈카(飯塚)시 伊岐須 高雄 주택단지		
	건립자	明星菊一・栗原利男 共立鉱業		
	건립 목적	이곳은 원래 이이즈카(飯塚)시가 관리하고 있던 공동묘지로 연고를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매장하였던 무연고 묘지였다. 광업소가 문을 닫은 후 이 자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를 정리하던 중 너무 많은 인골이 출토되어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인부들에게 모든 유골을 수습하도록 한 후 영혼을 위로하고자 비를 세우도록 했다. 이들 유골들은 일본에 연고가 없는 우리 동포들이고 연고를 알 수 없는 소수의 뜨내기 광부 일본인도 들어 있는 모양이다. 닛테츠(日鉄)二瀬・遠賀鑛業所는 그 당시 조선인 10,235명이 노동을 하였던 곳이다. 이 중에서 5,680명은 도주하였고, 988명은 불잡혀 돌아왔다고 한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후쿠오카(福岡)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日鉄二瀬・遠賀炭鉱所			
사망원인	도주나 고문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후쿠오카(福岡)현 재일한인 18,390명(재일 제주인 330명)			
일시·장소	2018년 11월 9일(금) 마을 무연고 묘지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비(碑) 개요	비(碑) 명칭	無窮花堂(코리아強制連行犠牲者納骨堂)		
	건립 시기	2000년 12월	건립 장소	飯塚靈園
	소재지	후쿠오카(福岡)현 이이즈카(飯塚)시 圧司 1594		
	건립자	재일지쿠호코리아 강제연행 희생자 추도비 건립 실행위원회		
	건립 목적	지쿠호(筑穂)지역은 15만 명이 넘는 조선인들이 탄광으로 끌려와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곳이다. 지쿠호의 발전과 일본의 근대화는 조선인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다. 지금도 지쿠호의 여러 곳에는 많은 유골이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유골을 수집하여 납골당에 안치하여 추도하자”고 하는 호소에 공감한 사람들이 정재(淨財)를 내고 각 지자체의 협력을 얻어서 납골당(무궁화당)을 건립하였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후쿠오카(福岡)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지쿠호(筑穂)지역 탄광			
사망원인	열악한 대우와 가혹한 강제노동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후쿠오카(福岡)현 재일한인 18,390명(재일 제주인 330명)			
일시·장소	2018년 7월 27일(금) 飯塚靈園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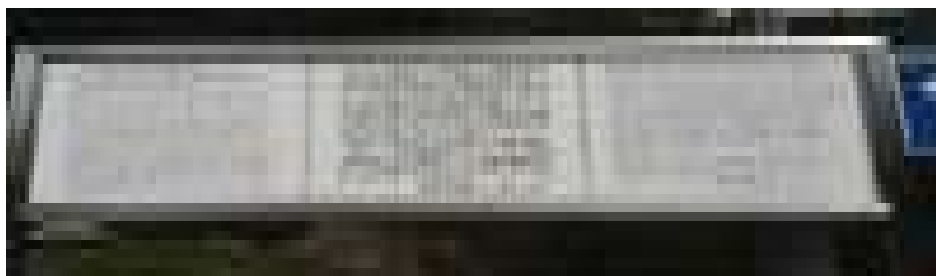
비(碑) 개요	비(碑) 명칭	真岡炭鉱第三坑殉職者慰霊之碑		
	건립 시기	1981년 9월	건립 장소	납골당
	소재지	후쿠오카(福岡)현 이토다쵸(糸田町)		
	건립자	마오카(真岡)탄광 관계자		
	건립 목적	마오카(真岡)탄광에서는 1945년 9월 17일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태풍 정전을 위해 갱내 스위치를 끄려고 입갱한 열여섯 살 조선인 노동자가 위태로워지면서 구출을 향한 일본인 노동자 3명도 함께 희생되었다. 이 비는 1981년 9월 사고에서 죽은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비석 뒤편에는 2009년 9월 부비 '생명·사랑·인권'이 붙었고, 그 경과가 기록되어 있다. 이 비문에는 역사를 새겨두는 소중함과 한 사람의 이름이 밝혀지고 기록되는 것에 대한 역사적 의의,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만나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후쿠오카(福岡)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마오카(真岡)탄광			
사망원인	갱내 사고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후쿠오카(福岡)현 재일한인 18,390명(재일 제주인 330명)			
일시·장소	2018년 7월 30일(월) 마오카(真岡)탄광 납골당			
조사자	고 광 명			

비(碑) 개요	비(碑) 명칭	朝鮮人遭難者慰靈碑		
	건립 시기	1990년 12월	건립 장소	小田山墓地
	소재지	후쿠오카(福岡)현 기타큐슈(北九州)시		
	건립자	시민단체(재일코리안, 뉴커머, 일본인 등)		
	건립 목적	이 비는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된 많은 조선인들이 귀국을 시작했지만 1945년 9월 17일 와카마츠(若松)항에서 목선(60톤)을 타고 조국을 향해 귀국길에 올랐으나 마쿠라자키(枕崎) 태풍을 만나 조난을 당한 조선인들을 위로하고자 세워졌다. 그 당시 마을 앞바다에는 100여구가 넘는 시신들이 밀려와서 이 때 돌아가신 분들(시신)을 대부분 해안가에 묻거나 화장을 했다. 그 중 80여구(시체)가 리어카에 실려 이곳 묘지로 옮겨졌다. 이 묘지는 1981년부터 시작된 시민운동에 의해 1990년 12월 위령비와 안내판을 세우게 되었으며, 해마다 9월에 추도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 ➡ 후쿠오카(福岡)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강제동원으로 탄광 등에서 노동			
사망원인	귀국선 조난으로 익사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후쿠오카(福岡)현 재일한인 18,390명(재일 제주인 330명)			
일시·장소	2018년 7월 31일(화) 小田山墓地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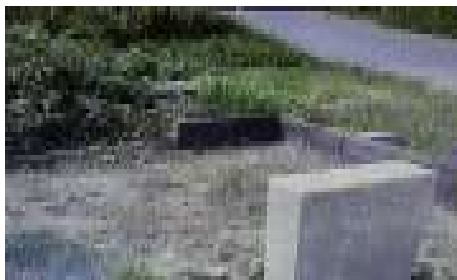
비(碑) 개요	비(碑) 명칭	永生園(在日大韓基督教小倉教会納骨堂)		
	건립 시기	1973년	건립 장소	公營 城山靈園
	소재지	후쿠오카(福岡)현 기타규슈(北九州)시 門司区 大字大里		
	건립자	(故)崔昌華 牧師, 재일대한기독교총회, 고쿠라(小倉)교회, 민단과 한국의 유지, 駐후쿠오카(福岡)대한민국 총영사 등		
	건립 목적	규슈(九州)는 재일조선인의 역사적 배경 특히 강제연행에 의해 강제노동을 당한 탄광과 강제퇴거, 그리고 강제송환을 행한 오무라(大村)수용소가 있다. 희생자들은 일본 식민지 지배 정책에 토지, 재산 등을 잃어버려 부득이 일본으로 일거리를 찾으러 건너오거나 혹은 노동력으로서 강제 연행되어 온 조선 사람들이었다. 영생원(永生園)은 1973년 (故)최창화(崔昌華) 목사가 재일동포 인권차별 문제에 연대하던 탄광 노동을 위해 조선반도에서 강제징용 등으로 끌려와서 불행하게도 사망한 동포 중에 이름과 고향, 나이도 모른 채 탄광 희생자 유골들이 일본의 각 절 등에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분개하여 납골당 건설을 호소하여 여러 뜻 있는 분들의 지원을 받아 만들었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후쿠오카(福岡)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기타규슈(北九州) 지쿠호(筑豊)탄광			
사망원인	갱내 사고나 노동재해(勞災)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후쿠오카(福岡)현 재일한인 18,390명(재일 제주인 330명)			
일시·장소	2017년 7월 6일(목) 公營 城山靈園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비(碑) 개요	비(碑) 명칭	大鶴礦業所殉職者之碑(韓國人傷病沒者之靈位)		
	건립 시기	1958년	건립 장소	光明寺
	소재지	사가(佐賀)현 가라츠(唐津)시 肥前町 入野丙 463		
	건립자	川原浩心 주지스님(淨土宗 莊嚴山 光明寺)		
	건립 목적	오츠루(大鶴)탄광에는 1939년 12월 97명, 1940년 2월 100명 등이 연행되어 온 조선인들이 있었다. 사찰 뒤쪽에는 탄광 광업소에서 노동을 하다 사고나 병으로 사망(51명)한 위령비가 세워져 있다. 비 옆에는 1990년에 세워진 조선인 사망자를 추모하는‘韓國人傷病沒者之靈位’라는 비석이 있다. 이 비에는 1945년 8월까지 조선인 사망자의 계명, 사망 연월일, 성명, 연령 등이 새겨져 있다. 이 절에서는 매년 태평양전쟁 중 조선반도에서 강제연행 등에 의해 도일하여 조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무연불로서 매장된 분들의 공양을 계속하고 있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사가(佐賀)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오츠루(大鶴)炭鉱礦業所			
사망원인	탄광 사고나 질병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사가(佐賀)현 재일한인 848명(재일제주인 21명)			
일시·장소	2018년 8월 16일(목) 光明寺			
조사자	고 광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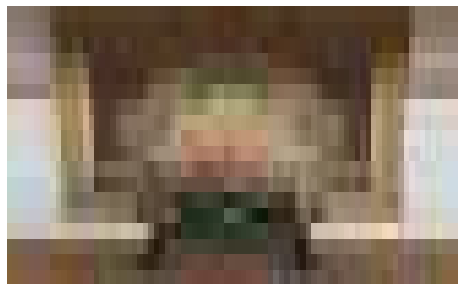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조사

비(碑) 개요	비(碑) 명칭	追悼 長崎原爆朝鮮人犠牲者		
	건립 시기	1979년 8월 9일	건립 장소	나가사키(長崎) 평화공원
	소재지	나가사키(長崎)현 나가사키(長崎)시 平野町 7-8		
	건립자	나가사키(長崎) 재일조선인 인권을 지키는 모임		
	건립 목적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나가사키(長崎)에 한 발의 원자 폭탄이 투하되었다. 나가사키 거리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그 당시 나가사키 한 도시에만 1만 명 이상의 재일조선인이 살고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노동과 징집 등의 이유로 강제 동원되었고 또 다른 일부는 삶을 위한 목적으로 이주하였다. 특히 조선인들은 조선소, 제강소, 전기, 병기공장과 도로, 방공호, 군수공장 등 토목 공사장에서 강제노동을 당하였다. 이 비는 강제연행으로 중노동에 시달리다 피폭사한 조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 피해자의 아픔을 마음에 새기며 추도비를 건립하였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나가사키(長崎)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미즈비시(三菱)계열의 하시마(端島), 다카시마(高島), 사키토(崎戸)탄광, 니테츠(日鉄)광업소			
사망원인	나가사키(長崎) 원폭 피해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나가사키(長崎)현 재일한인 1,276명(재일 제주인 43명)			
일시·장소	2017년 7월 3일(월) 나가사키(長崎) 평화공원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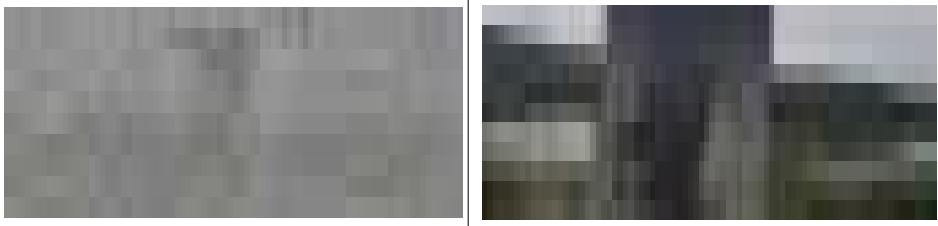
비(碑) 개요	비(碑) 명칭	不戰平和之塔 建設労働者職人 原爆殉難者慰霊		
	건립 시기	1987년 8월 8일	건립 장소	나가사키(長崎) 평화공원
	소재지	나가사키(長崎)현 나가사키(長崎)시 平野町 7-8		
	건립자	전국건설노동조합총연합 나가사키(長崎)현 건설 산업노동조합		
	건립 목적	약 2만 명의 조선 사람들이 피폭하였으며 그 중 1만여 명이 목사하였다. 간신히 살아남은 조선인들도 몸과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받았으며 많은 조선인 피폭자들이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다. 피폭 43년을 맞이하여 전국 건설노동자 종업원들의 합의에 의해 원폭 순난자를 위로하고 평화와 핵 폐기를 위해 불전평화(不戰平和)의 탑을 건립하였다. 태평양전쟁 말기 많은 건설노동자 종업원들은 징용으로 끌려와서 마을의 강제소개로 건물 철거작업이나 어뢰정 만들기 등 강제 취로를 당하는 중에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나가사키(長崎)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건물 철거작업이나 어뢰정 만들기 등			
사망원인	나가사키(長崎) 원폭 피해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나가사키(長崎)현 재일한인 1,276명(재일 제주인 43명)			
일시·장소	2017년 7월 3일(월) 나가사키(長崎) 평화공원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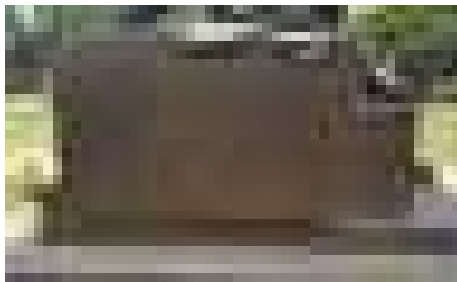
비(碑) 개요	비(碑) 명칭	南越名海難者無緣仙之碑		
	건립 시기	1986년 6월	건립 장소	바다 해안가
	소재지	나가사키(長崎)현 長崎市 野母崎半島		
	건립자	나가사키(長崎) 재일조선인 인권을 지키는 모임		
	건립 목적	전시 중 미츠비시(三菱)하시마(端島) 탄광에 강제 연행되어 가혹한 노동을 당한 조선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해안을 향해 뛰어들었는데, 도중에 힘이 역부족하여 익사하였다. 그 시신이 南越名の 해안에 표류해서 당시 구약소가 행려병인(行旅病人)으로 매장하였다. 또 이들은 1945년경 해안에 표류한 시신 5~6기를 해안가 근처에 매장했다. 조선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하시마탄광 노동자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증언이 있다. 1986년 발굴이 이뤄졌는데 그 결과 4기의 시신이 확인되었다. 수습된 시신은 화장되어 위령비 밑에 개장되어 있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나가사키(長崎)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하시마(端島)탄광			
사망원인	익사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나가사키(長崎)현 재일한인 1,276명(재일 제주인 43명)			
일시·장소	2018년 8월 15일(수) 바다 해안가			
조사자	태풍으로 인해 미조사(인터넷 자료 참조하여 작성)			

비(碑) 개요	비(碑) 명칭	供養塔(三菱高島炭鉱慰靈碑)		
	건립 시기	2016년(폐쇄)	건립 장소	高嶋神社
	소재지	나가사키(長崎)현 나가사키(長崎)시 高島町		
	건립자	三菱高島炭鉱 관계자		
	건립 목적	공양탑은 다카시마(高島)탄광에서 강제적으로 노역하다 사망한 조선인들의 유골 매장지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위패가 불타 사라진 상태라 개개인의 인적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이 탑에는 다카시마와 하시마탄광에서 노역한 조선인 사망자의 유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섬에는 약 4만 명의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되어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채 탄광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렸다. 45도 이상의 갱도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많은 조선인들이 사망했다. 현재 유골은 영구 추모 공양을 한 뒤 인근 사찰인 곤소지(金松寺)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나가사키(長崎)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三菱高島炭鉱			
사망원인	탄광 강제노역(영양부족, 질병, 탄광사고 등)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나가사키(長崎)현 재일한인 1,276명(재일 제주인 43명)			
일시·장소	2018년 8월 15일(수) 高嶋神社			
조사자	고 광 명			

비(碑) 개요	비(碑) 명칭	大韓民人慰靈碑		
	건립 시기	1967년(1992년)	건립 장소	이키(壱岐)섬 해안가
	소재지	나가사키(長崎)현 이키(壱岐)시 芦辺町 芦辺浦清石ヶ浜		
	건립자	(株)大和屋電気		
	건립 목적	해방 후 조선인들은 1945년 11월 스스로 배를 마련해 대한 해협을 건너려고 항해하던 중 아시배(芦辺)항에 기항했는데 가을에 큰 태풍이 발생해 조난당했다. 배는 난파되고 희생된 한국인들(160명)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의 이키(壱岐)와 츠시마(対馬)섬으로 떠내려 왔고, 이후 수습된 유해는 2003년 사이타마(埼玉)현 사찰의 곤쥔인(金承院)에 안치되어 있었다.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강제 징용자와 가족 등 한국인 유골(131위)을 인계받아 텐토쿠지(天徳寺)에 안치해 놓았다. 이 비는 한일 양국의 우호증진 실현과 인류애에 넘치는 박애정신을 후세에 남기기 위해 건립했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나가사키(長崎)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탄광			
사망원인	태풍으로 조난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나가사키(長崎)현 재일한인 1,276명(재일 제주인 43명)			
일시·장소	2018년 8월 17일(금) 이키(壱岐)섬 해안가			
조사자	고 광 명			

비(碑) 개요	비(碑) 명칭	不二之塔		
	건립 시기	1972년	건립 장소	正法寺
	소재지	구마모토(熊本)현 아라오(荒尾)시		
	건립자	아카보시 요시히로(赤星善弘) 명예 주지스님		
	건립 목적	이 탑은 명예주지가 미이케(三池)탄광으로 강제 연행되어 사망한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고자 탁발로 성금을 모금하여 경내에 세웠다. 이 지역에는 ‘달이 떴다 떴다 미이케탄광 위에 떴다’라는 ‘탄광 민요’로 유명한 ‘미즈이미이케(三井三池)탄광’이 있었다. 이곳에 강제 연행된 조선인들은 5,000여 명으로 작업 중 사고나 혹사 등으로 사망하였다. 스님은 “일본은 전쟁의 부(負)의 역사를 가급적 건드리지 않고 일본의 근대화를 성취한 위대한 역사만을 전하려 든다. 하지만 가해자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참회하는 마음이다. 그런 연후에 상대가 용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우호친선’이 성립된다. 그런 참회의 마음을 담아 공양탑을 세웠다”고 한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구마모토(熊本)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미즈이미이케(三井三池)탄광			
사망원인	작업 중 사고나 혹사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구마모토(熊本)현 재일한인 1,122명(재일제주인 50명)			
일시·장소	2018년 8월 14일(화) 正法寺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비(碑) 개요	비(碑) 명칭	弔魂碑		
	건립 시기	미상	건립 장소	마을 공동묘지
	소재지	구마모토(熊本)현 야즈시로(八代)시 日奈久上西町 海岸沿い		
	건립자	야즈시로(八代)시 주민들		
	건립 목적	이 조혼비는 鹿兒島本線(海岸線)건설공사에서 폭발사고로 인해 사망한 노동자(조선인 포함)을 위로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이 건립하였다고 한다. 몇 년 전만해도 이곳에 가족이나 마을 주민들이 분향하러 왔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거의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니시아마(西山) 스님(善立寺)은 그 당시 비를 건립할 때 의례에 참석하여 행사를 주관한 적이 있다고 했다. 최근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가와베(川辺, 81세)씨가 물과 꽃을 가끔 봉양한다고 했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구마모토(熊本)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鹿兒島本線(海岸線)工事			
사망원인	철도건설 공사 중 폭발사고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구마모토(熊本)현 재일한인 1,122명(재일제주인 50명)			
일시·장소	2018년 11월 8일(목) 마을 공동묘지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비(碑) 개요	비(碑) 명칭	ムッチャン平和像		
	건립 시기	1983년 8월	건립 장소	平和市民公園
	소재지	오이타(大分)현 오이타(大分)시 大字牧七歩 22		
	건립자	平和を願う多くの人々		
	건립 목적	요코하마(横浜)에서 부모님과 동생을 전재(戰災)로 여의고, 큰 아주머니를 의지해 소개하고 있던 소녀(짱)는 결핵을 앓아 굶주림과 고독의 고통 속에 1945년 종전 직후 니시오이타(西大分)역 인근 방공호 안에서 홀로 외롭게 죽어갔다고 한다. 전쟁의 비화는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평화를 바라는 많은 정재에 따라“ムッチャン평화상(村上病人)”이 건립·제막되었다. 이 비는 평화에 대한 맹세를 새롭게 함과 동시에 평화상이 영구 평화의 상징으로 모두에게 사랑받고, 그리고 평화의 고리가 더욱 넓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다시 전쟁에 대한 비참하고 참혹한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평화에 대해 맹세하는 의미에서 건립하였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오이타(大分)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아시아태평양 전쟁			
사망원인	전재(戰災)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오이타(大分)현 재일한인 2,565명(재일제주인 64명)			
일시·장소	2018년 8월 18일(토) 平和市民公園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비(碑) 개요	비(碑) 명칭	鎮魂(宮崎特攻基地慰靈碑)		
	건립 시기	1983년	건립 장소	미야자키(宮崎)공항
	소재지	미야자키(宮崎)현 미야자키(宮崎)시 本郷北方樋渡		
	건립자	宮崎特攻基地慰靈碑奉賛会		
	건립 목적	이 비는 1980년 宮崎特攻基地慰靈碑建立期成同盟회가 생긴 후 3년 뒤 1983년 진혼의 비가 완성되었으며, 1998년 묘비명(墓碑銘)이 건립되었다. 매년 4월 첫째 일요일에 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미야자키(宮崎)특공기지(赤江海軍飛行場)에서는 은하특공기(銀河特攻機) 47대, 탑승원 140명과 육해공격·뇌격작전(陸海攻撃・雷撃作戦) 탑승원 605명이 출격했으며, 진혼비 외에 모명비(慕銘碑)가 건립되어 있다. 가미카제 특별공격대의 전령이 된 후 시키시마대(敷島隊, 戦艦)는 세계에서 최초의 인간폭탄이 되어, 1944년 10월 25일 국가의 영원한 대의에 순종해 세계 영구평화의 초석이 됐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미야자키(宮崎)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宮崎特攻基地 등 비행장 건설공사			
사망원인	육해 공격·뇌격작전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미야자키(宮崎)현 재일한인 639명(재일제주인 25명)			
일시·장소	2018년 8월 13일(월) 미야자키(宮崎)공항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비(碑) 개요	비(碑) 명칭	外國人納骨堂		
	건립 시기	1962년 4월	건립 장소	綠山墓園
	소재지	가고시마(鹿児島)현 가노야(鹿屋)시 共栄町		
	건립자	가노야(鹿屋)시		
	건립 목적	이 지역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가노야(鹿屋)해군항공기지가 있던 곳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비행장 건설(활주로) 노동자로 동원되어 강제노역을 당하였다. 인근에 거주하는 할아버지에 의하면 그 당시 많은 조선인들이 이곳에 살았으며,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난 적이 있다고 했다. 최근 자위대 가노야(鹿屋)항공기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가미카제’ (神風) 공격으로 유명했던 제로센 전투기(零式艦上戦闘機) 복원 비행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외국인 납골당에는 조선인 유골 80여기가 납골되어 있었지만 현재 한국으로 반환되어 남아 있는 것은 20여기 정도에 불과하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가고시마(鹿児島)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가노야(鹿屋)비행장 건설공사			
사망원인	가혹한 노동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가고시마(鹿児島)현 재일한인 555명(재일제주인 42명)			
일시·장소	2018년 8월 11일(토) 綠山墓園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비(碑) 개요	비(碑) 명칭	知覧の朝鮮半島出身特攻隊員慰靈哥碑 (アリランの歌声とほく母の国に念ひ残して散りし花花)		
	건립 시기	미상	건립 장소	知覧平和公園
	소재지	가고시마(鹿児島)현 南さつま市 世田高橋		
	건립자	시민단체		
	건립 목적	卓(光山)庚鉉 소위는 모두 다 죽고 없어진다고 하며 울면서 ‘아리랑’을 불렀다. 소위는 노래를 마치자 주머니에서 조선 천으로 짠 노란 줄무늬가 들어간 지갑을 꺼내 붓으로 “贈爲鳥浜とめ殿 光山少尉”라고 썼다. 아주머니, 큰 신세를 졌습니다. 신세를 진다고 해서 이것밖에 없습니다.“아, 그렇군요. 하지만 저의 형체(形體)라고 생각해서 받아 주세요.”다음날 새벽, 소매에 일장기를 꿰매고 있던 소위는 배웅하러 온 토메(とめ)씨와 악수를 나누고, 남쪽 바다로 출격한 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 노래비(哥碑)는 조선반도 출신자 특공용사 11명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세운 것이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가고시마(鹿児島)현 등 규슈(九州)지방			
강제동원 현장	特攻隊(知覧飛行場)			
사망원인	오키나와 바다에서 특공대원으로 전사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가고시마(鹿児島)현 재일한인 555명(재일제주인 42명)			
일시·장소	2018년 8월 12일(일) 知覧平和公園			
조사자	고 광 명			

비(碑) 개요	비(碑) 명칭	韓国人慰靈塔		
	건립 시기	1975년 8월	건립 장소	오키나와 평화기념 공원
	소재지	오키나와(沖繩)현 이토만(糸満)시 마부미(摩文) 614-1		
	건립자	재일한인(민단)		
	건립 목적	이곳에는 오키나와 전투에서 전사한 한국인의 영령을 모시고 있는 한국인 위령비가 있다. 오키나와에는 다수의 한국인들이 강제 연행되어 비행장 건설 등 가혹한 노동과 종군위안부의 역할도 했다고 한다. 이 전투에서는 1만 명 이상의 한반도 출신자들이 사망 또는 학대당했다고 한다. 이 비는 조국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선인들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한국의 전국 각지에서 가져온 돌로 쌓아 올려 건립되었다. 화살표는 한국을 향하고 있으며, 매년 가을 농경기가 끝나갈 때 쯤 한국 전통자 위령대축제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오키나와(沖繩)현 등 오키나와(沖繩)지방			
강제동원 현장	비행장 건설공사			
사망원인	오키나와 전투와 가혹한 노동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오키나와(沖繩)현 재일한인 772명(재일 제주인 102명)			
일시·장소	2018년 6월 29일(금) 오키나와 평화기념 공원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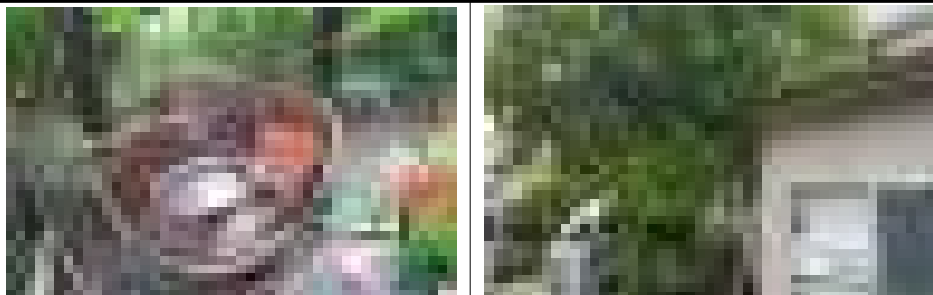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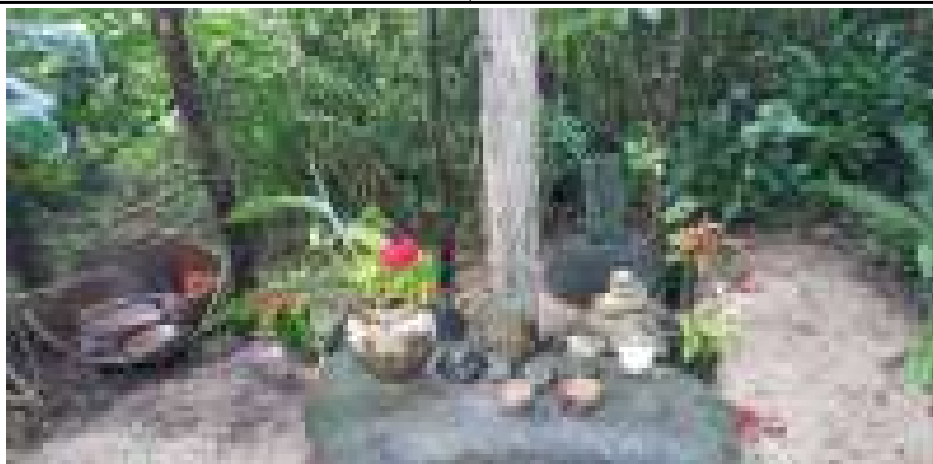
비(碑) 개요	비(碑) 명칭	平和の礎(沖縄戦 朝鮮人刻銘碑)		
	건립 시기	1995년 6월	건립 장소	오키나와 평화기념 공원
	소재지	오키나와(沖縄)현 이토만(糸満)시 마부니(摩文) 614-1		
	건립자	오키나와(沖縄)현		
	건립 목적	태평양 전쟁 · 오키나와 전투의 종결 50주년을 기념하여 오키나와의 역사와 풍토 속에서 자라난 평화의 마음을 보다 널리 전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여 국적과 신분을 불문하고 오키나와 전투에서 생명을 잃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 평화의 초석을 만들었다. 이곳에는 2009년 현재 오키나와현 149,171명, 현 외 77,114명, 미국 14,009명, 영국(UK) 82명, 대만 34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82명, 대한민국 364명 등 240,856명의 이름을 새긴 각명비가 세워져 있다. 이 중에 제주도 출신 일부가 각명되어 있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오키나와(沖縄)현 등 오키나와(沖縄)지방			
강제동원 현장	오키나와전(沖縄戦)			
사망원인	오키나와전(沖縄戦)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오키나와(沖縄)현 재일한인 772명(재일 제주인 102명)			
일시·장소	2018년 6월 29일(금) 오키나와 평화기념 공원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비(碑) 개요	비(碑) 명칭	靑丘の搭		
	건립 시기	1971년	건립 장소	카가즈(嘉数)공원
	소재지	오키나와(沖縄)현 기노완(宜野湾)시 카가즈(嘉数)공원		
	건립자	일본 민주동지회(松本明重)		
	건립 목적	미군과 일본군은 이곳에서 오키나와전 초기 최대 규모의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카가즈고지(嘉数高地)가 함락된 다음에는 마에다고지(前田高地)를 공격했다. 이 비는 오키나와전에서 사망한 한민족 출신자의 위령을 기리는 탑이다. 한민족 출신의 군인·군속 386명이 오키나와 지역에서 생명을 잃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위령탑은 조선에서 강제 연행되어 탄약 운반과 진지 구축 작업 등에 동원되었다가 전사한 조선인 군인·군속을 위한 탑이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下関)➡오키나와(沖縄)현 등 오키나와(沖縄)지방			
강제노동 현장	오키나와전(沖縄戦) 군인·군속			
사망원인	오키나와전(沖縄戦)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오키나와(沖縄)현 재일한인 772명(재일 제주인 102명)			
일시·장소	2018년 7월 2일(월) 카가즈(嘉数)공원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비(碑) 개요	비(碑) 명칭	恨の碑		
	건립 시기	2006년 5월	건립 장소	마을 공동묘지
	소재지	오키나와(沖繩)현 요미탄손(読谷村) 瀬名波 578-1		
	건립자	NPO법인 오키나와 한의 비(恨之碑) 모임		
	건립 목적	1945년 3월말 게라마제도(慶良間諸島)를 함락한 미군은 4월 요미탄손 카데나초(嘉手納町)에 상륙했다. 오키나와는 지형이 변형될 만큼 극심한 폭격을 받았으며, 치열한 전투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일본군의 무모한 작전에 수많은 주민들이 휘말렸으며 강제 집단자결을 당하기도 했다. 1996년 4월 일본군 유수명부(留守名簿)를 통해 경상북도에서 오키나와로 끌려간 조선인 3,000여 명의 기록을 찾아냈다. 오키나와 요미탄손(読谷村)에는 2006년 5월 13일 아시아태평양전쟁 말기 오키나와전(沖繩戦)으로 인해 피징발 조선반도 출신자 한의 비가 세워졌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오키나와(沖繩)현 등 오키나와(沖繩)지방			
강제동원 현장	오키나와전(沖繩戦) 군속			
사망원인	치열한 오키나와전(沖繩戦)으로 사망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오키나와(沖繩)현 재일한인 772명(재일 제주인 102명)			
일시·장소	2018년 7월 2일(월) 마을 공동묘지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비(碑) 개요	비(碑) 명칭	アリラン慰霊のモニュメント		
	건립 시기	1997년 10월	건립 장소	전망대 언덕(산중턱)
	소재지	오키나와(沖縄)현 시마지리군(島尻郡) 渡嘉敷村		
	건립자	도카시키(渡嘉敷)섬의 주민들과 재일한인		
	건립 목적	이 섬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7명의 조선인 성노예가 있었다고 한다. 아리랑 위령의 기념비는 1997년 10월에 건립되었는데, 사람들이 모인 참배 장소(拜所)에서 마음의 공유가 되어 전반적으로 생명을 표현하는 큰 소용돌이가 되고 있다. 소용돌이의 중심이 된 이곳에는 생명이 되살아난다는‘환생(還生)’이란 단어가 새겨졌다. 기념비의 토지는 취지에 찬동한 마을 사람들이 제공했다. 이 비는 일본군에 의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 끌려온 한국인 성노예(중군위안부) 할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해 섬의 주민들과 재일한인들의 도움으로 조성되었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오키나와➡도카시키(渡嘉敷)섬			
강제동원 현장	일본군 위안부			
사망원인	오키나와전(沖縄戦)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오키나와(沖縄)현 재일한인 772명(재일 제주인 102명)			
일시·장소	2018년 7월 3일(화) 渡嘉敷島 전망대 언덕(산중턱)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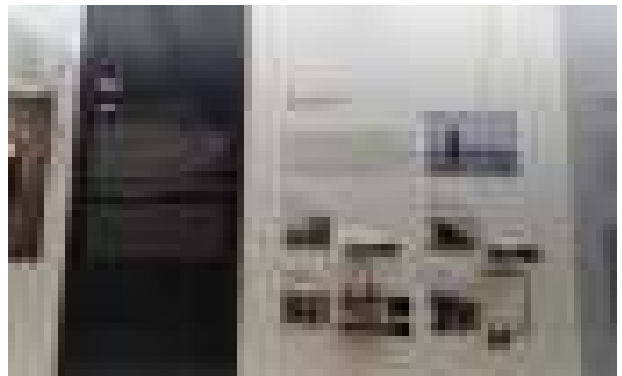
비(碑) 개요	비(碑) 명칭	アリランの碑		
	건립 시기	2008년 9월	건립 장소	위안소 터
	소재지	오키나와(沖縄)현 미야코지마(宮古島)시		
	건립자	미야코 일본군 위안부 추모비 건립위원회		
	건립 목적	일본군은 아시아태평양 전쟁 때 일본 식민지 여성들을 강제 연행해 위안부가 되기를 강요했다. 여성들은 먼 이국땅에서 무참히 인격과 목숨을 짓밟혔다. 그 당시 오키나와에는 3만 명의 일본군이 주둔하여 130개소의 위안소가 있었는데 미야코지마(宮古島)에는 16~17개소의 일본군 위안소가 있었다고 한다. 조선에서 끌려온 여성들이 츠카(つか)우물에서 빨래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서 잠시 쉬던 모습을 기억한다는 증언이 있다. 이 비에는 비참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후세에 전하고 싶다.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평화가 봄날같이 지구를 보듬을 전쟁 없는 날이 오기를 염원한다고 새겨져 있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 ➡ 오키나와 ➡ 미야코지마(宮古島)			
강제동원 현장	일본군 위안부			
사망원인	오키나와전(沖縄戦)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오키나와(沖縄)현 재일한인 772명(재일제주인 102명)			
일시·장소	2018년 7월 4일(수) 宮古島 위안소 터(일본 자위대 주둔기지 정문에서 남쪽 방향)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비(碑) 개요	비(碑) 명칭	留魂之碑		
	건립 시기	미상	건립 장소	개인주택(농지)
	소재지	오키나와(沖繩)현 이시가키(石垣)시 大川水名 667		
	건립자	太田静男		
	건립 목적	조선인들은 이시가키(石垣)섬에서 비행장 건설공사 노동자로 작업을 했다. 이 외에도 조선인들은 다이너마이트로 암벽 부수기, 나무로 바다를 연결하는 삼바리(군용) 작업도 했다. 마을 부인회에서는 식사(식량)를 제공했으며, 조선인들과는 사이가 좋은 편이었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혼련(제식)이 끝나면 작업하러 갔다. 그 당시 조선인 군속은 20대 후반, 일반 군속은 40대로 연령 차이가 있었다. 오오타 시즈오(太田静男)는 바다에 항아리가 떠있는 것을 갖고 왔는데 조선인 것으로 인식하여 이들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자기 집 농지에 목비를 세워 매년 추모하고 있다고 한다.		
이동경로	시모노세키 ➡ 오키나와 ➡ 이시가키지마(石垣島)			
강제동원 현장	오키나와전(沖繩戰) 군부·위안부			
사망원인	오키나와전(沖繩戰)			
비문				
사진				
기타	2012년 기준 오키나와(沖繩)현 재일한인 772명(재일제주인 102명)			
일시·장소	2018년 7월 6일(금) 太田静男 주택			
조사자	고 광 명, 고 병 수			

현지조사 사진 자료



〈사진 1〉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사진 2〉 일본 강제동원 작업장



〈사진 3〉 군합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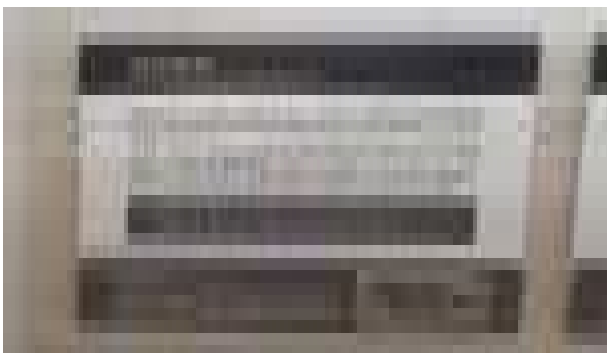
〈사진 4〉 일제 강제동원 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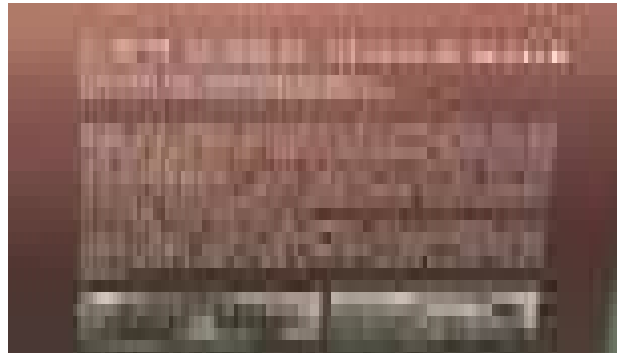
〈사진 5〉 군인동원



〈사진 6〉 노무자 및 군무원 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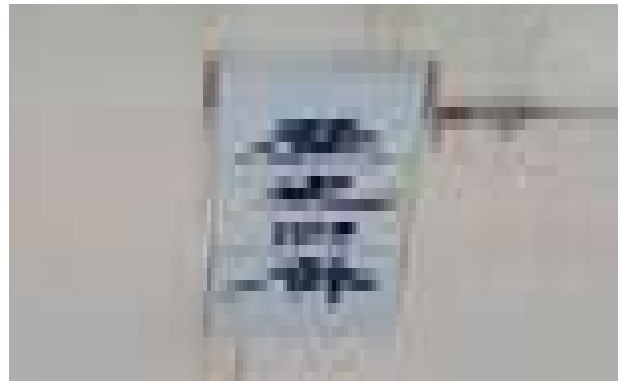
〈사진 7〉 성(性) 동원



〈사진 8〉 노동력 강제동원



〈사진 9〉 이이즈카영원(飯塚靈園)



〈사진 10〉 이이즈카영원(飯塚靈園)



〈사진 11〉 관음사(觀音寺)
〔탄광노동자 유골 일시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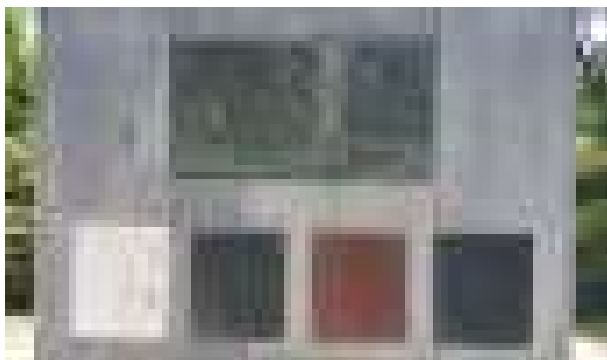
〈사진 12〉 관음사(觀音寺)
〔탄광노동자 유골 일시 보관〕



〈사진 13〉 오무타(大牟田) 徴用犠牲者慰靈碑



〈사진 14〉 징용희생자 위령제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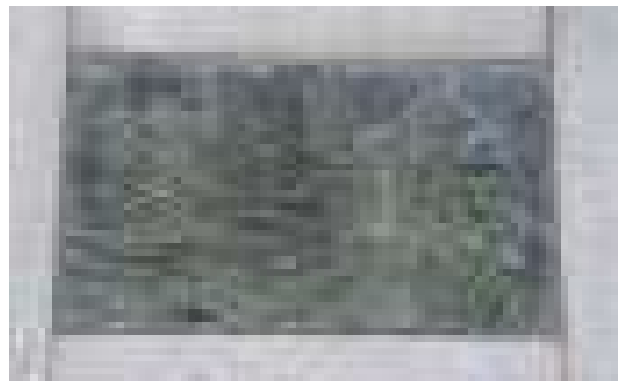
〈사진 15〉 炭鉱犠牲者復権の塔



〈사진 16〉 炭鉱犠牲者復権の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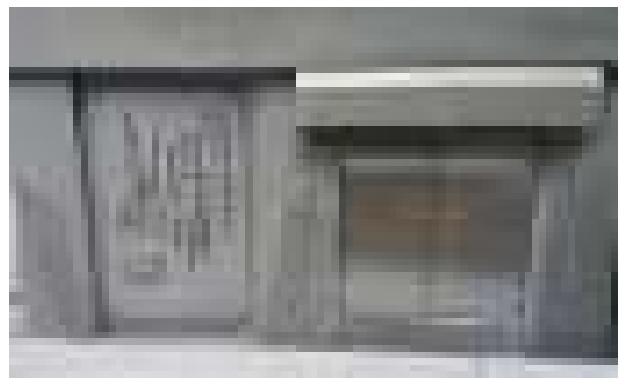
〈사진 17〉 炭鉱犠牲者復権の塔



〈사진 18〉 炭鉱犠牲者復権の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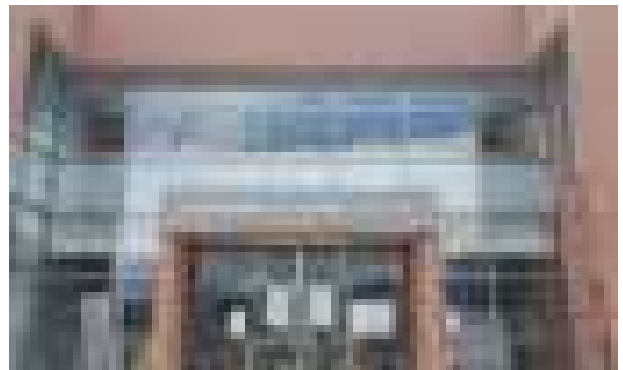
〈사진 19〉 松岩菩提(古河目尾炭鉱)



〈사진 20〉 松岩菩提(남골당)



〈사진 21〉 松岩菩提(비석들)



〈사진 22〉 福智町図書館歴史資料館



〈사진 23〉 朝鮮人帰国船遭難者(위령비 표지석)



〈사진 24〉 朝鮮人帰国船遭難者(한반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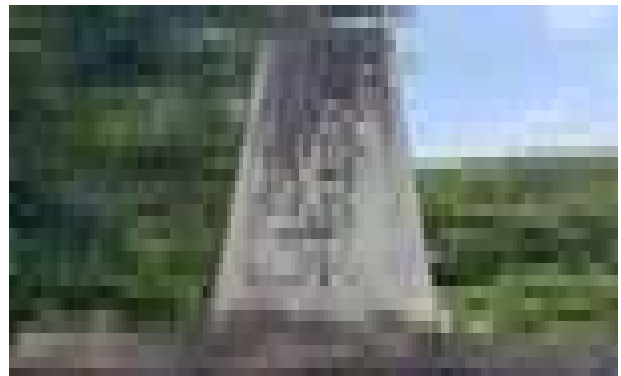
〈사진 25〉 法光寺(朝鮮人炭鉱殉職者之碑)



〈사진 26〉 法光寺(朝鮮人炭鉱殉職者之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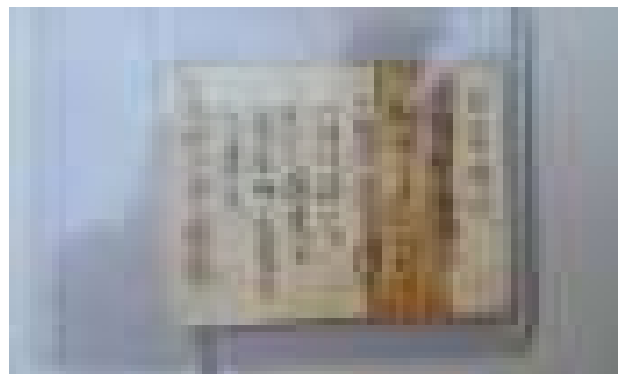
〈사진 27〉 法光寺(横嶋炭坑殉職者之碑)



〈사진 28〉 法光寺(横嶋炭坑殉職者之碑)



〈사진 29〉 공제조합(역사의 증언자 裴東錄 모친)



〈사진 30〉 공제조합 뒤면(裴東錄 모친)



〈사진 31〉 鹿屋航空基地史料館(표지석)



〈사진 32〉 鹿屋航空基地史料館(건물)



〈사진 33〉 지란(知覽)特攻平和会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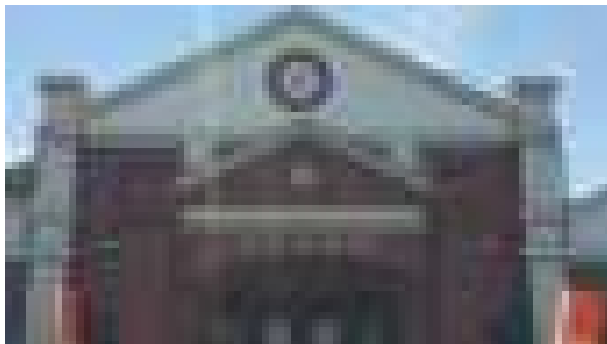
〈사진 34〉 지란(知覽)特攻平和会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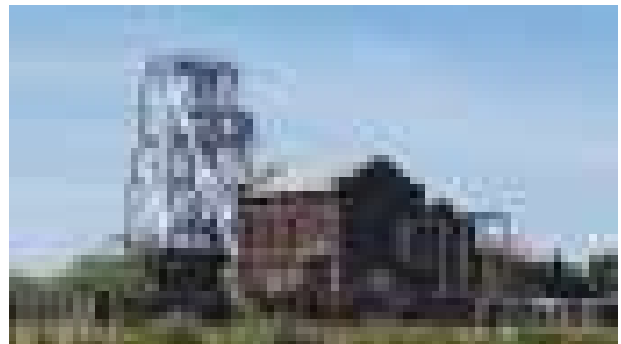
〈사진 35〉 宮崎海軍航空隊之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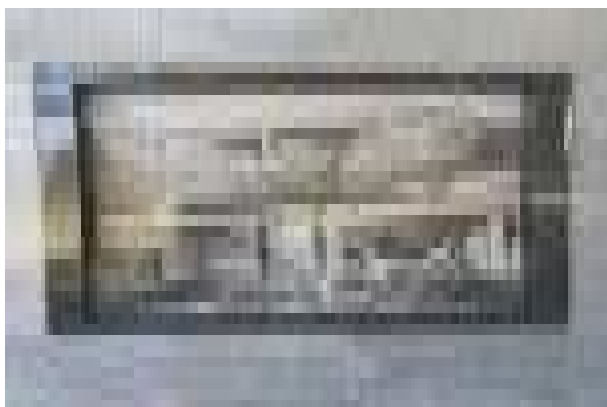
〈사진 36〉 宮崎特攻基地慰靈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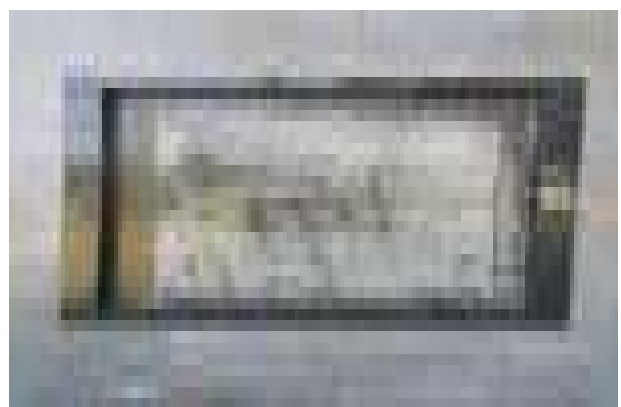
〈사진 37〉 아라오(荒尾)万田炭鉱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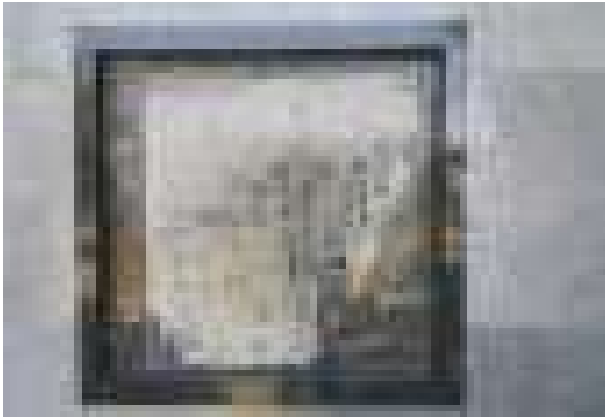
〈사진 38〉 아라오(荒尾)万田炭鉱館



〈사진 39〉 馬渡第一公園(三井三池炭鉱·收容所跡)



〈사진 40〉 馬渡第一公園(三井三池炭鉱·收容所跡)



〈사진 41〉 馬渡第一公園(三井三池炭鉱収容所跡)



〈사진 42〉 長崎市 高島에서 바라본 군함도 모습



〈사진 43〉 나가사키(長崎) 石炭資料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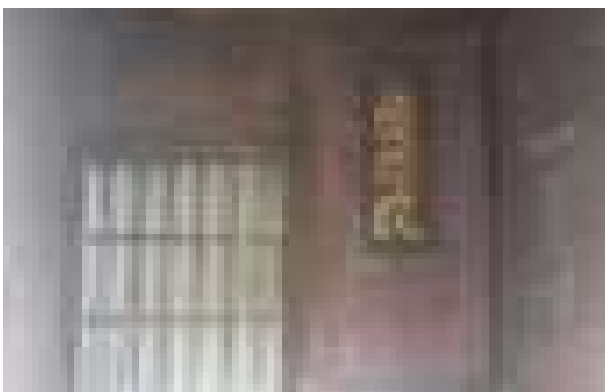
〈사진 44〉 供養塔(구)이 있던 공동묘지



〈사진 45〉 이키(壱岐)시 천덕사(天徳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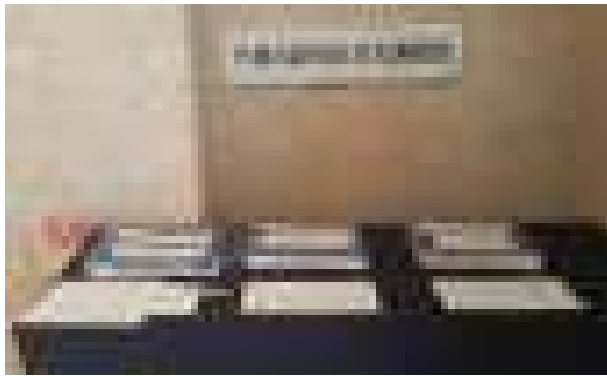
〈사진 46〉 鹿児島本線(海岸線)터널 공사



〈사진 47〉 경상원(慶尙院)



〈사진 48〉 경상원(慶尙院)



〈사진 49〉 평화의 초석(刻銘者名簿)



〈사 진 50〉 韓國人慰靈塔(기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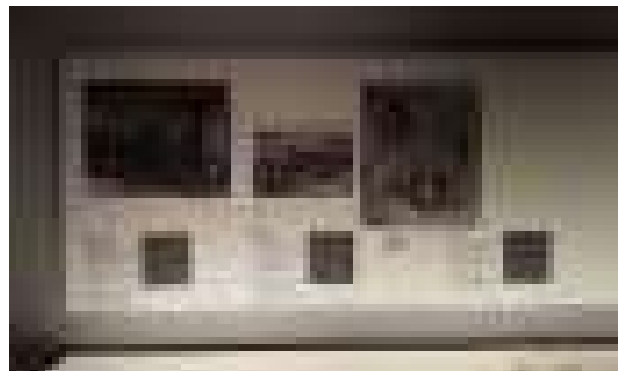
〈사진 51〉 전국에서 가져온 돌맹이(표지석)



〈사진 52〉 제주도에서 가져온 돌맹이(추정)



〈사 진 53〉 하에바루(南風原)陸軍病院壕



〈사진 54〉 하에바루(南風原)陸軍病院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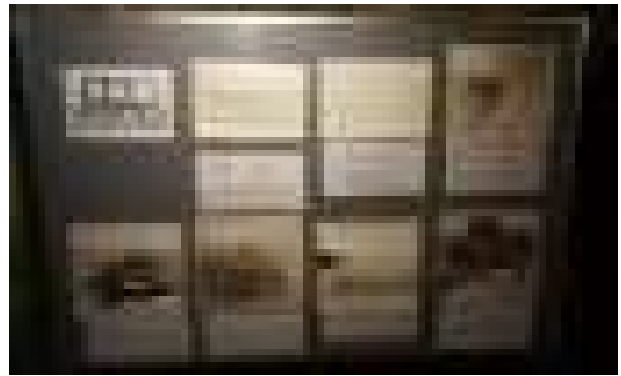
〈사 진 55〉 하에바루(南風原)陸軍病院壕 입구



〈사 진 56〉 南風原陸軍病院壕(천정에 새긴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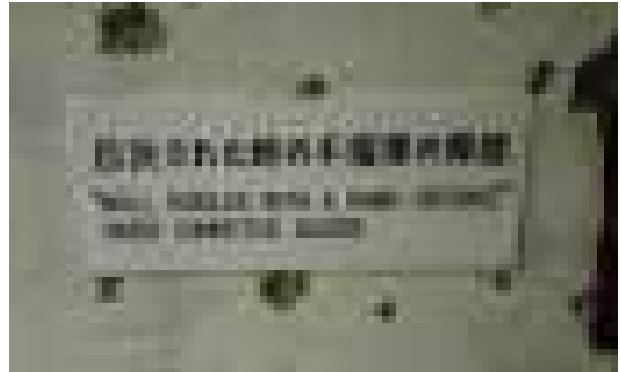
〈사진 57〉 旧海軍司令部壕 입구



〈사진 58〉 旧海軍司令部壕(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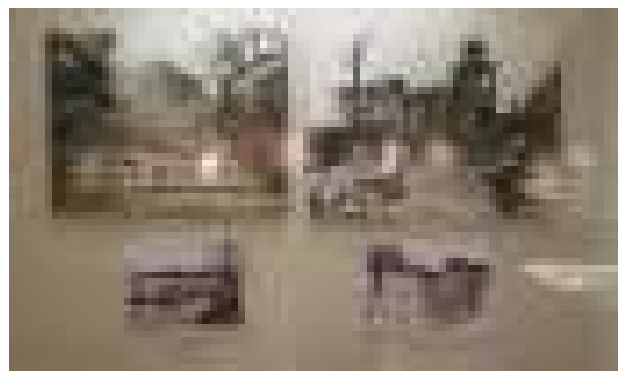
〈사진 59〉 旧海軍司令部壕 내부



〈사진 60〉 자결 당시 수류탄 흔적



〈사진 61〉 나하(那覇)시 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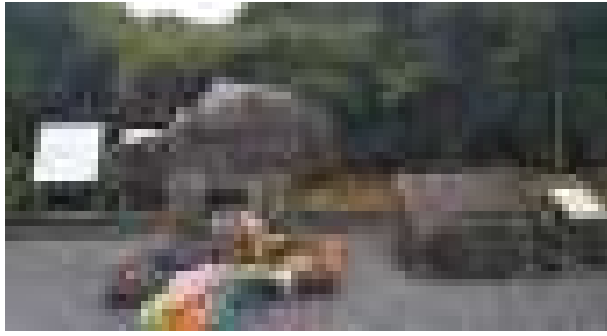
〈사진 62〉 나하(那覇)시 역사박물관(사진)



〈사진 63〉 恨の碑에 놓고 간 한국 지폐



〈사진 64〉 요미탄촌(読谷村) 恨の碑 비문



〈사진 65〉 도카시키키지마(渡嘉敷島)集团自決跡地



〈사진 66〉 도카시키키지마(渡嘉敷島)지하호 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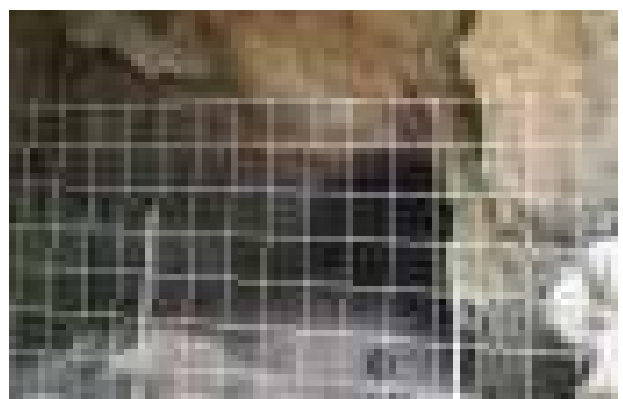
〈사진 67〉 도카시키키지마(渡嘉敷島) 위안소 건물(현 존)



〈사진 68〉 이시가키지마(石垣島) 위안소 건물(현 존)



〈사진 69〉 八重山平和祈念館(石垣島)



〈사진 70〉 戦争遺跡地(石垣島)



〈사진 71〉 이이즈카영 원(飯塚靈園) 위령제
〔민단 후쿠오카(福岡)현 지방본부 단장 참석〕



〈사진 72〉 松岩菩提(古河目尾炭鉱) 위령제
〔민단 후쿠오카(福岡)현 지방본부 단장 참석〕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명부(규슈·오키나와)

□ 후쿠오카(福岡)현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竹内康人編)

이름	본적지	생년월일	배치일자	기업명(사업소)	사망일	나이	사인
高原斗錫	제주도 한림 신창 289	1922.4.20		船司・16魚生丸・若松沖	1945.4.25		戰死
春山根坊	제주도 애월 금덕 1987	1920.1.13		勇武丸 福岡方面	1945.6.22		戰死
金井洪太	제주도 조천 북촌 1359	1927.4.2		船舶司・門司大里沖	1945.7.19		戰死
許午生	제주도 대정 구역 813	1905.6.24		三菱飯塚炭鉱	1941.7.11	34	勞災
高山大潤	제주도 남원 위미 3540	1918.5.18		三菱飯塚炭鉱	1945.4.29		
高島利鎬	제주도 서귀 서흥 99	1883.4.10		貝島大之浦炭鉱	1944.5.13		
金辰河	제주도 구좌 평대	1891.10.8		麻生山内炭鉱	1940.9.28		坑内
申達玉	제주도 신우 윤신	1901.1.10		麻生上三緒	1944.4.3		
金基三	제주도 제주 영평 2006	1898.3.5		東邦筑紫炭鉱	1940.7.23		
西原龍範	제주도 남원 1677-2			山田市・炭鉱	1945.6.28		
高山仁浩	제주도 성산 삼달 1209			山田市・炭鉱	1945.7.3		

자료 : [그림 III-1] 과 동일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殉職産業人名簿)

이름	출생년도	본적지	사업소 (강제동원 년월)	나이	유족	관계
許午生	1905.6.24	濟州島 大靜面 九億里 813	三菱飯塚鑛業所 (1940년 7월)	34	許丙吉	父

자료 : 『殉職産業人名簿』 .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조사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국가기록원)

이름	출생년도	본적지	강제동원지	명부
김관식	1913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오용성	1918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전천군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오묘생	1915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강경생	1920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택담	1918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강재응	1920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고인호	1919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하석	1911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전천군 문봉우지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봉천	1903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전천군 문봉우지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정대휴	1913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고치상	1912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정태선	1901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오성문	1903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양순계	1917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삼릉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유춘부	1916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이봉남	1920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북강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홍석구	1899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북강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한규	1921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북강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이원평	1910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북강시 비행장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경숙	1906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북강시 비행장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강두옥	1918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북강시 비행장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홍의현	1914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북강시 비행장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진두화	1919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북강 고송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고승여	1917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북강 고송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강정규	1916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강달삼	1922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북강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허술생	1915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북강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진태석	1923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북강 고송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홍만식	1923	제주도 제주시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강경성	1919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강태생	1920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달오	1918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고인정	1912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달홍	1920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오희수	1915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오두관	1917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강석원	1913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수생	1896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북강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송두호	1921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북강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조인옥	1915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북강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송우선	1920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북강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문기출	1906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북강현 비행장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태행	1919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북강시 비행장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재수	1916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북강시 비행장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이사균	1915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북강시 비행장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상근	1920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박부관	1915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고봉기	1916	제주도 제주시	일본 북강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명부(규슈·오кина와)

양달천	1917	제주도 제주시	일본 북강현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전태홍	1908	제주도 제주시	일본 북강현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대여	1912	제주도 제주시	일본 북강현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고두봉	1913	제주도 제주시	일본 북강현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이용훈	1922	제주도 제주시	일본 북강현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문만희	1912	제주도 제주시	일본 북강현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장사보	1906	제주도 제주시	일본 북강현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안창현	1910	제주도 제주시	일본 북강현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윤하	1911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북강현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허오생	1907	전남 제주도	일본 북강현 삼릉반총광업소	소위 조선인 징용자 등에 관한 명부(1)
종촌여량	1914	전남 제주도	일본 북강현 상반탄전	일제하피징용자명부(3)
청천윤일	1915	전남 제주도	일본 북강현	일제하피징용자명부(3)
박세호	1890	전남 제주도	일본 북강현	일제하피징용자명부(3)
덕원창현	1917	전남 제주도	일본 북강현 악송차량주식회사 악송공장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북강현 2/2)
삼원성문	1919	전남 제주도	일본 북강현 삼정삼지광업소만전 노무사무소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내량현 북강현 1/2)
전종종태량	1928	전남 제주도	일본 북강현 주식회사금촌제작소 악송공장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북강현 2/2)
금산방부	1930	전남 제주도	일본 북강현 악송차량주식회사 악송공장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북강현 2/2)
고산영택	1925	전남 제주도	일본 북강현 주식회사도류철공소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북강현 2/2)
고원두석	1922	제주도 한림면 신창리 289	일본 북강현(사망지)	피징용사망 자연명부 4/10(구일본 육군 재적)-전라북도, 전라남도
금정홍태	1927	제주도 조천면 북촌리 1359	일본 북강현(사망지)	피징용사망 자연명부 4/10(구일본 육군 재적)-전라북도, 전라남도
춘산근방	1920	제주도 애월면 금덕리 1987	일본 북강현(사망지)	피징용사망 자연명부 9/10(구일본 해군 재적)-전라북도, 전라남도
양천성애	1924	제주도 구좌면 연평리 958	일본 북강현 서부8077부대유전대	임시군인군속계 전라남도(2)
화산홍석	1924	제주도 성산면 고성리 2187	일본 북강현 해로진우면국기부 서부제8079부대	임시군인군속계 전라남도(2)
양원상순	1924	제주도 서귀면 보목리 684	일본 북강현 서부제8079부대	임시군인군속계 전라남도(1)
풍천정박	1924	제주도 한림면 금능리 1455	일본 북강현 문사시 환산정효 19784부대	임시군인군속계 전라남도(1)

자료 : [표 III-1] 과 동일

□ 사가(佐賀)현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국가기록원)

이름	출생년도	본적지	강제동원지	명부
양춘지요	1898	전남 제주도	일본 좌하현 암곡탄광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좌하현 1/2)

자료 : [표 III-1] 과 동일

□ 나가사키(長崎)현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竹内康人編)

이름	본적지	생년월일	배치일자	기업명(사업소)	사망일	나이	사인
姜恩吉	제주도 서귀 서호	1912.8.1		三菱崎戸炭鉱	1942.8.6	30	病
金仁平	제주도 제주 노형	1901.2.12		三菱崎戸炭鉱	1942.10.7	41	病
岩田午生	제주도 제주 영평 2468	1918.2.3		三菱崎戸炭鉱	1944.10.25	26	落盤頭骨折
梁元錫弘	제주도 구좌 송당 1182	1916.2.7		三菱崎戸炭鉱	1945.4.22	28	腰椎骨折
高山文澤	제주도 제주 영평 926			三菱高嶋炭鉱端島	1943.5.1	26	埋沒窒息
木山妙子	제주도 제주 해안 1900				1945.8.16		原爆死
藤川福厚	제주도 서귀 중문 2965				1945.11.16		原爆死
陳本泰範	제주도 제주 해안			佐世保病院	1945.5.1		戰傷
高本政明	제주도 제주 일도 107-3	1923.8.1		ジャワ浮虜収容所・ 長崎沖	1944.6.24		海沒
康田大淑	제주도 남원 태흥 1929	1919.8.18		崙山丸 五島富江沖	1944.7.3		魚雷
國本明奎	제주도 조천			5三国丸対馬比田勝沖	1945.7.3		戰死
金澤平奎	제주도 구좌 김녕			5三国丸対馬比田勝沖	1945.7.3		戰死

자료 : [그림 III-1] 과 동일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국가기록원)

이름	출생연도	본적지	강제동원지	명부
강정순	1921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장기시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관익	1914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장기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배성수	1918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장기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민석	1916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장기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송기택	1914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장기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강창세	1920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장기시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재선	1921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장기시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강상오	1921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장기시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부인송	1911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장기시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홍성선	1907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장기시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고치만	1916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장기시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강용구	1921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장기시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강조형	1921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장기시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종덕	1921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장기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박형빈	1894	제주도 제주시	일본 장기현 고도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경운	1901	제주도 제주시	일본 장기현 고도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이승실	1915	제주도 제주시	일본 장기현 고도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강달고	1915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장기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문수일	1915	제주도 제주시	일본 장기현 삼성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고석찬	1894	제주도 제주시	일본 장기현 삼성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조창석	1908	제주도 제주시	일본 장기현 삼성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현명춘	1916	제주도 제주시	일본 장기현 삼성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고남선	1917	제주도 제주시	일본 장기현 삼성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이기종	1913	제주도 제주시	일본 장기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방귀선	1903	제주도 제주시	일본 장기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정태훈	1922	제주도 제주시	일본 장기현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강덕순	1919	제주도 제주시	일본 장기현 고도탄광	왜정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고전영우	1896	전남 제주도	일본 장기현 소화탄업주식회사 평전산탄광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장기 현 2/2)
송전홍길	1923	전남 제주도	일본 장기현 천남심굴조선소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장기 현 2/2)
금해두만	없음	전남 제주시	일본 장기현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장기 현 1/2)
목하판수	없음	전남 제주시	일본 장기현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장기 현 1/2)
금성현룡	없음	전남 제주시	일본 장기현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장기 현 1/2)
안경성현	없음	전남 제주시	일본 장기현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장기 현 1/2)
양본남국	없음	전남 제주시	일본 장기현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장기 현 1/2)
강본창부	없음	전남 제주시	일본 장기현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장기 현 1/2)
송정항빈	없음	전남 제주시	일본 장기현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장기 현 1/2)
정상병현	1922	전남 제주시	일본 장기현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장기 현 1/2)
목하판여	없음	전남 제주시	일본 장기현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장기 현 1/2)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조사

방인명	없음	전남 제주군	일본 장기현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장기현 1/2)
김침고	1919	전남 제주도	일본 장기현 소화탄업주식회사 평전산탄광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장 기현 2/2)
오산창근	1902	전남 제주도	일본 장기현 장기향운주식회사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장 기현 2/2)
양원석홍	없음	전남 제주군	일본 장기현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장 기현 1/2)
금산홍석	없음	전남 제주군	일본 장기현	조선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결과 (장 기현 1/2)
김이평 (金二平)	1901	제주도 제주면 노형리	일본 장기현	화장 인허증 및 변재 보고서(장기)
덕산정자 (德山靜子)	1928	제주도 제주읍 상도리 212	일본 장기현(나가사키)	나가사키(장기)조선인 피폭자 명부
덕산오만 (德山五萬)	1915	제주도 제주읍 상도리 212	일본 장기현(나가사키)	나가사키(장기)조선인 피폭자 명부
암전오생 (岩田午生)	1918	제주도 제주읍 영평리 468	일본 장기현	화장 인허증 및 변재 보고서(장기)
평미츠루 (平尾ツル)	없음	제주도 제주읍 상도리 212	일본 장기현(나가사키)	나가사키(장기)조선인 피폭자 명부
금산기련 (金山基鍊)	없음	제주도 제주읍 상도리	일본 장기현(나가사키)	나가사키(장기)조선인 피폭자 명부
고산주택 (高山主澤)	없음	제주도 제주읍 영평리 926	일본 장기현	화장 인허증 및 변재 보고서(장기)
고산공택 (高山工澤)	없음	제주도 제주읍 영평리 926	일본 장기현	화장 인허증 및 변재 보고서(장기)
평미명 (平尾明)	없음	제주도 제주읍 상도리 212	일본 장기현(나가사키)	나가사키(장기)조선인 피폭자 명부
평미말길 (平尾末吉)	없음	제주도 제주읍 상도리 212	일본 장기현(나가사키)	나가사키(장기)조선인 피폭자 명부
평미루이자 (平尾ルイ子)	없음	제주도 제주읍 상도리 212	일본 장기현(나가사키)	나가사키(장기)조선인 피폭자 명부
평야카요 (平野カヨ)	1925	제주도 제주군 중문면 2965	일본 장기현(나가사키)	나가사키(장기)조선인 피폭자 명부
안전박일 (安田博一)	1926	전남 제주도 안월면	일본 장기현(나가사키)	나가사키(장기)조선인 피폭자 명부
송전광길 (松田廣吉)	없음	제주도 구좌면 동통리 1537	일본 장기현(나가사키)	나가사키(장기)조선인 피폭자 명부
문본성일 (文本誠一)	1943	제주도 조천면 대흘리 229	일본 장기현	화장 인허증 및 변재 보고서(장기)
양원석홍 (梁原錫弘)	1916	제주도 구좌면 송당리 182	일본 장기현	화장 인허증 및 변재 보고서(장기)
등천복후 (藤川福厚)	없음	제주도 중문면 2965	일본 장기현(나가사키)	나가사키(장기)조선인 피폭자 명부
수원초지 (水原初枝)	1940	제주도 표선면 표선리 634	일본 장기현	화장 인허증 및 변재 보고서(장기)
강사길 (姜思吉)	1912	제주도 서귀면 서호리	일본 장기현	화장 인허증 및 변재 보고서(장기)
목산묘자 (木山妙子)	없음	제주도 ○○면 봉주리 1900	일본 장기현(나가사키)	나가사키(장기)조선인 피폭자 명부

자료 : [표 III-1] 과 동일

□ 오이타(大分)현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국가기록원)

이름	출생연도	본적지	강제동원지	명부
수산 보권	1929	제주도군 성산면 수산리 1223	일본 대분 육군 소년 비행병 학교	임시군인군속계 전라남도(2)

자료 : [표 III-1] 과 동일

□ 미야자키(宮崎)현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국가기록원)

이름	출생연도	본적지	강제동원지	명부명
부전 성중	1922	제주도 제주시 삼양리 1858	일본 궁기현 아타군 천남촌14부 제 119부대	임시군인군속계 전라남도(1)

자료 : [표 III-1] 과 동일

□ 가고시마(鹿児島)현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竹内康人編)

이름	본적지	생년월일	배치일자	기업명	사망일	나이	사인
青松榮雄	제주도 제주 해안	1923.12.19		佐世保施設部・鹿屋	1945.8.2		戦死
金本鉄一郎	제주도 제주 화북	1924.10.8		佐世保施設部・高山	1945.7.31		戦死
金山常吉	제주도 제주 영평 1830			飛行66戦隊・中島沖	1945.3.30		戦死
吉永鳳至	제주도 구좌 동감녕 1667	1923.6.26		八光丸・屋久島南西	1944.11.8		魚雷

자료 : [그림 III-1] 과 동일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조사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국가기록원)

이름	출생연도	본적지	강제동원지	명부
청송영식	없음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녹아도현 녹아시	노동원 사망자 명부(각도)
허룡	1900	제주도 제주군	일본 구주 녹아도	왜정시 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태옥	1909	제주도 제주군	일본 구주 녹아도	왜정시 피징용자명부(제주도)
금산상길	없음	제주도 제주읍 영평리 1830	일본 녹아도현(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4/10(구일본육군재적)-전라북도, 전라남도
금본철일량	1924	제주도 제주읍 화북리	일본 녹아도현 고산정(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9/10(구일본해군재적)-전라북도, 전라남도
청송영식	1923	제주도 제주읍 해안리	일본 녹아도현 녹옥시(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9/10(구일본해군재적)-전라북도, 전라남도
금전정도	1924	제주도 제주읍 도두리 2473	일본 녹아도 읍천변군 천변정천변 중학교 기부전원대	임시군인군속계 전라남도(1)
오시세화 (吳世世華)	1923	제주도 성산면 신흥리 800	일본 천변(川邊)	조선인육군군인조사(6)전라남도 전라북도
기본윤섭 (箕本允燮)	1924	제주도 구좌면 동금령리 1449	일본 천변(川邊)/일본 내지 제16방면군(서부)예하/보병 제76연대 제8중대/서부 제18부대 덕전대	조선인육군군인조사(6)전라남도 전라북도/병적전시명부전라남도2/6책/유수명부(내지제16방면군(서부)예하)/임시군인군속계전라남도(2)
양천태랑 (梁川太郎)	1924	제주도 안덕면 화순리 433	일본 천변(川邊)	조선인육군군인조사(6)전라남도, 전라북도
고도창석 (高島昌錫)	1924	제주도 서귀면 신흥리 207	일본 천변(川邊)	조선인육군군인조사(6)전라남도, 전라북도
양천태랑	1924	제주도 안덕면 화순리 433	일본 녹아도현 천변군 지현정지현공업학교 기부원두대	임시군인군속계 전라남도(1)
송산정	1924	제주도 안덕면 사계리 2359	일본 녹아도시 서부 제18부대	임시군인군속계 전라남도(1)
안춘무웅	1924	제주도 서귀면 하호리 513	일본 녹아도 제18부대	임시군인군속계 전라남도(1)
양본병관	1924	제주도 한림면 조수리 1337	일본 녹아도 서부 제18부대 목대	임시군인군속계 전라남도(1)
금산고웅	1923	제주도 대정면 무릉리 1256	일본 녹아도시 갈야정 육군참사야촌반	임시군인군속계 전라남도(1)
고산창석	1924	제주도 한림면 한림리 1114	일본 녹아도 서부 제18부대 우대	임시군인군속계 전라남도(1)

자료 : [표 III-1] 과 동일

□ 오키나와(沖縄)현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竹内康人編)

이름	본적지	생년월일	배치부대	기업명	사망일	나이	사인
康仁吉 (康本仁吉)	전남 제주	1922.8.8	육군	船舶司 玉鉾丸	1944.6.24		魚雷
金普煥 (金原普煥)	제주 한림 대성 149	1923.4.4	육군	船舶司·南陽·那覇	1944.10.10		空爆
善山智水	제주 제주 건입 1148	1912.2.6	육군	7 野戰船舶廠前田	1945.5.10		戰死
清水公熙	제주 성산 고성 1354	1921.6.20	육군	船舶司·8竹丸·宮古	1945.1.22		戰死
姜碩奉 (岡田碩奉)	제주 구좌 용평	1919.7.30	육군	1船舶司·清進丸·摩文仁	1945.6.20		戰死
原田正吉	제주 한림 두모 2415	1921.5.26	육군	3船舶司·那覇	1945.5.10		戰死
洪汝進	제주 한림 협재 1717	1909.5.4	육군	南京丸	1945.3.17		戰死
倉元折弘	제주 안덕 창천 403	1919.6.3	육군	3船舶司·春日丸	1944.10.10		戰死
金宮鎬任	제주 조천 조천 3090	1919.8.11	해군	泰仁丸 北大東島沖	1944.3.12		戰死
西原鉄天	제주 구좌 김녕 9970	1923.10.2	해군	泰仁丸 北大東島沖	1944.3.12		戰死
金在甫	제주 제주 용담	1889.8.9	해군	34興安丸 豊見城	1945.6.14		戰死
山本千松	제주 조천 북촌 1303	1913.6.15	해군	77興隆丸	1945.4.17		戰死

자료 : [그림 III-1] 과 동일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국가기록원)

이름	출생연도	본적지	강제동원지	명부
양본길 호	1927	제주도 제주읍 외도리 244	일본 제32군(총승)	유수명부(선제3항공군-남서제4항공군-비도제6비행사단-호북제31군-충부태평양제32군-총승)
선산지수	1912	제주도 제주읍 건입리 1148	일본 총승(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4/10(구일본육군재적)-전라북도, 전라남도
김재보	1889	제주도 제주읍 용당리	일본 총승 풍견성촌(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9/10(구일본해군재적)-전라북도, 전라남도
청수공희	1921	제주도 성산면 고성리 1354	일본 총승(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4/10(구일본육군재적)-전라북도, 전라남도
강전두봉	1919	제주도 구좌면 연평리	일본 총승(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4/10(구일본육군재적)-전라북도, 전라남도
춘춘정부	1913	제주도 제주읍 124	일본 총승 본도수리(사망지)	피징용사망자연명부2/10(구일본육군재적)-충청북도, 충청남도

자료 : [표 III-1] 과 동일

□ 불분명한 규슈(九州)지방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피해자 명부(국가기록원)

이름	출생연도	본적지	강제동원지	명부
오천옥	1898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순옥	1919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상보	1913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영진	1904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이태오	1916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고태호	1916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삼정광업소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양달천	1915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삼정광업소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강사음	1902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삼정광업소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박형래	1918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대재	1920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강대섭	1907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현기	1921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양식	1919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박종기	1919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고남진	1919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박동진	1922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복남	1922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하기홍	1907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이달빈	1915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정용생	1901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이강칠	1918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이강승	1919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하봉도	1920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황성래	1918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탄광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임사균	1906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대경	1917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고윤옥	1916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강희경	1911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한영원	1915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대옥	1917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이평식	1917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이봉빈	1917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강인수	1897	제주도 제주군	일본 구주 좌세보기지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봉진	1899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오창순	1892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달인	1902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계삼	1901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강창윤	1913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김해송	1907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임신옥	1911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삼정광업소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지창익	1921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삼정광업소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강정홍	1902	제주도 남제주군	일본 구주 삼정광업소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고영우	1919	제주도 북제주군	일본 구주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부창률	1922	제주도 제주군	일본 구주 지방	왜정 시피징용자명부(제주도)

자료 : [표 III-1] 과 동일

재일조선인 강제동원 현장 일람표(규슈·오키나와)

조선인 강제동원 사업소	업종	현(県)	市・町・村	동원	조사
陸軍芦屋飛行場拡張・鉄道工業	飛行場建設	福岡	芦屋町	△	
陸軍三重松原飛行場建設(梅田組)	飛行場建設	福岡	芦屋町	●	
麻生 愛宕炭鉱	鉱業	福岡	飯塚市	●	
麻生 上三緒炭鉱	鉱業	福岡	飯塚市	●	
麻生 山内炭鉱	鉱業	福岡	飯塚市	●	
麻生 芳雄炭鉱	鉱業	福岡	飯塚市	●	
日鉄 二瀬炭鉱	鉱業	福岡	飯塚市	●	○
三菱 鯉田炭鉱	鉱業	福岡	飯塚市	●	
飯塚「慰安婦」	性的奴隷	福岡	飯塚市	●	
真岡炭鉱	鉱業	福岡	糸田町	●	○
明治 豊国炭鉱	鉱業	福岡	糸田町	●	
三井 山野炭鉱	鉱業	福岡	稻築町	●	
三井山野炭鉱「慰安婦」	性的奴隷	福岡	稻築町	●	
日鉄 稻築炭鉱	鉱業	福岡	稻築町	●	
日炭 新山野炭鉱	鉱業	福岡	稻築町	●	
三菱 上山田炭鉱	鉱業	福岡	上山田町	●	
九州採炭 笹原炭鉱	鉱業	福岡	碓井町	●	
田籠 昭嘉炭鉱	鉱業	福岡	碓井町	●	
三菱 勝田炭鉱	鉱業	福岡	宇美町	●	
古河 大峰炭鉱	鉱業	福岡	大任町	●	○
古河 大峰炭鉱「慰安婦」	性的奴隷	福岡	大任町	●	
三池港運	運輸港湾	福岡	大牟田市	●	
電気化学工業大牟田工場	軍需工場	福岡	大牟田市	●	
三井染料	軍需工場	福岡	大牟田市	●	
三井 三池炭鉱	鉱業	福岡	大牟田市	●	○
三井 三池製錬所	鉱業	福岡	大牟田市	●	
九州火力港発展所拡張・大倉土木	土木建設	福岡	大牟田市	△	
九州採炭 海老津炭鉱	鉱業	福岡	岡垣町	●	
九州採炭 高陽炭鉱	鉱業	福岡	岡垣町	●	
明治 赤池炭鉱	鉱業	福岡	赤池町	●	○
明治 明治炭鉱	鉱業	福岡	潁田町	●	
久恒 漆生炭鉱	鉱業	福岡	嘉穂町	●	
豊国シメント	鉱業	福岡	苅田町	◎	
川崎炭鉱	鉱業	福岡	川崎町	●	
野上 豊州炭鉱	鉱業	福岡	川崎町	●	
豊州炭鉱「慰安婦」	性的奴隷	福岡	川崎町	●	
東豊炭鉱	鉱業	福岡	川崎町	●	
小倉炭鉱	鉱業	福岡	北九州小倉	●	
新小倉炭鉱	鉱業	福岡	北九州小倉	◎	
鎮西貨物自動車運送	運輸港湾	福岡	北九州小倉	●	
高射第4師団機関砲第12大隊・独立照空第21大隊	軍人軍属	福岡	北九州小倉	●	
高射砲第131部隊	軍人軍属	福岡	北九州小倉	●	
宇部興産小倉工場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小倉北	●	
小倉製鋼本社(浅野重工小倉)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小倉北	●	
小倉陸軍造兵廠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小倉北	●	
小倉陸軍造兵廠工事(松尾組)	地下工場建設	福岡	北九州小倉北	△	
東京製鋼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小倉北	●	
不二越鋼材小倉工場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小倉北	●	
東洋シメント小倉工場	鉱業	福岡	北九州小倉北	●	
旭硝子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戸畑	●	
鉄道炭荷役作業戸畑出張所	運輸港湾	福岡	北九州戸畑	◎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조사

日通戸畑支店	運輸港湾	福岡	北九州戸畑	●	
日立製作所戸畑工場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戸畑	●	
日本水産戸畑支社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戸畑	●	
国鉄門司港	運輸港湾	福岡	北九州門司	●	
関門港運	運輸港湾	福岡	北九州門司	●	
八幡港運	運輸港湾	福岡	北九州門司	●	
神戸製鋼門司工場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門司	●	
特設水上勤務隊・門司港	軍人軍属	福岡	北九州門司	●	
浅野시멘트門司工場	鉱業	福岡	北九州門司	●	
鉄道省工事小森江	土木建設	福岡	北九州門司	●	
門司国道터널	土木建設	福岡	北九州門司	●	
日本化成・船舶荷役	運輸港湾	福岡	北九州八幡	◎	
九州伸鉄工業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八幡	◎	
八幡製鉄運搬請負業共済組合	運輸港湾	福岡	北九州八幡	●	
黒崎窯業	鉱業	福岡	北九州八幡西	●	
三菱化成黒崎工場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八幡西	●	
木曾炭鉱	鉱業	福岡	北九州八幡西	●	
入江組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八幡東	●	
日本製鉄八幡製鉄所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八幡東	●	○
日鉄八幡西田発電所防護(奥村組)	土木建設	福岡	北九州八幡東	△	
三菱化成牧山工場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八幡東	●	
日通若松支店	運輸港湾	福岡	北九州若松	●	
若松港運	運輸港湾	福岡	北九州若松	●	
若松沿岸運送	運輸港湾	福岡	北九州若松	◎	
九州造船本社工場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若松	●	
今村製作所若松工場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若松	●	
大日本乾溜工業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若松	●	
東海鋼業若松工場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若松	●	
東海電極製造九州若松工場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若松	●	
栃木造船若松工場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若松	●	
日華油脂・ニッ菱組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若松	●	
日華油脂若松工場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若松	●	
日立製作所若松工場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若松	●	
三菱重工若松造船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若松	●	
若松港運若松造船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若松	●	
若松車両若松工場	軍需工場	福岡	北九州若松	●	
大林組二島工事	土木建設	福岡	北九州若松	●	
久保田組	土木建設	福岡	北九州若松	◎	
帆柱山・牧山校舎砲台工事	軍工事	福岡	北九州市	◎	
陸軍曾根飛行場建設(株木組)	飛行場建設	福岡	北九州市	△	
金丸 高谷炭鉱	鉱業	福岡	鞍手町	●	
九州曹達 西川炭鉱	鉱業	福岡	鞍手町	●	
日満 新目尾炭鉱	鉱業	福岡	鞍手町	●	
末吉炭鉱	鉱業	福岡	鞍手町	●	
東邦 鞍手炭鉱	鉱業	福岡	鞍手町	●	
三菱 新入炭鉱	鉱業	福岡	鞍手町	●	
麻生 吉隈炭鉱	鉱業	福岡	桂川町	●	○
明治 平山炭鉱	鉱業	福岡	桂川町	●	
浅野시멘트香春工場採掘場	鉱業	福岡	香春町	●	
北九州炭 中津原炭鉱	鉱業	福岡	香春町	●	
青木炭鉱	鉱業	福岡	香春町	◎	
産業시멘트	鉱業	福岡	香春町	●	
加茂 目尾炭鉱	鉱業	福岡	小竹町	●	
古河 目尾炭鉱	鉱業	福岡	小竹町	●	○

旭 大勢門炭鉱	鉱業	福岡	篠栗町	●	
明治 高田炭鉱	鉱業	福岡	篠栗町	●	
第4海軍燃料廠・志免炭鉱	鉱業	福岡	志免町	●	
朝鮮精錬 吉原炭山	鉱業	福岡	志免町	●	
志免炭鉱竪坑工事・木田建業	土木建設	福岡	志免町	△	
東邦 龜山炭坑1坑3坑	鉱業	福岡	志免・宇美	●	
麻生 赤坂炭鉱	鉱業	福岡	圧内町	●	
麻生 網分炭鉱	鉱業	福岡	圧内町	●	
赤坂炭鉱「慰安婦」	性的奴隷	福岡	圧内町	●	
高倉炭鉱	鉱業	福岡	添田町	●	
古河 峰地炭鉱	鉱業	福岡	添田町	●	○
古河峰地炭鉱「慰安婦」	性的奴隷	福岡	添田町	●	
産業シメント鉄道	鉱業	福岡	田川市	●	
船尾鋼業(シメント)	鉱業	福岡	田川市	●	
三井 田川炭鉱	鉱業	福岡	田川市	●	○
田川炭鉱「慰安婦」	性的奴隷	福岡	田川市	●	
麻生 豆田炭鉱	鉱業	福岡	筑穂町	●	
嘉穂炭鉱	鉱業	福岡	筑穂町	●	
海軍築城飛行場建設(藤田組)	飛行場建設	福岡	筑城町	●	
築城海軍航空隊	軍人軍属	福岡	筑城町	●	
築城飛行場地下弾薬庫工事	飛行場建設	福岡	筑城町	●	
呉施設部・築城	軍人軍属	福岡	筑城町	●	
第16方面軍山家地下司令部工事鉄道建設興業(熊谷組)	軍工事	福岡	筑紫野市	●	
日立製作所戸畑工業	軍需工場	福岡	戸畑区	●	
金丸 大隈炭鉱	鉱業	福岡	中間市	●	
九州採炭 新手炭鉱	鉱業	福岡	中間市	●	
大正 中鶴炭鉱	鉱業	福岡	中間市	●	
貝島 大辻炭鉱	鉱業	福岡	中間市	●	
日産化学大辻炭鉱	鉱業	福岡	中間市	●	
深坂炭鉱	鉱業	福岡	中間市	●	
岡部鉄工所	軍需工場	福岡	福岡市	◎	
九州兵器	軍需工場	福岡	福岡市	●	
九州飛行機	軍需工場	福岡	福岡市	●	
昭和鉄工所	軍需工場	福岡	福岡市	●	
多々良製作所	軍需工場	福岡	福岡市	●	
日本繊維工業福岡工場	軍需工場	福岡	福岡市	●	
特設陸上勤務隊 香椎	軍人軍属	福岡	福岡市	●	
明治 西戸崎炭鉱	鉱業	福岡	福岡市	●	
早良炭鉱	鉱業	福岡	福岡市	●	
奥村組	土木建設	福岡	福岡市	●	
玉藻組	土木建設	福岡	福岡市	●	
陸軍席田(板付)飛行場工事	飛行場建設	福岡	福岡市	●	
海軍福岡航空隊工事	飛行場建設	福岡	福岡市	●	
佐世保施設部・福岡	軍人軍属	福岡	福岡市	●	
博多海軍航空隊	軍人軍属	福岡	博多区	●	
日通博多港支店	運輸港湾	福岡	博多区	●	
日通博多支店	運輸港湾	福岡	博多区	●	
国鉄博多港	運輸港湾	福岡	博多区	●	
博多港運	運輸港湾	福岡	博多区	●	
宝珠山炭坑	鉱業	福岡	宝珠山村	●	
三菱 方城炭坑	鉱業	福岡	方城町	●	
三菱方城炭坑「慰安婦」	性的奴隷	福岡	方城町	●	
日本産振 金居野精錬所	鉱業	福岡	星野村	●	
星野炭山	鉱業	福岡	星野村	●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조사

横山鉦山	鉦業	福岡	星野村	●	
振興炭坑	鉦業	福岡	穂波町	●	
住友 忠隈炭鉦	鉦業	福岡	穂波町	●	
東邦 天道炭鉦	鉦業	福岡	穂波町	●	
三菱 飯塚炭鉦	鉦業	福岡	穂波町	●	○
海軍小富士飛行場建設	飛行場建設	福岡	前原市	◎	
日産化学(日炭)高松炭鉦	鉦業	福岡	水巻町	●	
貝島 大之浦炭鉦	鉦業	福岡	宮田町	●	
日本曹達九州工場(宗像)	軍需工場	福岡	宗像市	●	
岩崎炭鉦	鉦業	福岡	山田市	●	
東邦 筑紫炭鉦	鉦業	福岡	山田市	●	
日炭 上山炭鉦	鉦業	福岡	山田市	●	
日産化学(日炭)山田炭鉦	鉦業	福岡	山田市	●	
日炭 橋上炭鉦	鉦業	福岡	山田市	●	
樋口 木城炭鉦	鉦業	福岡	山田市	●	
久恒 猪之鼻炭鉦	鉦業	福岡	山田市	●	
古河 下山田炭鉦	鉦業	福岡	山田市	●	
日本鋼業本社	軍需工場	福岡	吉富町	●	
第64野戦道路隊	軍人軍属	福岡		●	
興原鉦山	鉦業	福岡		●	
福岡軍「慰安婦」	性的奴隷	福岡		●	
九州飛行機地下工場建設	地下工場建設	福岡		△	
小倉工機部地下施設・日産土木	地下工場建設	福岡		△	
大倉土木	土木建設	福岡		●	
苅田組	土木建設	福岡		●	
高野組	土木建設	福岡		◎	
藤田組出張所	土木建設	福岡		◎	
波瀬埠頭運送	運輸港湾	佐賀	伊万里市	●	
日通浦崎支店	運輸港湾	佐賀	伊万里市	◎	
浦ノ崎特攻基地	軍工事	佐賀	伊万里市	△	
川南工業 浦ノ崎造船	軍需工場	佐賀	伊万里市	●	
麻生 久原炭鉦	鉦業	佐賀	伊万里市	●	
川南 向山炭坑	鉦業	佐賀	伊万里市	●	
楠久炭坑	鉦業	佐賀	伊万里市	◎	
国見炭坑	鉦業	佐賀	伊万里市	◎	
児玉 小岩炭坑	鉦業	佐賀	伊万里市	●	
大日 立川炭坑	鉦業	佐賀	伊万里市	●	
日満 大伊万里炭坑(羽黒)	鉦業	佐賀	伊万里市	●	
山代炭坑	鉦業	佐賀	伊万里市	◎	
砥川炭坑	鉦業	佐賀	牛津町	●	
杵島 杵島炭坑	鉦業	佐賀	大町・江北町	●	○
唐津港運	運輸港湾	佐賀	唐津市	◎	○
東海運唐津出張所	運輸港湾	佐賀	唐津市	◎	
東西陸運	運輸港湾	佐賀	唐津市	◎	
唐津特攻基地	軍工事	佐賀	唐津市	△	
日満 新屋敷炭坑(深井)	鉦業	佐賀	巖木町	●	
日本通運神崎営業所	運輸港湾	佐賀	神崎町	●	
貝島 岩屋炭坑	鉦業	佐賀	巖木町	●	
仮屋特攻基地	軍工事	佐賀	玄海町	△	
外津特攻基地	軍工事	佐賀	玄海町	△	
値賀特攻基地	軍工事	佐賀	玄海町	△	
日本通運佐賀支店	運輸港湾	佐賀	佐賀市	●	
陸軍日達原飛行場(株木組)	飛行場建設	佐賀	三田川町	◎	
佐賀北白干拓工事	土木建設	佐賀	白石町	●	
住友 唐津炭坑	鉦業	佐賀	相知町	●	

海軍小城基地建設	軍工事	佐賀	多久市	△	
明治 多久炭坑	鉱業	佐賀	多久市	●	
明治 立山炭坑	鉱業	佐賀	多久市	●	
山口 小城炭坑	鉱業	佐賀	多久市	●	
唐津線工事	土木建設	佐賀	多久市	◎	
名護屋特攻基地	軍工事	佐賀	鎮西町	△	
富士貨物自動車(株)	運輸港湾	佐賀	鳥栖市	●	
日本타이어旭工場建設	土木建設	佐賀	鳥栖市	◎	
杵島 大鶴炭鉱	鉱業	佐賀	肥前町	●	○
大鶴炭鉱「慰安婦」	性的奴隷	佐賀	肥前町	●	
杵島 北方炭鉱	鉱業	佐賀	北方町	●	
明治 西杵炭鉱	鉱業	佐賀	北方町	●	
朝鮮農業報国隊 東与賀・北茂安	農林	佐賀	東与賀・北茂安	●	
壕掘消 釜山陸軍8893部隊	軍人軍属	佐賀	神崎郡	●	
鯛ノ浦特攻基地	軍工事	長崎	有川町	△	
長崎 伊王島炭坑	鉱業	長崎	伊王島町	●	
壱岐交通	運輸港湾	長崎	壱岐市	◎	
海軍諫早航空隊工事	飛行場建設	長崎	諫早市	◎	
諫早海軍航空隊	軍人軍属	長崎	諫早市	●	
海軍航空廠諫早地下工場	地下工場建設	長崎	諫早市	△	
印通寺特攻基地	軍工事	長崎	石田町	△	
江迎炭鉱坑道工事(西松組)	土木建設	長崎	江迎町	△	
住友 潜竜炭坑	鉱業	長崎	江迎町	●	
日室 江迎炭鉱	鉱業	長崎	江迎町	●	
深江炭鉱	鉱業	長崎	江迎町	●	
三井(松島)大島炭鉱	鉱業	長崎	大島町	●	
貝島 東松島炭鉱	鉱業	長崎	大瀬戸町	●	
松島特攻基地	軍工事	長崎	大瀬戸町	△	
梅林組・大村	軍工事	長崎	大村市	◎	
大村海軍航空廠・第21海軍航空廠	軍人軍属	長崎	大村市	●	
大村海軍航空廠岩松地下工場	地下工場建設	長崎	大村市	◎	
大村海軍航空廠建設	土木建設	長崎	大村市	●	
大村海軍航空廠陰平地下工場(大村組)	地下工場建設	長崎	大村市	●	
大村海軍航空隊	軍人軍属	長崎	大村市	●	
海軍今福飛行場工事	飛行場建設	長崎	大村市	◎	
海軍箕島飛行場工事	飛行場建設	長崎	大村市	●	
金子組・大村	地下工場建設	長崎	大村市	◎	
佐世保施設部大村	軍人軍属	長崎	大村市	●	
佐世保海軍建設部馬場事業場	土木建設	長崎	大村市	●	
宝原組・大村	地下工場建設	長崎	大村市	◎	
竹中工務店大村	軍工事	長崎	大村市	◎	
大村連隊	軍人軍属	長崎	大村市	●	
日本通運大村支店	運輸港湾	長崎	大村市	●	
川棚海軍工廠石木地下工場(清水組)	地下工場建設	長崎	川棚町	◎	
川棚海軍工廠建設	土木建設	長崎	川棚町	●	
佐世保施設部川棚	軍人軍属	長崎	川棚町	●	
川棚水雷工場敷地埋立(水野組)	土木建設	長崎	川棚町	△	
川棚特攻基地	軍工事	長崎	川棚町	●	
川棚突撃隊	軍人軍属	長崎	川棚町	●	
東邦亜鉛 対馬鉱業	鉱業	長崎	厳原町	●	
川南 香焼炭鉱	鉱業	長崎	香焼町	●	
太田尾特攻基地	軍工事	長崎	琴海町	●	
崎戸炭鉱「慰安婦」	性的奴隷	長崎	崎戸町	●	
三菱鉱業 崎戸炭鉱	鉱業	長崎	崎戸町	●	○
住友 芳野浦炭鉱	鉱業	長崎	佐々町	●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조사

日満 江里炭鉱	鉱業	長崎	佐々町	●	
日鉄 神田炭鉱	鉱業	長崎	佐々町	●	
相浦海兵団工事	軍工事	長崎	佐世保市	●	
大野浄水場工事	土木建設	長崎	佐世保市	◎	
国鉄佐世保	運輸港湾	長崎	佐世保市	●	
佐世保第8特別陸戦隊	軍人軍属	長崎	佐世保市	●	
佐世保海軍建築部第2海兵団工事	軍人軍属	長崎	佐世保市	●	
佐世保海軍工廠	軍需工場	長崎	佐世保市	●	
佐世保海軍工廠建設	軍工事	長崎	佐世保市	◎	
佐世保海軍施設部	軍人軍属	長崎	佐世保市	●	
佐世保軍需部	軍人軍属	長崎	佐世保市	●	
佐世保運輸部	軍人軍属	長崎	佐世保市	●	
佐世保防衛隊	軍人軍属	長崎	佐世保市	●	
佐世保施設部・三河内	軍人軍属	長崎	佐世保市	●	
佐世保海軍病院	軍人軍属	長崎	佐世保市	●	
佐世保軍「慰安婦」	性的奴隷	長崎	佐世保市	●	
佐世保重油塲工工事	軍工事	長崎	佐世保市	●	
佐世保水上基地	飛行場建設	長崎	佐世保市	△	
佐世保炭鉱	鉱業	長崎	佐世保市	◎	
佐世保防空壕工事	軍工事	長崎	佐世保市	◎	
佐世保特攻基地	軍工事	長崎	佐世保市	△	
白岳炭鉱	鉱業	長崎	佐世保市	◎	
関谷組	土木建設	長崎	佐世保市	●	
相当塲工事	土木建設	長崎	佐世保市	●	
東亜 中里炭鉱	鉱業	長崎	佐世保市	●	
日室 新中里炭鉱	鉱業	長崎	佐世保市	●	
日室 相ノ浦炭鉱	鉱業	長崎	佐世保市	●	
日鉄 池野炭鉱	鉱業	長崎	佐世保市	●	
日鉄 柚木炭鉱	鉱業	長崎	佐世保市	●	
針尾海兵団工事	軍工事	長崎	佐世保市	●	
松浦鉄道工事	土木建設	長崎	佐世保市	◎	
原上晃明鉱山	鉱業	長崎	三和町	●	
昭和 平田山炭坑	鉱業	長崎	鹿町町	●	
住友 御堂炭坑	鉱業	長崎	鹿町町	◎	
日鉄 鹿町炭坑	鉱業	長崎	鹿町町	●	
日鉄 大加瀬炭鉱	鉱業	長崎	鹿町町	●	
野上東亜 神林炭鉱	鉱業	長崎	鹿町町	●	
楠泊特攻基地	軍工事	長崎	小佐々町	△	
日産 矢岳炭鉱	鉱業	長崎	小佐々町	●	
矢岳特攻基地	軍工事	長崎	小佐々町	△	
飯野 松浦炭鉱	鉱業	長崎	世知原町	●	
佐世保海軍工廠移転工事	軍工事	長崎	世知原町	●	
三菱鉱業 高島炭鉱・端島炭鉱	鉱業	長崎	高島町	●	○
高島炭鉱「慰安婦」	性的奴隷	長崎	高島町	●	
富江飛行場	飛行場建設	長崎	富江町	△	
浦上水原地工事	土木建設	長崎	長崎市	◎	
加藤製作所	軍需工場	長崎	長崎市	●	
川南工業建築部	土木建設	長崎	長崎市	●	
川南工業網場埋立	土木建設	長崎	長崎市	◎	
川南工業小瀬戸埋立	土木建設	長崎	長崎市	●	
川南工業深堀造船所	軍需工場	長崎	長崎市	●	
馬手浦工業所	軍需工場	長崎	長崎市	◎	
金比羅山高射砲部隊	軍人軍属	長崎	長崎市	●	
国鉄長崎	運輸港湾	長崎	長崎市	●	
西部가스大橋工場(大島組)	軍需工場	長崎	長崎市	◎	

長崎港運	運輸港湾	長崎	長崎市	●	
日通長崎支店	運輸港湾	長崎	長崎市	●	
日見国民学校内陸軍兵士	軍人軍属	長崎	長崎市	●	
牧島特攻基地	軍工事	長崎	長崎市	△	
三井建設工業長崎出張所	土木建設	長崎	長崎市	●	
三菱重工業長崎造船所	軍需工場	長崎	長崎市	●	○
三菱製鋼長崎製鋼所	軍需工場	長崎	長崎市	●	
三菱電機長崎製作所	軍需工場	長崎	長崎市	●	
三菱長崎造船稻佐製材所	軍需工場	長崎	長崎市	△	
三菱長崎造船所地下工場	地下工場建設	長崎	長崎市	●	
三菱長崎造船ドク堀削	土木建設	長崎	長崎市	●	
三菱長崎造船福田埋立大倉土木	土木建設	長崎	長崎市	△	
三菱兵器大橋工場(長崎精機)	軍需工場	長崎	長崎市	●	
三菱大橋工場建設(大林組)	土木建設	長崎	長崎市	●	
三菱兵器茂里工場	軍需工場	長崎	長崎市	●	
三菱兵器住吉地下工場	地下工場建設	長崎	長崎市	●	
三菱兵器半地下工場	地下工場建設	長崎	長崎市	◎	
三菱工場分散施設工事	地下工場建設	長崎	長与町	◎	
樺島特攻基地	軍工事	長崎	野母崎町	△	
竹敷特攻基地	軍工事	長崎	美津島町	△	
平戸特攻基地	軍工事	長崎	平戸市	△	
五島鉱山	鉱業	長崎	福江市	●	
海軍福江飛行場	飛行場建設	長崎	福江市	◎	
福江・独立混成107師団司令部	軍人軍属	長崎	福江市	●	
佐世保施設部五島	軍人軍属	長崎	福江市	●	
沖ノ山 福島炭鉱	鉱業	長崎	福島町	●	
中島 鯛之鼻炭鉱	鉱業	長崎	福島町	●	
中島 徳義炭鉱	鉱業	長崎	福島町	●	
春日 今福炭鉱	鉱業	長崎	松浦市	●	
昭和 土肥之浦炭鉱	鉱業	長崎	松浦市	●	
新長崎炭鉱	鉱業	長崎	松浦市	●	
中島 江口炭鉱	鉱業	長崎	松浦市	●	
町営今福溜池工事	土木建設	長崎	松浦市	●	
吉原 大志佐炭鉱	鉱業	長崎	松浦市	●	
京泊特攻基地	軍工事	長崎	南串山村	△	
日鉄 吉井炭鉱	鉱業	長崎	吉井町	●	
海軍航空廠金屋地下工場	地下工場建設	長崎	波佐見町	△	
小倉陸軍造兵廠糸口山・宇佐見工場(残高組)	地下工場建設	大分	宇佐市	◎	
第2海軍航空廠宇佐地下施設	地下工場建設	大分	宇佐市	◎	
宇佐飛行場地下壕	飛行場建設	大分	宇佐市	◎	
海軍宇佐飛行場(梅林組)	飛行場建設	大分	宇佐市	◎	
呉施設部・宇佐	軍人軍属	大分	宇佐市	●	
日通柳ヶ浦支店	運輸港湾	大分	宇佐市	●	
岩戸 新水浦鉱山	鉱業	大分	宇目町	●	
住友化学 大分工場	軍需工場	大分	大分市	◎	
第2陸軍造兵廠坂ノ市製造所	軍需工場	大分	大分市	●	
第2海軍航空廠大分地下施設	地下工場建設	大分	大分市	●	
大分陸軍造兵廠建設(梅林組)	土木建設	大分	大分市	●	
大野川河川工事	土木建設	大分	大分市	◎	
海軍戸次飛行場	飛行場建設	大分	大分市	◎	
大分少年飛行兵学校工事(溝口組)	軍工事	大分	大分市	△	
陸軍大分少年飛行兵学校	軍人軍属	大分	大分市	●	○
大分飛行場地下壕	飛行場建設	大分	大分市	△	
西海海軍航空隊	軍人軍属	大分	大分市	●	
呉施設部・大分	軍人軍属	大分	大分市	●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조사

陸軍大野飛行場	飛行場建設	大分	大野町	◎	
三菱 尾平鉱山	鉱業	大分	緒方町	●	
日出生台演習場	軍人軍属	大分	玖珠町	●	
日出生台軍用道路工事	土木建設	大分	玖珠町	◎	
石原 旭鉱山	鉱業	大分	玖珠町	●	
海軍米入津避病院	軍工事	大分	米入津村	◎	
楠浦特攻基地建設	軍工事	大分	米入津村	◎	
海軍佐伯飛行場	飛行場建設	大分	佐伯市	◎	
佐伯港運	運輸港湾	大分	佐伯市	△	
佐伯特攻基地建設	軍工事	大分	佐伯市	△	
日向伯特攻基地建設	軍工事	大分	佐伯市	△	
佐伯飛行場地下壕	飛行場建設	大分	佐伯市	△	
佐伯海軍航空隊	軍人軍属	大分	佐伯市	●	
浅野시멘트佐伯工場	鉱業	大分	佐伯市	●	
佐伯鉱山選鉱場工事(鹿島組)	土木建設	大分	佐伯市	△	
日鉱 佐賀関製錬所	鉱業	大分	佐賀関町	●	
小野田시멘트津久見工場	鉱業	大分	津久見市	●	
津久見鉱業	鉱業	大分	津久見市	●	
鶴見砲台建設	軍工事	大分	鶴見町	◎	
鯛生鉱山	鉱業	大分	中津江村	●	
鯛生鉱山「慰安婦」	性的奴隷	大分	中津江村	●	
神戸製鋼中津工場	軍需工場	大分	中津市	●	
神戸製鋼内土木	土木建設	大分	中津市	◎	
三豊貨物自動車	運輸港湾	大分	中津市	◎	
朝鮮農業報国隊 緒形・野上・上野	農林	大分	緒方久重・弥生	●	
久住陸軍道路工事	土木建設	大分	久住町	◎	
小倉陸軍造兵廠日田地下工場建設(銭高組)	地下工場建設	大分	日田市	◎	
大神特攻基地建設(呉施設部・大神)	軍工事	大分	日出町	●	
十文字原演習場	軍人軍属	大分	別府市	●	
亀川軍用塩田工事	土木建設	大分	別府市	◎	
別府陸軍賤橋工事	土木建設	大分	別府市	◎	
溝江特攻基地建設	軍工事	大分	溝江町	△	
小倉海軍造兵廠立石地下工場	地下工場建設	大分	山香町	△	
小倉陸軍造兵廠溝部地下工場	地下工場建設	大分	山国町	△	
日鉱 馬上鉱山	鉱業	大分	山香町	●	
三菱航空機七城地下工場	地下工場建設	熊本	七条市	◎	
朝鮮農業報国隊 西合志・白旗	農林	熊本	西合志・甲佐	●	
三井 阿蘇鉱山	鉱業	熊本	阿蘇町	●	
川崎航空機黒川地下工場	地下工場建設	熊本	阿蘇町	◎	
魚貫炭鉱	鉱業	熊本	天草市	●	
第2陸軍造兵廠熊本出張所	軍工事	熊本	荒尾市	●	
三井 三池炭鉱万田坑	鉱業	熊本	荒尾市	●	○
五木川第二発電工事(西松組)	土木建設	熊本	五木村	●	
三菱航空機植木地下工場	地下工場建設	熊本	植木市	◎	
牛深特攻基地	軍工事	熊本	牛深市	△	
奥浦特攻基地	軍工事	熊本	牛深市	△	
茂串特攻基地	軍工事	熊本	牛深市	△	
天草炭鉱	鉱業	熊本	牛深市	●	
日本合成化学熊本工場建設(西松組)	土木建設	熊本	宇土市	●	
旭無煙・旭炭鉱	鉱業	熊本	河浦町	●	
陸軍花房飛行場(田尻組)	飛行場建設	熊本	菊池市	●	
三菱航空機大津地下工場	地下工場建設	熊本	菊陽町	◎	
海軍人吉飛行場	飛行場建設	熊本	人吉市	△	
佐世保施設部・有佐	軍人軍属	熊本	鏡町	●	
熊本師団兵士	軍人軍属	熊本	熊本市	●	

健軍「慰安所」	性的奴隷	熊本	熊本市	●	
九州工具地下工場	地下工場建設	熊本	熊本市	○	
日本고早熊本地下工場	地下工場建設	熊本	熊本市	○	
三菱航空機万日山地下工場	地下工場建設	熊本	熊本市	○	
三菱航空機上熊本地下工場	地下工場建設	熊本	熊本市	○	
熊本市電延長工場	土木建設	熊本	熊本市	○	
菊池電鉄工事(西松組)	土木建設	熊本	熊本市	△	
三菱航空機健軍工事	土木建設	熊本	熊本市	●	
陸軍関係本山工事(清水組)	土木建設	熊本	熊本市	●	
佐世保施設部・熊本	軍人軍属	熊本	熊本市	●	
海軍高原飛行場	飛行場建設	熊本	相良村	○	
陸軍隈庄飛行場 鉄道工業	飛行場建設	熊本	城南町	○	
陸軍隈庄飛行場地下建設 鉄道工業	飛行場建設	熊本	城南町	○	
東海電極製造田浦工場	軍需工場	熊本	田浦町	●	
深田鉦山	鉦業	熊本	深田村	○	
鹿屋航空廠深田地下工場	地下工場建設	熊本	深田村	○	
天草水上基地	軍工事	熊本	本渡市	△	
炭焼・森林作業	土木建設	熊本	水上村	△	
日本窒素水俣工場	軍需工場	熊本	水俣市	●	
丸島「慰安所」	性的奴隷	熊本	水俣市	●	
窒素水俣工場地下壕	地下工場建設	熊本	水俣市	●	
三菱航空機山鹿地下工場	地下工場建設	熊本	山鹿市	○	
富岡特攻基地	軍工事	熊本	苓北町	△	
第15地下施設隊・熊本	軍人軍属	熊本		●	
第17地下施設隊・熊本	軍人軍属	熊本		●	
日室 原石採掘	鉦業	熊本		△	
矢部線第2区工事 鉄道工業	土木建設	熊本	八女市	○	
陸軍高瀬飛行場(株木組)	飛行場建設	熊本	玉名市	○	
西松組川南軍工事	軍工事	宮崎	川南町	●	
川南落下傘訓練基地	飛行場建設	宮崎	川南町	○	
石河内発展工事(熊谷組)	発展工事	宮崎	木城町	●	
三菱 楨峰鉦山	鉦業	宮崎	北方町	●	
楨峰鉦山터널工事(銭高組)	土木建設	宮崎	北方町	△	
日発星山発展工事	発展工事	宮崎	北方町	●	
宮崎 綾鉄道工事 鉄道工業	土木建設	宮崎	木脇村	●	
陸軍木脇飛行場 鉄道工業	飛行場建設	宮崎	木脇村	△	
本城特攻基地	軍工事	宮崎	串間市	△	
崎田水上基地	飛行場建設	宮崎	串間市	△	
日室 三ヶ所鉦山	鉦業	宮崎	五ヶ瀬村	●	
日室 財木鉦山	鉦業	宮崎	推葉村	●	
岩屋土発展工事(間組)	発展工事	宮崎	推葉村	●	
陸軍新田原飛行場(島栄組)	飛行場建設	宮崎	新福町	●	
土呂久鉦山	鉦業	宮崎	高千穂町	○	
栄松特攻基地	軍工事	宮崎	南郷町	△	
外浦特攻基地	軍工事	宮崎	南郷町	△	
林所発展工事(西松組)	発展工事	宮崎	西米良村	●	
下相見発展工事(西松組)	発展工事	宮崎	西米良村	●	
油津特攻基地	軍工事	宮崎	日南市	△	
大堂津特攻基地	軍工事	宮崎	日南市	△	
梶木特攻基地	軍工事	宮崎	延岡市	△	
土々呂特攻基地	軍工事	宮崎	延岡市	△	
夏井特攻基地	軍工事	宮崎	延岡市	△	
日室化学延岡工場(ベンベルク・旭化成)	軍需工場	宮崎	延岡市	●	
日室北岡出張所(西松組)	土木建設	宮崎	延岡市	●	
西家選鉦場建設(鹿島組)	土木建設	宮崎	高城町	△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조사

海軍富高飛行場	飛行場建設	宮崎	日向市	◎	
呉施設部・富高	軍人軍属	宮崎	日向市	●	
細島特攻基地	軍工事	宮崎	日向市	△	
美々津特攻基地	軍工事	宮崎	日向市	△	
海軍都城飛行場	飛行場建設	宮崎	都城市	◎	
都農特攻基地	軍工事	宮崎	都農町	△	
内海特攻基地	軍工事	宮崎	宮崎市	△	
海軍赤江飛行場	飛行場建設	宮崎	宮崎市	◎	
呉海軍施設部・宮崎	軍人軍属	宮崎	宮崎市	●	
朝鮮農業報国隊 新別府・吉村	農林	宮崎	宮崎市	●	
第14地下施設隊・宮崎	軍人軍属	宮崎		●	
第25師団歩兵第144070 山砲兵15 工兵25連隊	軍人軍属	宮崎		●	
日窒 阿久根鋳山	鋳業	鹿児島	阿久根町	●	
陸軍徳之島飛行場	飛行場建設	鹿児島	天城町	●	
日鋳 玉ノ山鋳山	鋳業	鹿児島	栗野町	●	
出水航空部隊	軍人軍属	鹿児島	出水市	●	
佐世保施設部・出水	軍人軍属	鹿児島	出水市	●	
海軍出水飛行場 鉄道工業	飛行場建設	鹿児島	出水市	●	
小串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内之浦町	△	
白木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内之浦町	△	
内ノ浦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内之浦町	△	
陸軍青戸飛行場	飛行場建設	鹿児島	穎娃町	◎	
大口鋳山	鋳業	鹿児島	大口市	●	
布計鋳山	鋳業	鹿児島	大口市	●	
海軍岩川飛行場	飛行場建設	鹿児島	大隈町	◎	
佐世保施設部・大島	軍人軍属	鹿児島	大島郡	●	
海軍第228設営隊	軍人軍属	鹿児島	大島郡	●	
谷山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鹿児島市	△	
海軍鹿児島水上基地	飛行場建設	鹿児島	鹿児島市	△	
海軍鹿児島飛行場	飛行場建設	鹿児島	鹿児島市	△	○
片浦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笠沙町	●	
野間池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笠沙町	△	
陸軍万世飛行場 鉄道工業	飛行場建設	鹿児島	加世田市	●	
佐世保施設部鹿児島支部	軍人軍属	鹿児島	鹿児島市	●	
海軍鹿児島飛行場(銭高組)	飛行場建設	鹿児島	鹿児島市	●	○
国鉄鹿児島	運輸港湾	鹿児島	鹿児島市	●	
第22航空隊	軍人軍属	鹿児島	鹿児島市	●	
九州海軍航空隊	軍人軍属	鹿児島	鹿児島市	●	
鹿児島「慰安婦」	性的奴隷	鹿児島	鹿児島市	●	
海軍笠之原飛行場	飛行場建設	鹿児島	笠之原町	△	
海軍串良航空基地工事	飛行場建設	鹿児島	串良町	●	
佐世保施設部・串良	軍人軍属	鹿児島	串良町	●	
大野津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善界町	△	
早町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善界町	△	
喜久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善入市	△	
中名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串木野市	△	
日鋳 荒川鋳山	鋳業	鹿児島	串木野市	●	
三井 串木野鋳山	鋳業	鹿児島	串木野市	●	
佐世保施設部・国分	軍人軍属	鹿児島	国分市	●	
海軍国分飛行場	飛行場建設	鹿児島	国分市	●	
袴腰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桜島町	△	
佐世保施設部・指宿	軍人軍属	鹿児島	指宿市	●	
海軍指宿水上基地	飛行場建設	鹿児島	指宿市	◎	
海軍田良飛行場	飛行場建設	鹿児島	指宿市	◎	
間泊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佐多町	●	

薩摩 山ヶ野鉦山	鉦業	鹿児島	薩摩町	●	
小島浦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里町	△	
指宿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指宿市	△	
夏井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志布志町	△	
海軍志布志飛行場(銭高組)	飛行場建設	鹿児島	志布志町	△	
志布志飛行場地下建設(銭高組)	飛行場建設	鹿児島	志布志町	△	
江陵郡精勤連盟奉仕隊		鹿児島	志布志町	●	
久慈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瀬戸内町	●	
呑ノ浦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瀬戸内町	●	
三浦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瀬戸内町	△	
古仁屋要塞・特設水上勤務隊	軍人軍属	鹿児島	瀬戸内町	●	
川内川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川内市	△	
新城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垂水市	△	
垂水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垂水市	△	
聖ヶ浦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知覧町	●	
知覧飛行場地下施設 鉄道工業	飛行場建設	鹿児島	知覧町	◎	○
佐世保施設部・種子島	軍人軍属	鹿児島	中種子町	●	
海軍種子島飛行場	飛行場建設	鹿児島	中種子町	●	
隼人海軍病院壕工事	軍工事	鹿児島	隼人町	△	
佐世保施設部・隼人	軍人軍属	鹿児島	隼人町	●	
菱刈鉦山	鉦業	鹿児島	菱刈町	●	
泊浦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防津町	△	
坊津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防津町	△	
日鉦 春日鉦山	鉦業	鹿児島	枕崎市	●	
一三塚原飛行場	飛行場建設	鹿児島	溝辺町	◎	
長崎鼻特攻基地	軍工事	鹿児島	山川町	△	
歩兵第424・187・189 野砲兵第86連隊	軍人軍属	鹿児島		●	
伊江島「慰安婦」西江	性的奴隷	沖縄	伊江村	●	
伊江島飛行場	飛行場建設	沖縄	伊江村	△	
石垣兵舎建設・壕堀削	軍工事	沖縄	石垣市	●	
川平特攻基地	軍工事	沖縄	石垣市	●	
宮良特攻基地	軍工事	沖縄	石垣市	●	
石垣島「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石垣市	●	○
海軍石垣平飛行場(原田組)	飛行場建設	沖縄	石垣市	●	
海軍石垣ヘーギナ飛行場整備(原田組)	飛行場建設	沖縄	石垣市	●	
陸軍白保飛行場	飛行場建設	沖縄	石垣市	●	
山城砲弾運搬	運輸港湾	沖縄	糸満市	●	
糸満軍用壕	軍工事	沖縄	糸満市	●	
摩文仁・喜屋武	軍人軍属	沖縄	糸満市	●	○
波平「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糸満市	●	
喜屋武・山城「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糸満市	●	
糸満飛行場	飛行場建設	沖縄	糸満市	●	
運天特攻基地	軍工事	沖縄	今帰仁村	●	
安波茶「慰安婦」第62師団独立歩兵	性的奴隷	沖縄	浦添市	●	
仲間「慰安婦」第62師団	性的奴隷	沖縄	浦添市	●	
西原「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浦添市	●	
大里「慰安婦」稻嶺・目取間	性的奴隷	沖縄	大里村	●	
沖大東島「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沖大東村	●	
暁部隊船舶司令部	軍人軍属	沖縄	沖縄	●	
特設水上勤務第102中隊	軍人軍属	沖縄	沖縄	●	
特設水上勤務第101中隊	軍人軍属	沖縄	沖縄・宮古	●	
倉敷「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沖縄市	●	
嘉手納「慰安婦」第44飛行場大隊	性的奴隷	沖縄	嘉手納町	●	
陸軍嘉手納飛行場	飛行場建設	沖縄	嘉手納町	●	
沖大東島基地	軍工事	沖縄	北大東村	●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조사

嘉数陳地構築	軍工事	沖繩	宜野湾市	●	
嘉数「慰安婦」獨立歩兵第13大隊	性的奴隸	沖繩	宜野湾市	●	
宜野湾「慰安婦」波松・越來	性的奴隸	沖繩	宜野湾市	●	
屋嘉特攻基地	軍工事	沖繩	金武町	●	
가라비壕「慰安婦」	性的奴隸	沖繩	貝志頭村	●	
貝志川・大田「慰安婦」第24師団歩兵	性的奴隸	沖繩	貝志川村	●	
安慶名「慰安婦」獨陸混成第44旅団	性的奴隸	沖繩	貝志川村	●	
久米島「慰安婦」	性的奴隸	沖繩	久米島町	●	
慶留間特攻基地	軍工事	沖繩	座間味村	●	
座間味特攻基地	軍工事	沖繩	座間味村	●	
라사 慶良鉦山	鉦業	沖繩	座間味村	●	
阿嘉「慰安婦」海上推進基地第2大隊	性的奴隸	沖繩	座間味村	●	
阿真「慰安婦」海上推進基地第1大隊	性的奴隸	沖繩	座間味村	●	
陸軍第32軍司令部防衛築城隊	軍人軍屬	沖繩	島尻郡	●	○
陸軍第32軍防衛築城隊第4・第5中隊	軍人軍屬	沖繩	宮古	●	
城辺「慰安婦」下北・新城・比嘉・福里	性的奴隸	沖繩	城辺町	●	○
喜如嘉木材運搬	軍工事	沖繩	大宜味村	●	
漲水港運荷役	運輸港湾	沖繩	平良市	●	
狩俣特攻基地	軍工事	沖繩	平良市	△	
宮古「慰安婦」鏡原野原越西仲宗根・地盛・下里	性的奴隸	沖繩	平良市	●	
海軍宮古飛行場	飛行場建設	沖繩	平良市	●	
第5野戰航空修理廠戰闘修理班	軍人軍屬	沖繩	宮古	●	
歩兵第3連隊	軍人軍屬	沖繩	宮古	●	
船浮荷役	運輸港湾	沖繩	竹富町	●	
小浜島陳地構築	軍工事	沖繩	竹富町	●	
西表軍用壕	軍工事	沖繩	竹富町	●	
西表特攻基地	軍工事	沖繩	竹富町	●	
星岡炭鉦赤崎坑	鉦業	沖繩	竹富町	◎	
丸三炭鉦宇多良坑	鉦業	沖繩	竹富町	◎	
內離島「慰安婦」	性的奴隸	沖繩	竹富町	●	
小浜島「慰安婦」	性的奴隸	沖繩	竹富町	●	
白保炭鉦「慰安婦」	性的奴隸	沖繩	竹富町	●	
西表島「慰安婦」白浜	性的奴隸	沖繩	竹富町	●	
糸数壕「慰安婦」	性的奴隸	沖繩	玉城村	●	
玉城「慰安婦」富里・船越	性的奴隸	沖繩	玉城村	●	
知念「慰安婦」	性的奴隸	沖繩	知念村	●	
北谷特攻基地	軍工事	沖繩	北谷町	●	
下勢頭「慰安婦」特立歩兵第15大隊	性的奴隸	沖繩	北谷町	●	
渡嘉敷特攻基地	軍工事	沖繩	渡嘉敷村	●	○
阿波連「慰安婦」	性的奴隸	沖繩	渡嘉敷村	●	
渡嘉敷「慰安婦」海上推進基地第3大隊	性的奴隸	沖繩	渡嘉敷村	●	
海軍沖繩司令部軍屬・豐見城	軍人軍屬	沖繩	富見城村	●	
名護港運荷役	運輸港湾	沖繩	名護市	●	
名護造船用木材運搬	運輸港湾	沖繩	名護市	●	
嘉津宇岳通信隊陳地	軍工事	沖繩	名護市	●	
大南「慰安婦」獨混成第44旅団第2歩兵	性的奴隸	沖繩	名護市	●	
屋宜原「慰安婦」	性的奴隸	沖繩	中城村	●	
特設水上勤務第103中隊	軍人軍屬	沖繩	那覇・慶良間	●	
特設水上勤務第104中隊	軍人軍屬	沖繩	那覇・慶良間	●	
那覇港運荷役	運輸港湾	沖繩	那覇市	●	
海軍小祿壕	軍工事	沖繩	那覇市	●	
首里指令部壕	軍工事	沖繩	那覇市	●	
波上陳地構築	軍工事	沖繩	那覇市	●	
海軍第226設営隊・小祿	軍人軍屬	沖繩	那覇市	●	
第32軍兵站本部・那覇	軍人軍屬	沖繩	那覇市	●	

首里司令部壕「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那覇市	●	
高橋・避病院「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那覇市	●	
中井真「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那覇市	●	
中之橋「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那覇市	●	
東町「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那覇市	●	
松山「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那覇市	●	
若狭「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那覇市	●	
陸軍小祿飛行場	飛行場建設	沖縄	那覇市	△	
津賀山輸送	運輸港湾	沖縄	南風原町	●	
長堂「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南風原町	△	
津嘉山「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南風原町	●	
外間運搬	運輸港湾	沖縄	東風平町	●	
宣次「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東風平町	●	
外間「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東風平町	●	
川田木材石炭運搬	運輸港湾	沖縄	東村	●	
川田「慰安婦」第32軍司令部經理部	性的奴隷	沖縄	東村	●	
本部港湾荷役	運輸港湾	沖縄	本部町	●	
伊豆味軍用壕	軍工事	沖縄	本部町	●	
上本部軍用壕	軍工事	沖縄	本部町	●	
本部「慰安婦」伊豆味・渡久地・満名	性的奴隷	沖縄	本部町	●	
南大東島基地	軍工事	沖縄	南大東村	●	
在所「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南大東村	●	
新東「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南大東村	●	
与那原連隊本部	軍人軍属	沖縄	与那原町	●	
読谷特攻基地	軍工事	沖縄	読谷村	△	
喜名「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読谷村	●	
高志保「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読谷村	●	
比謝東「慰安婦」太刀洗航空廠那覇分廠	性的奴隷	沖縄	読谷村	●	
伊良皆「慰安婦」	性的奴隷	沖縄	読谷村	●	
陸軍読谷飛行場	飛行場建設	沖縄	読谷村	△	○
歩兵第89連隊	軍人軍属	沖縄		●	
第7野戦船舶工廠沖縄支廠	軍人軍属	沖縄		●	
海上挺身基地第27大隊	軍人軍属	沖縄		●	
航空軍独立整備隊	軍人軍属	沖縄		●	
第17船舶航空廠	軍人軍属	沖縄		●	

주 : ●강제동원지, ◎강제노동지, △강제동원(노동) 가능성이 높은 장소, ○ 현지조사(비, 기관, 면담)

자료 : 竹内康人編(2015), 『戦時朝鮮人強制労働調査資料集(増補改訂版)-連行先一覧-全国地図-死亡者名簿』, 神戸学生青年センター에서 인용 작성

연구진

연구책임	박 찬 식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사)제주다문화교육·복지연구원
공동연구	고 광 명	재외제주인연구센터
공동연구	심 재 욱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공동연구	고 병 수	제주뉴스
자문위원	이 규 배	제주국제대학교
위촉연구원	윤 명 희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일제강점기 재일제주인 강제동원 현황 및 실태조사(九州・沖繩편)

발행일 || 2018년 12월

발행처 || 제주특별자치도(064-710-6247)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064-726-5623)

(우)63196 제주시 동광로 51, 3층

www.jst.re.kr

인쇄처 || 디자인케이(064-726-0747)

(우)63223 제주시 남광북3길 18

ISBN : 978-89-6010-687-1 93090(비매품)

-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